

동학창도 150주년 기념 추계국제학술대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The Peace of East Asi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Donghak

- 일시 2010년 10월 28일(목) 9:00-17:3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동학학회
- 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Donghak

The Peace of East Asi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Donghak

09:00~17:30, 28 Oct 2010

Korea Press Foundation 19<sup>th</sup> floor

The Donghak Society

「이 제작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

본 『동학학회 자료집』 제55집은 동학학회의  
지난 월례학술회의와 순계·주계 학술대회 자료  
집에 이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 학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01-04-051075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신 학회원께서는 접수대에 비치된 '동학학회 주소록 수정' 양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부록의 '입회원서' 작성 후 접수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초대의 말씀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주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생명·평화의 보편사상인 동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모색하는 것은 동학의 현실참여적 지평을 넓히고, 아울러 동아시아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사상적 및 존재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동학은 동학혁명, 갑진개혁운동,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좌우 갈등과 대립 사이에서 인내천사상에 입각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사상으로서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사상적 씨앗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동학의 실천적 담론의 활성화는 남북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 창도 150주년’이 되는 이 뜻 깊은 해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학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실천적 담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오늘의 실정에 맞게 동학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학 창도 1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예시로 가득 찬 여러분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올림

순서

◇ 등록 (9:00-9:30)

◇ 개회식 (9:30-10:30)

개회사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축사 : 임운길 (천도교 교령)

기조강연 : 김태장 (日本 公共哲學研究所 所長)

◇ 제 1 부 학술 발표 (10:30~12:30)

사 회: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교대학원 총장)

제 1 주제: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10:30~11:10)

발표자 :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자 : 임상욱(숙명여대 교수)

제 2 주제: 동학의 평화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에 관한 시론 (11:10~11:50)

발표자 : 김철수(延邊大 教授 兼 東邦哲學研究所 所長)

토론자 : 정혜정 (인천대 연구교수)

제 3 주제: 갑오농민전쟁과 일본사회 (11:50~12:30)

발표자 : 임병택(日本 삿포로 自由學校 教授)

토론자 : 박맹수(원광대 교수)

◇ 점심시간 (12:30~13:40)

◇ 제 2 부 학술 발표 (13:40~15:40)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제 4 주제: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13:40~14:20)

발표자 : 박소정(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教授)

토론자 :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제 5 주제: 동학의 민족통일 방안 연구 (14:20~15:00)

발표자 : 임형진(경기대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토론자 : 남태욱(서울신학대 교수)

제 6 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문명의 전환 (15:00~15:40)

발표자 : 주요섭(모심과 살림 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 김준성(부산에대 교수)

◇ 휴식 (15:40-16:00)

◇ 제 3 부 종합토론 (16:00~17:30)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 폐회 (17:30)

## 목 차

### ◇ 제 1 부 학 술 발 표

- 01 | 제1주제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최민자
- 36 | 제2주제 동학의 평화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에 관한 시론      김철수
- 46 | 제2주제 한글요약문

### ◇ 제 2 부 학 술 발 표

- 51 | 제3주제 갑오농민전쟁과 일본사회      임병택
- 66 | 제3주제 한글번역문
- 95 | 제4주제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박소정
- 123 | 제4주제 한글요약문
- 126 | 제5주제 동학의 민족통일 방안 연구      임영진
- 160 | 제6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문명의 전환      주요섭

### ◇ 부 록

- 192 | 동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혁 since 1998
- 202 | 동학학회 관련 언론 보도
- 210 | 동학학회 홈페이지 안내
- 211 | 동학학회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 제1주제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The Dialectic of Cognition and Being in Donghak :  
A Practical Discussion of Peace and Unification Thought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1. 서론
2.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
  - 1) 변증법적 이해의 필요성
  - 2) 변증법적 이해의 본질과 그 의미
3.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 1)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
  - 2) '만사지(萬事知)'와 무극대도의 세계
4.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 1) 생명과 평화 그리고 통일
  - 2)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을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동학적 앎(knowing)과 삶(living)의 관계적 본질을 평화와 통일사상의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규명은 정치사회의 이상향을 도출해내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한다는 말이 있듯이, 앎과 삶의 관계적 본질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를 밝히는 것이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촉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추동해내는 사상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식과 존재, 즉 앎과 삶의 불가분성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진리의 울타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수운(水雲)이 천도(天道)와 천덕(天德)의 진수를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주문 열세 자로 함축하여 펼쳐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왜 천도와 천덕의 진수가 '만사지', 즉 '만사를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그것은 만사를 알면 조화세계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적 앎은 분절적 지식(fragmentary knowledge)이 아니라 대통(大通)의 지성[全知 omniscience]이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재이고, 파편이 아니라 전체이며,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 인식은 앎을 아는 것이므로 '아는 자(knower)', 즉 인식의 주체와 연결된다. '아는 자'는 주관과 객관의 저 너머에 있는 보편적 실재——전통적으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즉,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sup>1)</sup>이다.

1) 『天符經』의 '하나(-)'와 『삼일신고』의 一神, 이슬람교 『코란 Koran』의 '알라'와 기독교 『성경 Bible』의 하느님[유일신], 힌두교 『베다 Vedas』 · 『우파니샤드 The Upanishads』 ·

인식의 뿌리는 바로 이 참자아와 연결된다. 스스로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다시 말해 우주의 본질인 생명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식과 존재에 대한 논의는 한갓 공론일 뿐, 그 어떤 논의도 실재성을 떨 수가 없다. 천지 만물이 이치로 화생하고 기운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천지이기(天地理氣)가 곧 생명의 본체다. 한마디로 기운이 곧 이치(氣則理)요 이치가 곧 기운(理則氣)이니, ‘천지이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이기, 즉 참자아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중추(中樞)를 틀어쥐는 것이다.

우주의 실체는 의식이므로<sup>2)</sup> 참자아는 곧 참본성이다. 참본성—흔히 신성[神] 또는 영성[靈]이라고도 부르는—은 만유가 만유일 수 있게 하는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말하는 ‘부동의 동인(The First Unmoved Mover)<sup>3)</sup>, 즉 ‘제1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참자아의 진성(眞性), 즉 참본성은 성(性)·명(命)·정(精) 셋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성’은 우주 지성이고, ‘명’은 우주 생명력 에너지[至氣]이며, ‘정’은 우주의 근본 질료다. 말하자면 참자아는 우주 지성인 동시에 우주 생명력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의 근본 질료로서 이러한 지성·에너지·질료는 제1원인의 삼위일체로 설명될 수 있다. 물질계는 생명의 본체인 ‘영(Spirit)’ 자신의 설계도가 스스로의 에너지·지성·질료의 삼위일체의 작용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만유는 ‘물질화된 영(materialized Spirit)’이다.

영과 육, 의식계와 물질계가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서 둘이 아님을 알아

『भागवद् गीता The Bhagavad Gita』의 브라흐마, 유교의 하늘(天)과 불교의 佛과 도가의 道, 그리고 천도교 『東經大全』의 天主와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들에 나오는 三神과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숭상해온 하늘(天)이 모두 생명의 본체인 절대유일의 참자아를 일컫는 대명사이다.

2) 이는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元曉의 ‘一切唯心造’ 사상, 즉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지니, 三界은 오직 마음뿐이요 萬法은 오직 識뿐이라(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三界唯心 萬法唯識)”고 한 데서나, 이 우주를 우리의 의식이 지어낸 이미지 구조물로 보는 홀로그램(hologram) 우주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의식 발견’으로 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3) Frederick Copleston, S. J., *A History of Philosophy*(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62), p.311.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야 생명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고, 만유의 근원인 참자아를 자각할 수 있으며,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 만유의 근원적 평등성과 유기적 통합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 각지불이의 ‘불이(不<sub>2</sub>移)’, 즉 부동지(不<sub>2</sub>動地)<sup>4)</sup>의 경지이다. 무수한 사상(事象)이 펼쳐진 ‘다(多)’의 현상계와 그 무수한 사상이 하나로 접힌 ‘일(一)’의 본체계는 상호 조응해 있으며 상호 관통한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질현상과 정신현상 모두가 참자아인 하늘 기운의 조화 작용인 까닭이다. 거기엔 어떠한 선도 악도 없다. 선과 악이 생겨나고 행과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나’라는 에고(ego)의식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명을 단순히 물질적 껍질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물질 이원론으로는 신(神, 天)이 곧 신성이고 영이 곧 영성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자아인 참본성임을 파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생명의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만유가 참자아의 자기현현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인내천(人乃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을 실천하는 순천(順天)의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보편적 실재인 참자아를 자각한다는 것은 만물화생의 근본 원리로서 작용하는 제1원인인 생명의 본체를 자각한다는 것이니, 이는 우주의 본질인 생명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 키를 소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역사상 그 숭한 전쟁과 기만과 폭력행위, 그리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총체적인 인간 실존의 위기는 모두 생명을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는 부적절한 인식에서 파생된 것이다.

4) 華嚴十地說에서는 보살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10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不動地’는 제8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경지다. 10地는 ① 歡喜地(pramudita: 十大願을 세움), ② 離垢地(vimala: 十善業道를 행함), ③ 發光地(prabhakari: 無常·無量·無我 등을 관함), ④ 焰慧地(arcismati: 三十七助道品을 닦음), ⑤ 難勝地(sudurjaya: 四諦 八正道를 닦음), ⑥ 現前地(abhimukhi: 無相·無性·不生 등의 평등성과 十二緣起를 관함), ⑦ 遠行地(duraagama: 十波羅密을 닦음), ⑧ 不動地(acala: 無生法邊을 얻음), ⑨ 善慧地(sadhumati: 四無碍智를 얻음), ⑩ 法雲地(dharmamegha: 大法雨를 뿌림), 이상의 10단계이다.

오늘날 인간 억압과 자연 억압의 만연은 생명의 본체와 작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해서 생명을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학적인 신체라는 의미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말하자면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며, 인간 간에도 국가·민족·인종·성(性)·종교 등의 경계를 설정하여 생명을 개체화된 물질적 의미로만 이해함으로써 인간 억압과 자연 억압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와 만유가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와도 같이 상호 조응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처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는 반드시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역(逆)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관계의 본질을 구명(究明)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을 평화와 통일사상의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유에 편재해 있는 참본성이 곧 하늘이요 신이라는 인식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삶과 종교, 학문과 종교, 과학과 종교, 종교와 종교가 화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면 우선 인식과 존재의 관계를 왜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변증법적 이해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2.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

### 1) 변증법적 이해의 필요성

존재계의 모든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직시하지 못하는 데 따른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인식과 존재의 괴리에 기인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세 중심축'인 천·지·인 삼재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부재 때문이다. 생명 과정의 전일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spiritual ignorance)로 인해 전체와 분리된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따라 선과 악이 생겨나며 행과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실종은 영[실재, 정신]과 육[현상, 물질]을 분리시켜 스스로를 현상의 세계에 가뒤퍼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와 그 작용인 우주만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인식되면서 이성과 영성, 현상과 실재, 주관과 객관, 기술과 도덕, 독자성과 보편성 간의 심연(abys)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인식과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유(思惟)를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 연결시키는 논리적 도구이자 생동하는 철학인 변증법<sup>5)</sup>의 운동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지적 탐구가 감각적·현상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물의 궁극적인 원리에 대한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인식과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삶과 삶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진정한 삶을 통한 지식과 삶의 화해로 귀결된다. 인식과 존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증법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음은 변증법적 사유의 핵심이 모순을 기반으로 한 대립물의 통합에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식과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변화 속에서 통일의 원리를 간파할 수 있는 통섭적 사고가 필요하다.

인식과 존재의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은 의식[정신]과 존재[물질]의 합일화과정, 즉 분리의식의 극복과정이며 이는 곧 의식의 진화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아(self)'와 '비아(other)'의 두 대립되는 자의식 간의 '삶과 죽음의 투쟁'은 의식의 자기교육 과정으로서 의식의 진화[영적 진화]를 위한 학습여건 창출과 관계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보편적으로 상호의존

5) 변증법의 사상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최민자, 『통섭의 기술』(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0), 211-219 참조.

적이며 상호적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일체의 모순 대립이 지양되어 정신은 자유를 현실로서 실감하게 된다.<sup>6)</sup> 그런 점에서 의식의 진화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운위되는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은 지적 희론(知的 戲論)에 지나지 않으며 실재성을 떨 수가 없다.

오늘날 분리의식의 극단화에 따른 지구 생명의 위기, 정보화 혁명에 따른 전 지구적 네트워크체제 구축,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전일적 패러다임에 의한 존재계의 실상 파악 등으로 통섭적 사유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객관과 주관, 전체성과 개체성, 통합과 분화 등 대립자의 양 극이 지니는 편견을 지양시켜 양 차원을 자유롭게 소통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성전(聖戰)이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라는 미명하에 무기체제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학문과 지식은 황금과 권력, 명예와 인기를 얻는 도구로 전락하고 정의(justice)의 가면을 쓴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세상이 되면서 인식의 왜곡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세상이다. 인식의 뿌리탈 수 있는 참자아에 대한 자각 없이는 생명의 전일성을 자각할 수가 없으므로 인식과 존재의 괴리는 메워지기 어렵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인 생명의 그물망임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정의가 뿌리를 내릴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불의를 피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 불선(不善)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영적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와 사상의 정수가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것은 참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올바른 삶이 전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인 참본성의 회복, 즉 복본(復本)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의 필요

6) 이러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은 헤겔(G. W. F. Hegel)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master-slave dialectic)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我'와 '非我'의 두 대립되는 自意識에 관한 이러한 변증법은 ego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면면히 나타나는 바, 헤겔은 이를 역사 과정의 참 動因이 되는 원리로 간주한다. 그의 관점에서 역사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역사에 불과하며, 그 최후의 단계에서는 대립을 이루는 특수적 자의식이 통합을 이루어 보편적 자의식이 되면서 정신은 자유를 현실로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성이 여기에 있다.

### 2) 변증법적 이해의 본질과 그 의미

인식과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양 차원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상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이원론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는 분리의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일체의 불평등과 부자유의 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고통이나 두려움은 그 스스로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에고의식의 부산물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물질적 환영(幻影)인 마야(maya)의 장막이 우리와 이 세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탐욕, 증오, 분노, 질투, 믿음, 이념, 견해, 지식 등 이 모든 것이 삶과 봄(seeing)을 가로막는, 하여 온전한 삶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야의 장막이다. 이러한 사념의 장막은 영성의 결여 때문에 생겨나며 그로 인해 삼사라(samsara 生死輪廻)가 일어나지만, 중국에는 마야의 미망과 삼사라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자아를 자각하게 된다. 말하자면 일체의 모순과 대립의 지양을 통해 대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식과 존재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 관통을 깨달아 만유의 존재성을 수용한다는 것이므로 사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생명의 순환을 이해함으로써 이 우주가 자연법인 카르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평등과 부자유의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물질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질병으로서 분리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건강과 병 등 일체의 분별은 곧 자신의 마음의 분별이며, 마음이라는 인식의 주체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람(Karl Pribram) 또한 인식의 주체가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였다.<sup>7)</sup>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참본

성인 영성에 대한 자각 없이는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미지와 신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수용적이며, 또한 집단무의식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적 본질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고 마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sup>8)</sup> 마음은 에너지이며 주파수를 갖고 있고, 같은 주파수 대역은 서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향의 이원성은 그 자체의 리듬과 긴장감이 영적 진화를 위한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건강과 병 등 오직 양 극단의 대조적 체험을 통해서만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원이 완성될 수 있는 까닭에 상대계인 물질적 우주가 생겨난 것이다.

현대 과학의 진보는——양자역학(quantum mechanics)<sup>9)</sup>이 말하여 주듯——‘마음의 과학’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차원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우주가 오직 마음뿐임을 강조한 동양의 현자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마음이 속박의 원천인 동시에 해방의 원천인 것은 사물에 집착하면 속박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방인 까닭이다.”<sup>10)</sup> 영성과 물성이 하나임

7) 칼 프리브렘에 의하면, 감각 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자극이 인체에 들어오면 전기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 모두 파동(wave)의 형태로 뇌에 전달되는데, 이때 외부로부터 전달된 파동의 형태가 기억으로부터 상기된 파동의 형태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고, 동일하면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8) Carl Gustav Jung, *Synchronicity: An Acausal Connecting Principle*, Collected Works VII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C. G. 융 지음, 한국융연구원 C. 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 2)(서울: 솔, 2002) 참조.

9) 양자역학에 대한 두 가지 해석으로는 표준해석으로 여겨지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닐스 보어(Niels Bohr) 등에 의한 코펜하겐 해석(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CIQM), 1927)과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데이비드 보姆(David Bohm) 등에 의한 결정론적인 해석이 있다. 이들 해석 모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기초하여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코펜하겐 해석이 그러한 이중성의 존재 기반을 규명하지 못한 데 비해 보姆은 그러한 이중성을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 개념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민자, 『통섭의 기술』, 238-240쪽.

10) *Maitri Upanishad in The Upanishads*, translated from the Sanskrit with an introduction by Juan Mascaro(London: Penguin Books Ltd., 1962), p.104: “Mind is indeed the source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을 인식하는 주체는 마음인 까닭에 이 양 차원을 가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주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 키를 소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렇듯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의 본질은 마음의 해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만물의 근본이 되고, 물질세계 저 너머에 있으면서 물질세계의 변화를 주재하는 참자아 [참본성]”<sup>11)</sup>란 바로 일심, 즉 해방된 마음을 지칭한 것이다. 일심은 진성(眞性)이고, 완전한 앎이며, 순수의식이다. 마음의 해방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은 개체화 의식으로 인해 생명의 전일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물질세계가 만들어내는 현란한 유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체성인 참자아가 자기복제로서의 작용을 통해 개체성인 물질적 자아의 형태로 현현하는 것은 앎을 존재로서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앎을 존재로서 체험한다는 것은 상대계에서의 양 극단을 체험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의식의 담금질을 통해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한 앎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영적 진화를 이루고 앎의 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주의 진행방향이 영적 진화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제 가치 또한 영적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본질인 생명은 합목적적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칩——‘우주 지성’이라고도 부르는——이 내장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 진화의 방향에서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영적 진화에 역행하면 카르마의 그물에 걸려 재수강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영적 교정을 통해 진화하는 것이다. 해방된 마음이란 걸림이 없는 의식이고, 의식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며 인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

of bondage and also the source of liberation. To be bound to things of this world: this is bondage. To be free from them: this is liberation.”

11) *The Bhagavad Gita*, translated from the Sanskrit with an introduction by Juan Mascaro(London: Penguin Books Ltd., 1962), 13. 14. : “...He is beyond all, and yet he supports all. He is beyond the world of matter, and yet he has joy in this world.”

### 3.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 1)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

동학에 나타난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는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있다.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유산인 정신·물질 이원론에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 또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기실은 특정 주파수대의 에너지 진동——즉, 분자·원자·전자·아(亞)원자 입자들의 쉼 없는 운동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장(場)——으로 99.99%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견고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는 천·지·인 삼재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부재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분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파동체인 생명 현상을 단순한 물리 현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이처럼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세상을 봄으로써 인식과 존재의 괴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을 허물어야 하고,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주의 본질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식의 뿌리랄 수 있는 참자아에 대한 자각이 필수적이다. 실로 참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인식과 존재의 괴리는 메워지기 어렵다. 참자아의 관점에서 생사(生死)란 생명의 낮과 밤의 학습 주기일 뿐, 생명의 흐름은 영원히 이어진다. 일체 우주만물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지만 생멸을 초월한 영원한 실재의 차원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이 있다는 것이다. 동학에서는 이를 무극대도라 하여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 즉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법(理法)”<sup>12)</sup>으로 나타내고 이를 천도(天道)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동학에 나타난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는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이해의 열쇠는 궁극적 실재인 참자아가 만유의 본질로서 내재해 있는 동시에 만물화생(萬物化生)의 근본원리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수운이 풀이하는 ‘시(侍)’의 세 가지 의미, 즉 ‘내유신령(內有神靈)·외유기화(外有氣化)·각지불이(各知不移)’<sup>13)</sup>는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학의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불교의 법신(法身)과 화신(化身), 기독교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의 관계이며, 이 양 차원을 관통하는 원리가 내재된 것이 보신(報身)이고, 성령이며, 각지불이다. 말하자면 보신, 성령, 각지불이는 본체와 작용을 관통하는 천인합일의 대공(大公)한 경계를 달리 명명한 것이다. 천·지·인 삼신일체, 불교의 삼신불,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모두 생명의 본체와 작용의 합일을 나타낸 것으로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을 밝히는 핵심 원리다.

‘안으로 신령[신성, 영성]이 있고 밖으로 기화(氣化)의 작용이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기 알아서 옳기지 아니한다’는 뜻은, 우주적 본성인 신령이 내재해 있는 동시에 지기(至氣)로서 만물화생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참자아는 스스로 생성되고 스스로 변화하여 스스로 돌아가는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이므로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니다. 참자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이 실재하므로 내재와 초월은 결국 하나다.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의 구분은 단지 물질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천인합일의 경계에서 이러한 구분은 의미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우주만물은 참자아인 혼원일기의 역동적인 나타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천주(侍天主: 하늘(님)을 모심)」란 돌아서 처음으

12) 『東經大全』 「論學文」.

13) 『東經大全』 「論學文」.

로 되돌아오는 무극(無極)의 원기(元氣),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참자아의 자각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신령’과 ‘기화’는 애초에 둘로 된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이치를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의 양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다. 이는 의암(義菴)이 “영과 기운이 본래 둘이 아니요 도사 한 기운이니라”<sup>14)</sup>라고 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해월(海月)에 의하면 내유신령이란 본래의 진여한 마음(一心)을 일컫는 것이고, 외유기화란 생명이 형성될 때 음양의 원리와 기운의 조화 작용으로 체를 이룬 것이다. 「영부주문(靈符呪文)」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유신령이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의 갓난아기의 마음이요, 외유기화란 포태할 때에 이치(理)와 기운(氣)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 것이다. 「밖으로 접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지기금지 원위대강」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sup>15)</sup>

한마디로 동학의 법은 심법(心法)이다. 수운의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은 심법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주관과 객관의 경계 저 너머에 있는 동학의 인식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의암은 「무체법경(無體法經)」에서 개합의 논리를 이용하여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일심법으로 논하고 있다. “성(性)이 닫히면 만리만사(萬理萬事)의 원소가 되고 성이 열리면 만리만사의 거울이 되나니...”<sup>16)</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일즉다(一卽多)요 다즉일(多卽一)이다. 그런 까닭에 해월은 “마음이란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하늘이니 천지만물이 본래 한마음이니라”<sup>17)</sup>라고 한 것이다.

우주의 실체는 의식이므로 참자아란 곧 참본성[신성, 영성]이며 이는 내면의

14) 『義菴聖師法說』 「講論經義」: “...靈與氣 本非兩端 都是一氣也.”

15)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內有神靈者 落地初赤子之心也 外有氣化者 胞胎時 理氣應質而成體也 故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教」 「至氣今至 願爲大降」 是也.”

16) 『義菴聖師法說』 「無體法經」: “性 闔則 爲萬理萬事之原素 性 開則 爲萬理萬事之良鏡.”

17)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心者 在我之本然天也 天地萬物 本來一心.”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하늘을 지칭한 것으로 일심[순수의식, 근원의식, 전체의식, 보편의식]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본체계와 현상계의 회통을 보여주는 동학의 불연기연(不然其然)의 논리는 체(體)로서의 불연과 용(用)으로서의 기연의 상호 관통에 대한 논리로서<sup>18)</sup> 「시천주」를 통해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의 비밀은 일심에 있다. ‘일체의 분별은 곧 자신의 마음의 분별(一切分別卽分別自心)<sup>19)</sup>이며 일심 이외에 다른 실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재와 초월은 결국 하나다. 동학의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일심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문(二門)을 설정한 것과도 같이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의 합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대한 인식은 참자아의 자각적 주체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재와 초월의 합일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늘과 인간을 이원화시키며, 복본(復本)에는 힘쓰지 않고 단순히 기복신앙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코 공심(公心)이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 해월이 「시천」을 「양천(養天)」으로 풀이한 것은 참본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씨앗으로 존재하는 하늘을 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천주」도덕의 요체는 성경이자(誠敬二字)로 이루어진 수심정기(守心正氣)다. 수심정기는 각 개인의 내면적 수양에 기초한 자각적 실천 수행으로서 ‘성경’ 두 자만 지켜내면 무극대도에 이르고 도성입덕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sup>20)</sup>

## 2) ‘만사지(萬事知)’와 무극대도의 세계

천도(天道)와 천덕(天德)의 진수가 ‘만사지’, 즉 ‘만사를 아는 것’으로 끝

18) 『東經大全』 「不然其然」: “比之於究其遠則 不然不然 又不然之事 付之於造物者則 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

19) 元曉, 「大乘起信論疏」, 趙明基 編, 『元曉大師全集』 (서울: 보림각, 1978), 426쪽.

20) 『龍潭遺詞』 「道修詞」: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극대도 아닐런가 시호시호 그때 오면 도성입덕 아닐런가.”

난 것은 만사를 알면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세계는 저절로 열리기 때문이다. 주관과 객관의 저 너머에 있는 보편적 실재, 즉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논의도 실재성을 떨 수가 없다.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관계는 '만사지'와 무극대도의 세계로 압축될 수 있다.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의 다음 구절은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를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를 제공한다.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sup>21)</sup>

만사를 안다는 것은 곧 삶의 원이 완성된 것이다. 만사를 안다는 것이 왜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고 한 것인가? 곡물을 흔히 곡기(穀氣)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기운이다. 천지기운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쁘라스나 우파니샤드 *Prasna Upanishad*』에서는 말한다. “음식으로부터 정액이 만들어지고 이 정액으로부터 존재가 태어났다.”<sup>22)</sup> 사람이 밥에 의지하여 그 생성을 돕듯, 하늘 또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 조화를 나타낸다. 만유가 그러하듯 사람 또한 천지기운의 조화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호흡과 동정(動靜)과 굴신(屈伸)과 의식(衣食)은 모두 하늘의 조화의 힘이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화하는 기틀은 잠시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이렇듯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알면 천인합일의 이치, 즉 생명의 본체[靈性]와 작용[物性]이 하나임을, 일체가 참자아의 자기현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만사를 아는 것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21)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天依人 人依食 萬事知 食一碗.”

22) *Prasna Upanishad in The Upanishads*, p.68: “Food is in truth the Lord of Creation. From food seed is produced and from this beings are born.”

23)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天依人而現其造化 人之呼吸 動靜屈伸衣食 皆天主造化之力 天人相與之機 須與不可離也.”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하늘기운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우주만물은 지기(至氣)인 하늘의 화현인 까닭에 「영부주문(靈符呪文)」에서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이천화천(以天化天)’, 즉 하늘로써 하늘을 먹고 하늘로써 하늘로 화할 뿐이라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우주만물이 모두 한 기운 한 마음으로 꿰뚫어진 까닭에 우주만물의 생성·변화·소멸 자체가 모두 하늘의 조화 작용<sup>24)</sup>인 것이다. 물질세계에서는 사람은 먹는 주체이고 밥은 그 대상이지만, 실재세계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으며 사람이든 밥이든 모두가 하늘기운일 뿐이다. 이 우주는 온통 하늘기운으로 짝 차 있다.

사람은 오행(五行)의 빼어난 기운이고 곡식은 오행의 원기(元氣)이니, 젖은 사람 몸에서 나는 곡식이요 곡식은 천지의 젖이다.<sup>25)</sup>

천지의 젖이란 곧 천지기운이다. “사람이 어릴 적에 빠는 어머니 젖이나 자라서 먹는 오곡(五穀) 모두 천지의 젖이다.”<sup>26)</sup> 사람들이 단지 부모포태(胞胎)의 이치만 알고 천지포태의 이치와 기운은 알지 못하는 것은 천인합일의 이치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지 이치와 기운에 의해 만물이 화생하고 움직이는 조화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니, 생명의 본체는 천지이기(天地理氣)다. “기(氣)란 조화의 근본이고 이(理)란 조화의 현묘함이니 기운이 이치를 낳고 이치가 기운을 낳아 천지의 수를 이루고 만물의 이치가 되어 천지 대정수(大定數)를 세우는 것”<sup>27)</sup>이다. “천지, 음양, 일월, 천만물의 화생한 이치가 한 이치 기운의 조화 아님이

24)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吾道 義 以天食天-以天化天…宇宙萬物 總貫一氣一心也.” cf. *The Bhagavad Gita*, 4. 24. : “Who in all his work sees God, he in truth goes unto God: God is his worship, God is his offering, offered by God in the fire of God.”

25)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人是五行之秀氣也 穀是五行之元氣也 乳也者 人身之穀也 穀也者 天地之乳也.”

26)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人之幼孩時 吮其母乳 卽天地之乳也 長而食五穀 亦是天地之乳也.”

27) 『海月神師法說』 「天地理氣」: “氣者 造化之元體根本也 理者 造化之玄妙也 氣生理 理生氣 成天地之數 化萬物之理 以立天地大定數也.”

없는 것이다.”<sup>28)</sup> 한마디로 기운이 곧 이치(氣則理)요 이치가 곧 기운(理則氣)이니, ‘천지이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생명을 논할 수 없다. 내유신령(內有神靈)과 외유기화(外有氣化)가 이치와 기운,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의 관계로서 하나임을 알아야 각지불이(各知不移)의 경계에서 만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참인식이 일어나고 참삶이 전개되는 것이니 이는 곧 무극대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상합하는 우주변화의 원리를 알면, 이제 우주의 시간대가 천지개벽의 도수(度數)에 따라 선천의 건운(乾運) 5만 년이 다하고 곤운(坤運)의 후천 5만 년이 열리는 우주의 가을 미회(未會)에 들어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에 “하원갑(下元甲) 지나거든 상원갑(上元甲)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sup>29)</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수운은 그가 각득(覺得)한 ‘만고 없는 무극대도’가 ‘예전에도 지금에도 듣지도 못했고 비할 바도 없는 새로운 도(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sup>30)</sup>라고 하고 있다. 수운이 말하는 새로운 성운(盛運)의 시대, 후천 5만 년의 무극지운(無極之運)은 「시천주」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사지’에 기초한 무극대도의 세계, 그것은 천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각지불이’의 경계에서 열리는 새 세상이다. 후천개벽의 새 세상은 만인이 도성입덕(道成立德)하여 ‘요순성세(堯舜聖世)’의 도덕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도수에 조응하여 인위의 정신개벽과 사회개벽이 이루어지면 천지가 합덕하는 후천의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인류가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온전한 앎의 결여 때문이다. 영성과 물질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단순히 물질적 껍질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물질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시천주」의 자각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28) 『海月神師法說』 「天地理氣」: “天地 陰陽 日月於千萬物 化生之理 莫非一理氣造化也.”

29)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30) 『東經大全』 「論學文」.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이 때문이다.

무극대도의 세계란 예고의식에서 벗어나 존재계와 하나가 됨으로써 닿을 수 있는 순수의식의 영역이다. 수운이 제시한 ‘접(接)’이라는 소규모의 자율적인 영성 공동체나, 「몽중노소문답가」에 나오는 태평곡 ‘격양가(擊壤歌)’가 의미하는 무위자연의 이상향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이르는 통로가 이성과 신성의 통합에 기초한 ‘디비너티스(divinities 영성정치)’이다. 도덕과 정치의 묘합에 기초한 디비너티스는 무극대도의 세계를 구현하는 통로로서 동학에서는 ‘접포(接包)’의 형태로 나타난다.<sup>31)</sup> ‘접’이라는 인맥 단위의 영성 공동체로서의 성격과 ‘포’라는 지역 단위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체로서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접포제는 권력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직접정치의 원형(prototype)을 보여준다. 자율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접포제는 보국의 주체로서의 근대적 민중의 대두를 촉발시킴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 새로운 문명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동학의 최상의 정치형태는 ‘무위자화(無爲自化)’의 그것이며, 이상적 위정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위자화의 덕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천주」의 자각적 주체로서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 관통을 깨달아 무위자화의 덕과 그 기운과 하나가 되면(造化定) 만사를 알게 되므로 무극대도의 세계는 저절로 열리게 된다. 동학의 ‘인내천’이나 ‘오심즉여심’은 신성과 이성의 통합 시대를 여는 키워드다.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평등무이한 동학의 불연기연적 세계관은 전일적인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근저에 있는 가치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동학의 무극대도의 세계는 서구적 근대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후천문명이 개창될 것이다.

---

31) 동학 창도 30여 년 만인 1890년대에 접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또한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접에 기초한 包가 형성되어 동학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接包制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1910년대 갑진개화운동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사상적·조직적 기초가 되었다.

#### 4.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 1) 생명과 평화 그리고 통일

‘정의 없이는 땅 위에 평화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 구현은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다. 이 세상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인류가 분리의식에 빠져 역천(逆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 즉 ‘올바름’이란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것이다. 전체와 분리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참자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정의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 현상과 실재, 이성과 영성을 통섭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현재 통용되는 인류 사회의 모든 지식과 제도는 물질일변도의 관점에서 나온 것들인 까닭에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 관통을 반영하지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토양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은 정의에 관한 지식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온전한 삶의 결여 때문이다.

지구는 의식 성장을 위한 생명의 정원이고, 인류는 그 정원사이며, 모든 제도와 조직은 의식 성장을 위한 조건 창출에 관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객관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 과학과 이에 편승한 물질만능주의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의식 차원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드디어는 생명의 본체까지도 부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녕 존재론적 자살(ontological suicide)이 아니고 무엇이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랴! 이러한 존재론적 자살이 만연하게 되면 생명문화가 정착될 수도, 생태적 가치가 활성화될 수도 없으므로 평화란 단지 권력정치가 표방하는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 된다. 물질적 성장제일주의가 아닌 인간의 의식 성장을 전제로 자율성과 평등성을 그 본질로 하는 순환경제(circulatory economy) 사회의 구축이야말로 생명과 평화의 보전을 위한 핵심과제다.<sup>32)</sup>

생명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 가치가 상호 결합되어 있으므로 인류의 생명권에 대한 자각이 없는 평화란 한갓 공허한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우주가 분리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동의 대양이며 우주만물은 그 파동의 세계가 벌이는 우주적 무도(舞蹈)에 동등한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생명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없다. 궁극적 실재인 참자아와 참자아의 자기현현인 우주만물이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와도 같이 불이(不二)의 관계임을 인식할 때, 다시 말해 일체 우주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해 있음을 인식할 때 생명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의 빛 속에서 현현하게 된다.<sup>33)</sup> 한마디로 하나인 참자아가 곧 생명이요 진리다.<sup>34)</sup> 진리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없이는 자각적 삶을 살 수도, 또한 진정한 문명의 개창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육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sup>35)</sup>라고 한 「로마서」(8:6)의 말씀은 영적 진화가 곧 생명과

32) 최민자,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생명정치의 구현을 위한 眞知로의 접근』(서울: 모시는사람들, 2008), 530쪽.

33) 교황 요한(John)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는 진리(truth), 정의(justice), 사랑(charity), 자유(liberty)가 평화의 주춧돌(the pillars of peace)인 것으로 나온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진리는 곧 생명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34) 「요한복음」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John” in *Bible*, 14:6 :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는 구절이 나온다.

35) “Romans” in *Bible*, 8:6: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평화로 가는 길임을 말하여 준다. 영적으로 진화하여 마음이 공적(空寂)해지면 인식할 주체가 없으므로 인식할 대상도 없게 되어 진정한 봄(seeing)이 일어나므로 인식과 존재의 괴리가 사라진다. 존재의 차원 변형은 마음의 차원 변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음은 물성과 영성을 가교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음의 차원 변형이란 '심(心)'에 입각하여 '무심(無心)'을 이루는 것, 말하자면 에고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진화이며 진정한 자기로부터의 자유, 즉 해방된 마음이다. 이러한 최고 상위 개념의 자유를 깨달을 때 전체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인간이 추구하는 제 가치는 저절로 충족된다. 실로 '마음은 모든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이윤극대화의 논리와 결합하여 인간의 생명을 불모로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전자공학을 통하여 개발된 생화학무기, 지구 자체를 무기로 이용하는 '지구공학(geoengineering) 무기', 의료체계나 우생학과정, 유전자조작과 관련된 식품 등에서 보듯 인간의 생명이 지구시장의 불모로 잡혀있는 한, 평화란 실로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영적 진화와 관계된 물질계의 존재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생명을 불모로 잡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평화란 실제 영토와는 무관한 그림 속의 지도와도 같은 것이 된다. 의식은 확장될수록 걸림이 없어져 자유롭게 되지만, 물질은 확장될수록 걸림이 커져 구속되기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평화로운 공존이 없이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적 평등성과 유기적 통일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학사상이 통일과 평등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은—「시」의 세 가지 의미나 불연기연의 논리에서 드러나듯—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대한 인식에 있다. 본체계와 현상계를 회통하는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소통·자치·자율에 기초한 무극대도의 세계 또한 구현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될 수 없다. 동학의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세계관은 ‘오심즉여심’의 심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보편자인 하늘은 만유에 편재해 있는 까닭에 만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하단말가”<sup>36)</sup>라고 한 데서나, 「오심불경(吾心不敬)이 즉천지불경(卽天地不敬)이라」<sup>37)</sup>고 한 데서도 하늘과 인간의 일원성은 명징하게 드러난다.

생명의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알게 되면, 만유가 근원적으로 평등하고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말하자면 일즉다(一卽多)요 다즉일(多卽一)이다. 세상 사람들이 천심을 회복하여 동귀일체(同歸一體)함으로써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지면 만유가 하늘을 모시고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되므로 진정한 소통성·자율성·평등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만인이 하늘을 모시는 영적 주체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 진화를 통해서이다. 해월이 말하는 ‘양천(養天)이 바로 그것이다. 신·인간 이원론은 본체인 동시에 작용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전일적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초월성인 동시에 내재성이며, 전체성[一]인 동시에 개체성[多]이며, 우주의 본원인 동시에 현상 그 자체인 생명의 비(非)이원론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일체의 생명현상이 자기 근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으로 무리하게 설명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처럼 동학의 생명사상은 비분리성·비이원성에 기초해 있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속성을 띤다. 동학의 「시천주」도덕이 생명의 영성(spirituality) 자각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도 생명의 전일성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다시 말해 본체와 작용, 영성과 물성의 소통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평화든 통일이든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로 동학은 「시천주」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 근대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와 이원론적 사고 및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일적인 생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6) 『龍潭遺詞』 「教訓歌」.

37) 『海月神師法說』 「三敬」.

을 촉구함으로써 생명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기초한 무극대도의 이상향—말하자면 지구생명공동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2)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전 지구적 차원의 내전이나 다름없는 테러와의 전쟁, 세계화가 초래한 광신도들에 의한 종교적 대립과 물질만능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적, 생태적 재앙으로 인류가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같이 특정 국가나 집단이 주도하는 세계평화가 실제적이고도 영속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국가이기주의에 기초한 세계평화는 인류의 생명권에 대한 자각 없이 국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계로 필연적으로 대립상과 갈등상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권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전 인류의 유기적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시민사회의 '보편평화(pax universalis)'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20세기 '행동하는 지성'으로 알려진 영국의 정치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그의 저서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Why Men Fight?』(1916)에서 전쟁은 그 자체가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실현하는 '항구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전쟁을 야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계산된 사리 추구의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충동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구조 및 도덕적 원칙의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sup>38)</sup> 또한 국가는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폭력을 법률로 금

38)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서울: 비아북, 2010), 84쪽. 러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지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권력을 주요 목표로 삼는 까닭에 대외적인 무력 사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의 역할은 연방 정부 혹은 중재재판소의 역할에 국한시키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에 정치적 창의성을 점차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영구평화로 가는 방안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유일한 방안은 세계 연방이다. 수많은 주권국가가 각각 군대를 보유하는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계에 군대가 단 하나 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군사적 기능에 관한 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해야 한다.<sup>40)</sup>

‘국가의 군사적 기능에 관한 한, 지구촌에 단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한 러셀의 주장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그의 저서 『영구평화론 *Zum ewigen Frieden*』에서 ‘상비군(직업군대)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한 주장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이 제창하는 ‘세계 연방(Confederation mondiale)’론과도 접합되는 부분이 있다. 모랭의 세계 연방론은 국가를 존속시키면서 국가가 연방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단계로서, 이를테면 아랍·이슬람권 전체가 연방에서 하나

---

셀은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은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에 건설적인 의문과 지적 탐구심, 진취적인 세계관, 대담한 사고를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위의 책, 146쪽). 경제구조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융합시킨 협동조합제도, 생산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융합시킨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을 통해 산업주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위의 책, 116쪽). 도덕적 원칙과 관련해서는, 도덕론자들이 의지를 통해서 충동을 완전히 억제하라고 훈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동은 배제된 채 목적과 욕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인생은 지루하다고 본다(위의 책, 22쪽).

39) 위의 책, 54쪽.

40) 위의 책, 84쪽.

의 거대한 지방이 되고, 세계 연방은 빈국에 대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실시하고, 의약품과 치료 지원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러셀이나 모랭이 주장하는 세계 연방은 전 인류의 통일적 연대에 의해 보편적 평화가 보장되는 유기체적인 세계시민사회, 즉 지구생명공동체와 근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구상하는 세계 연방은 인류의 자각과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러셀에 의하면 맹목적인 충동은 전쟁의 원천이 되어 파멸과 죽음을 낳기도 하지만, 과학, 예술, 사랑의 원천이 되어 세계 최고의 것을 낳기도 한다는 점에서 충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충동이 죽음과 퇴보를 향하지 않고 생명과 성장을 향하도록——말하자면 의식의 성장을 도모하도록——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또한 지성과 본능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실존을 풍요롭게 하려면 영적인 생활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하며, 행복과 평화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에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러셀의 관점은 영성이 배제된 객관적 이성 중심주의 내지는 개성과 다양성이 배려되지 않은 전체성의 관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동학과 접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시천주」도덕을 기반으로 영성 공동체로서의 성격과 정치적·사회적 운동체로서의 성격이 복합된 동학의 접포제와는 달리, 러셀의 세계 연방은 과학기술만능주의가 초래한 의식과 제도의 단절——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랄 수 있는——을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精緻)한 사상적 기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는 권력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생명권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공진화(co-evolution)가 삶의 목표가 되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장(場)이 발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권력정

---

41) 위의 책, 22쪽.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이러한 발상이 과연 가능하기라도 한 것인가?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 공감하는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협력과 평등의 문명을 예고한 미국의 사회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공감의 문명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2009)에서 다윈식 적자생존은 21세기에는 부적합하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그 대신에 ‘공감(empathy)’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인간이 지향하는 가장 고차원적 욕구는 적대적 경쟁보다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

리프킨은 선진 산업국가의 새로운 세대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로 영성 훈련의 증가와 종교 성향의 감소, 코스모폴리타니즘, 타자에 대한 관용과 공감적 유대의 확대를 꼽는다.<sup>42)</sup> 새로운 대규모 협업 모델을 가리키는 ‘위키노믹스(Wikinomics)’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협업 벤처를 가리키는 ‘위키 워크플레이스(wiki workplace)’ 같은 새로운 수평적 협업 학습 환경 또한 기존의 위계적 조직에서 나오는 협업 학습 환경에 비해 그 실적이 탁월하여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추세라는 것이다.<sup>43)</sup> 그가 ‘공감의 시대’라고 부르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리프킨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발전소 건물’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저장법을 3차 산업혁명의 세 기둥으로 보는데, 특히 모든 형태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보편적 매체인 수소에 주목한다.<sup>44)</sup>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려면 각국의 경제 인프라의 형태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하며,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3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네트워크화된 분산

42)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577쪽. 리프킨은 그의 저서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 (2001)에서 소유 지향적이 아니라 체험 지향적인 초자본주의(hypercapitalism)의 새로운 문화상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단순한 물질적 소유보다는 다양한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는 완전한 문화적 자본주의로의 대변신을 ‘접속(access)’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한 것이다.

43) 위의 책, 656-657쪽.

44) 위의 책, 646-647쪽.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활동——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한다.

3차 산업혁명은 민족과 국가를 전례 없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로 끌어들이며 전력(電力)이 널리 분산되는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 지난 10년에 걸친 분산된 통신 혁명으로 네트워크 사고방식, 오픈소스 공유, 통신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민주화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다.<sup>45)</sup>

이러한 에너지 공유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위계적 조직과 경영 방식의 붕괴와 더불어 대규모 협업에 기초한 분산 네트워크를 채택하는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sup>46)</sup> 이제 '지정학적' 세계에서 탈피하여 '생물권 정치학'으로 이동함으로써 '공감의 문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리프킨은 인류 사회의 발전방향을 진단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21세기형 인간상으로 '공감하는 인간'을 제시한 것이다. '호모 엠파티쿠스'의 출현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서가 되는 것이다. 동학에서 무극대도의 구현을 위해 「시천주」 도덕의 자각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생장·분열의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수렴·통일의 후천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상합함을 리프킨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 셈이다.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은 이 우주가 오직 '마음'뿐임을 강조하며 의식[본체계, 정신계]과 제도[현상계, 물질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유가 다 하늘을 모시는 영적 주체이고 만유의 근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 자각에서 생명의

45) 위의 책, 652쪽.

46) 위의 책, 654쪽.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자율성이 도출되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공선이 조화를 이루어 무극대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sup>47)</sup> 유일신 논쟁, 유물론·유심론 논쟁, 창조론·진화론 논쟁, 신·인간 이원론 등은 생명의 본체[一]와 작용[多]의 상호 관통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진화에 필요한 조건의 창출에 관계하며 그 필요가 다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물질계의 존재이유가 의식의 진화를 위한 학습여건 창출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평화나 통일이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평화나 통일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 정착의 과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5.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을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인류의 비극은 사실로서의 앎이 아닌, 해석으로서의 앎, 그것도 극히 주관적 해석으로서의 앎에 의존해 온 데에 기인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부재 때문이다. 생명 과정의 전일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인해 분리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와 그 작용인 우주만물이 이원론적으로 인식되면서 생명·정의·자유·평화·복지·통일 등의 제 가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

47) 이러한 무극대도의 세계는 일체의 부정성이 극복되어 영적 일체감과 영적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상향이다. cf.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III(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p.403-406.

된 것이다. 인식의 뿌리랄 수 있는 참자아에 대한 자각 없이는 생명의 전 일성과 자기근원성을 자각할 수가 없으므로 인식과 존재의 괴리는 메워지기 어렵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성 계발을 통하여 인식의 주체인 마음이 예고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삶의 의미 내지는 존재이유에 대한 명료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과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삶과 삶의 관계적 본질을 통섭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현상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이원론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 관통을 깨달아 만유의 존재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이해의 본질은 마음의 해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존재의 차원 변형은 마음의 차원 변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음은 영성과 물성을 가교하는 메커니즘이다. 영성과 물성이 하나임을 인식하는 주체는 마음인 까닭에 이 양 차원을 가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마음은 이미 해방된 것이다.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영적 진화이며 해방된 마음이다. 해방된 마음이란 걸림이 없는 의식이고 이는 곧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며 인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이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동학에 나타난 존재의 인식론적 기초는 불연기연의 논리나 내유신령과 외유기화의 관계가 말하여 주듯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있다. 이러한 합일에 대한 이해는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이해, 즉 궁극적 실재인 참자아가 만유의 본질로서 내재해 있는 동시에 만물화생의 근본원리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동학 심법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오심즉여심'은 주관과 객관의 경계 저 너머에 있는 동학의 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천지만물이 본래 한마음임을 말하여 준다. 일체의 분별은 자신의 마음의 분별이며 일심 이외에 다른 실재가 없으므로 본체와 작용, 내재와 초월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일에 대한 인식은 참자아의 자각적 주체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성경' 두 자에 기초한 수심정기를 통해 이루어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진다. 수심정기를 통해 인식의 주체인 마음이 분리의식에서 벗어나야 합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동학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관계는 ‘만사지’와 무극대도의 세계로 압축될 수 있다. 천도와 천덕의 진수가 ‘만사지’로 끝난 것은 만사를 알면 참인식이 일어나고 참삶이 전개되는 것이니 무극대도의 세계는 저절로 열리기 때문이다. 주관과 객관의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본체인 참자아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우주만물의 생성·변화·소멸 자체가 모두 참자아인 하늘의 조화 작용임을 아는 것이 곧 만사를 아는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으며 모두가 하늘기운일 뿐이다. ‘만사지’에 기초한 무극대도의 세계는 ‘각지불이’의 경계에서 열리는 천지가 함덕하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으로 ‘요순성세(堯舜聖世)’의 도덕공동체와도 같은 것이다. ‘만사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천주」의 자각적 주체로서 무위이화의 덕과 그 기운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성과 신성, 도덕과 정치의 묘합에 기초한 디비너틱스는 무극대도의 세계를 구현하는 통로로서 동학에서는 ‘접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류의 생명권에 대한 자각이 없는 평화나 통일은 공허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다. ‘참여하는 우주(participatory universe)’의 네트워크적 속성<sup>48)</sup>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적 진화와 관계된 물질계의 존재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생명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없고 진정한 문명의 개창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나듯 동학은 통일과 평등의 원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생명의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알게 되면, 만유가 근원적으로 평등하고 유기적으로 통

---

48) 이 시대의 초개인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 분야의 대가이자 대표적 포스트모던 사상가인 켄 윌버(Ken Wilber)의 홀라키적 우주론(Holarthic Kosmology)에 의하면 이 우주 속의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홀라키적인 다차원적 생명의 그물망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의 홀라키적 전일주의(holarthic holism)가 함축하고 있는 통합 패러다임은 의식과 물질, 내면과 외면, 자아와 세계, 주관과 객관이 모두 ‘한맛(One Taste)’이라고 봄으로써 ‘다양성 속의 통일(unity-in-diversity)’을 명료하게 드러낸다(Ken Wilber, *Integral Psychology: Consciousness, Spirit, Psychology, Therapy*(Boston, Massachusetts: Shambhala Publications Inc., 2000), p.181).

일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지고 만유가 다 하늘을 모시는 영적 주체라는 자각이 이루어져 진정한 소통성·자율성·평등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동학의 생명사상이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속성을 띠는 것은 비분리성·비이원성에 기초해 있는 까닭이다. 「시천주」도덕이 생명의 영성 자각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도 생명의 전일성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기초한 무극대도의 이상향이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이기주의에 기초한 세계평화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은 인류의 생명권에 대한 자각 없이 국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인류의 유기적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시민사회의 '보편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러셀이 구상하는 세계 연방은 영성이 배제된 객관적 이성 중심주의 내지는 개성과 다양성이 배려되지 않은 전체성의 관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동학의 이상향과 접합되는 부분이 있다.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는 권력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생명권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권력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 공진화가 삶의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영적 진화 내지는 공감의 확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서로서 리프킨은 적대적 경쟁이 아닌, 유대감에 기초한 '호모 엠파티쿠스'의 출현을 들고 있다.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은 근원성·포괄성·보편성을 띠는 생명의 영성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며, 의식과 제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동학의 생명사상은 특수성과 보편성, 지역화와 세계화, 국민국가와 세계시민사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까닭에 일체의 이원성을 넘어선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념적 친화성을 갖는다. 이제 근대 서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패러다임 전환이 촉구되면서 서구적 보편주의가 위협받는 제2의 르네상스·제2의 종교개혁기 새벽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생존의 영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적 유대를 강화하여 한반도 통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일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연대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大乘起信論疏』  
『大乘起信論別記』  
『東經大全』  
『三一神誥』  
『聖經 Bible』  
『龍潭遺詞』  
『義菴聖師法說』  
『參侗戒經』  
『天符經』  
『海月神師法說』  
*The Bhagavad Gita*  
*The Upanishads*
- 게르하르트 지음, 김종기 옮김,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울: 백산서당, 2007.
-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서울: 비아북, 2010.
-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 최민자, 『통섭의 기술』,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0.
- \_\_\_\_\_,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생명정치 구현을 위한 眞知로의 집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근』,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8.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강주현 옮김, 『히든 커넥션』, 서울: 휘슬러, 2002.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재희 옮김,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서울: 범양사, 1997.

C. G. 융 지음, 한국융연구원 C. 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 2)(서울: 솔, 2002)

Bohm, David,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0,

Braden, Gregg, *The Divine Matrix*, New York: Hay House, Inc., 2007.

Capra, Fritjof, *The Web of Life*, New York: Anchor Books, 1996.

\_\_\_\_\_, *The Turning Point*, New York : Simon & Schuster, 1982.

Copleston, S. J., Frederick, *A History of Philosophy*, 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62.

Hegel, G. W. F., *The Phenomenology of Mind*, trans. by J. B. Bailli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1.

Jung, Carl Gustav, *Synchronicity: An Acausal Connecting Principle*, Collected Works VII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Maitri Upanishad* in *The Upanishads*, translated from the Sanskrit with an introduction by Juan Mascaro, London: Penguin Books Ltd., 1962.

*Prasna Upanishad* in *The Upanishads*, translated from the Sanskrit with an introduction by Juan Mascaro, London: Penguin Books Ltd., 1962.

Prigogine, Ilya, *From Being to Becoming*, San Francisco: Freeman, 1980.

Rifkin, Jeremy,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 New York: Penguin Group, 2001.

*The Bhagavad Gita*, translated from the Sanskrit with an introduction by Juan Mascaro, London: Penguin Books Ltd., 1962.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I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Wilber, Ken, *Integral Psychology: Consciousness, Spirit, Psychology, Therapy*, Boston, Massachusetts: Shambhala Publications Inc., 2000.

◇ 제2주제

试论东学的和平伦理及其现代价值

동학의 평화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에 관한 시론

김철수 (延邊大 教授 兼 東邦哲學研究所 所長)

1. 引言

太平盛世乃人類之共同心愿！人類社會邁入21世紀以後，首要的話題就是“和平”！

2000年8月28日至31日，聯合國召開了來自世界各地的1000多名宗教領袖共同參與的“宗教和靈性領袖千年世界和平高峰會議”，會議發表的《為全球的和平而奮鬥》的宣言，表示各宗教團體應當在互相尊重和理解的气氛下，為和平、公正、消除極度貧困、環境保護以及社會團結而共同奮鬥。緊接着，9月8日聯合國又召開了有史以來最大的一次各國政府首腦聚會，150多個國家的首腦通過“千年宣言”，肯定了自由、平等、團結、寬容、尊重大自然以及共同責任是當今國際關係的基本價值觀，決心在世界範圍內建立公正、持久的和平環

境。2000年-2010年被聯合國確定為國際和平文化年。

消除戰爭，化解沖突，維護和平是人類共同的呼聲。不幸的是，迄今為止的人類歷史，充斥着困擾、折磨人類的各種暴力與戰爭。我們所處的世界不和平的因素仍然是很多。盡管國際範圍內冷戰結束，但局部沖突加劇，各民族文化之間內在價值的沖突不但沒有緩和，反而以各種不同形式、在不同的國家和地區漸顯劇烈。如果處理不當，就會走向和平的反面——暴力和戰爭，給人類社會帶來巨大的災難。在漫長的歷史過程中，人們在暴力、戰爭與和平的沖突中困惑着，同時也在努力地尋覓、思考各種解決方法。為了消弭暴力、戰爭，尋求人類實現永久和平的條件和方法，人們進行了廣泛的理論探索，同時也積累了大量的實踐經驗，反映了人類智慧的力量和光芒。世界各民族文化和歷史中有關和平的思想資源與文化傳統，因此成為了當今世界消解戰爭、實現和平的重要參照系，成為構建21世紀世界和平理論體系和實踐活動的價值源頭。在這個意義上，和平不僅僅是政治範疇，也是一種文化的境界和價值理念，更是人類社會文明的理想階段。筆者以為，在追尋和平的道路和方法上，汲取東學（所謂東學，即東方的朝鮮之學，又稱“東道”、“天道”，與西方的天主教思想相對而言。）水云先生云：“吾亦生于東，受于東，進雖天道，學則東學。況地分東西，西何謂東，東何謂西？孔子生于魯，風于鄒，鄒魯之風，傳遺于斯世。吾道受于斯，布于斯，豈可謂以西名之者乎？”（《論學文》）和平倫理智慧顯得尤為重要。東學對於和平有着獨特而普遍的精神境界和價值理念。隨着人們對於它的理解與認識，東學和平倫理為人類解決暴力沖突，構建和平的世界提供富有啟迪的智慧。東學和平倫理觀內容相當豐富，包括人乃天、尊重生命、社會平等、追求人、社會、自然的相處等。可以說，東學和平倫理觀的特色在於她是以“人乃天”為根本出發點和依據的和平倫理觀。

### 2. 東學和平倫理思想產生的社會基礎

從19世紀到20世紀，對於韓國來說是一個非常重要的社會轉型時期。在這個時期，韓國社會在政治、經濟、文化等社會生活的各个方面都經歷了劇烈的變化。消除侵略戰爭，求得解放、發展、和平是這一時期最為緊要的話題。某種意義上講，這個過程還遠沒有結束，仍然是在進行的過程當中。本文僅就水云先生創立東學時期的社會歷史背景作一番簡要的梳理。

東學的創始人是水云崔濟愚。他于1860年4月5日創立了東學。于1864年3月10日被朝廷以“左道亂正”的罪名處以極刑，時年41歲。水云先生創立東學，倡導和平倫理與當時朝鮮朝極為不和平的社會狀況有着密切的聯繫。

從朝鮮朝國內看，政治的混亂以及官吏的腐敗可以說是達到了極點，使平民百姓無法忍受。當時朝鮮王朝在經濟上尚處於自給自足的自然經濟階段，而在政治上則更加腐敗，土地兼并和政權內部的黨派鬥爭嚴重削弱了中央的集權。統治階級為滿足窮奢極欲的放蕩生活，對勞動人民的剝削越來越嚴重，這嚴重激化了階級矛盾。飢寒交迫的農民憤然起來開展武裝鬥爭，朝鮮王朝的統治搖搖欲墜。內亂和衝突造成極為不和平的社會狀態。

在對外關係上，朝鮮朝又面臨着西方世界的通商要求，受到西方侵略勢力的挑戰。19世紀後半期，資本主義列強爭奪殖民地和瓜分世界的鬥爭日益加劇，

歐美各國爭先恐后地向亞洲伸出魔掌。“不穩定的亞洲帝國在一個個地變成野心勃勃的歐洲人的獵獲物。”（俄國大藏省編《朝鮮志》）到了19世紀60年代，亞洲絕大部分國家和地區就已經淪為西方資本主義國家的殖民地或半殖民地。當時的朝鮮王朝，由于堅決執行“斥邪攘夷”的對外閉關鎖國政策，西方侵略者尚未能夠踏上朝鮮的土地，地處東北亞的朝鮮是尚未遭受侵略的唯一的國家。朝鮮由于它的戰略地位和豐富資源，資本主義國家早已垂涎三尺，于是成了西方諸列強所要侵略的對象。19世紀60年代以後，歐美的“異樣船”頻繁地出現在朝鮮海域，有的進行軍事挑釁，有的強行要求通商，有的則要求測量航道。如何抵禦西方列強的挑戰，是當時的朝鮮王朝所面臨的生死攸關的一大課題。

心靈的和平是社會和平的最堅穩的基石。韓國近代思想的最大特征就是作為統治理念的朱子學的全面瓦解和西學東漸。在朝鮮朝，儒教完全支配着社會的政治、精神文化生活，成為了維護兩班階級政權的思想工具。不過，到了19世紀，作為意識形態和價值理念的朱子學喪失了統治理念的功能。當時的佛教不僅受朝廷排斥，而且，出了極個別의 修行者之外大多數墮落成性，早已遠離了受苦受難的民衆。剛剛傳入的天主教、基督教又被正統勢力視為“異端邪說”、“賣國宗教”，不准下層民衆接近。這種情況下，社會上各種謠言、讖說四起。正如《鄭鑿錄》中記載，到某一個時間，李氏朝鮮行將滅亡，鄭氏將繼承國統，在鷄籠山建都等等。對於此種情景，水云先生嘆道：“又此晚近以來，一世之人，各自為心，不順天理，不顧天命，心常悚然，莫知所向矣。”（《布德文》）“各自為心……心常悚然，莫知所向”，恰如其分地道出了當時思想的混亂狀況。

總之，這個時期無論是從制度上還是在思想和信仰上都是一個極為混亂的時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代，也是一个极为不和平的時代。正如水云大師所說：“我國惡疾滿世，民无四時之安，是以傷害之數也。西洋戰勝攻取无事不成，而天下盡滅，亦不无昏亡之嘆？輔國安民，計將安出！”（《布德文》）又說：這是一個“天下紛亂，民心淆薄，莫知所向”的時代。（《論學文》）日益加深的內憂外患，指導理念的空虛，對旧社會的不滿和新社會的渴望是東學的和平思想產生和發展起來的社會基礎。其目的就是對內救活在虐政下受苦受難的民衆，對外擊退帝國主義列强的掠奪，最終體現布德天下，求得心灵、國家、社會的和平。

### 3. “人乃天”思想是東學和平倫理的根本基礎

筆者以為和平是東學的基本要義之一，東學所倡導的基本思想中貫穿的一個精神便是和平的倫理觀。

源于西方的犹太教、基督教、伊斯蘭教等宗教都強調一神信仰，因此，具有神本主義的特征。但源于東方的宗教則有所不同。如佛教、道教等与其說是信仰一個神，更強調佛祖、菩薩、君子、道人等高尚德行的典范作用，既具有人本主義的特征。東學所倡導的“人乃天”思想以人·神合一為基本特色。

東學的宗旨是“人乃天”，即人就是天主之意。東學強調對待人如同供奉天主一般，這就是所謂的“侍天主”、“人乃天”思想。水云先生說：“吾心即汝心也，人何知之。知天地而無知鬼神。鬼神者，吾也”。（《論學文》）這種思

想強調，只有把讓人類和上帝当成了同一种存在，才能真正實現人類的平等。東學認為人類的上帝存在于人心，所以人類和上帝等同，這裡強調的就是“神人合一”、“神人同格”。

東學強調的“人乃天”思想，包括對自由和平等的渴望。這個思想強調自由和平等是最寶貴的价值，只有人類社會實現了自由平等，才有可能最大限度地發揮人類潛能，創造出和平的世界。因此，東學要求取消貧富、貴賤、嫡庶、男女等差別，因為社會的等級制度會嚴重抑制人類自由和能力的發揮人類自由和能力的發揮，造就不公平的社會。東學尤其關注受到社會排斥和壓迫的農民、勞動者、都市貧民、女性，要求營造一个公正合理的社會，反對一切又損于人類尊嚴的社會制度。

總而言之，東學倡導的“人乃天”宗旨是高舉人之尊嚴的平等思想，為根本的平等主義开辟了新的道路，而這恰好是建立和平的人類社會的最為根本的基础。

東學在“人乃天”思想基础上，又力倡“敬天”、“敬人”和“敬物”的“三教”思想。東學雖然以“人乃天”作為宗旨，但這并不意味着鼓吹人類至上主義。在東學看來，宇宙万物都供奉着天主，因此人應當“象恭敬天一樣，恭敬人、恭敬万物”。這就是東學的“敬天、敬人、敬物”的“三敬”思想。這種思想蘊涵着非常深刻的意涵。崇尚和平意味着對生命的尊重。包括全人類在內的所有存在物在根源上是具有相同的生命之源的同胞，而且在這種覺悟之下，要實現平等、和平的世界。在我看來，這就是水云先生所倡導的東學和平倫理的深意所在。

內心的和平是世界和平最堅穩的基石。換句話說，國家的和平須以社會的和平為基础，社會的和平則以心靈的和平為前提。就人心的不安全感而言，我們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的世界比任何時候都更加脆弱。

東學最爲強調的部分就是正心修道，其要点是“守心正氣”和“誠、敬、信”。水云先生云：“仁義禮智，先聖之所教，修心正氣，惟我之更定。”（《修德文》）海月先生進一步說“若非守心正氣，則仁義禮智之道難以實踐也。”（《海月神師法說》“守心正氣”）“守其心正其氣，率其性受其教”（《論學文》）只有內心平和與安定，才有外在的和諧與安寧。內心不和（不平），外有不平（不和）的事緣，彼此相互影響，推波助瀾，就會形成衝突和紛爭。

### 4. 東學社會思想中的和平倫理

建立地上天國是東學的最高理想。在這個理想世界里，人人享有天主一樣的尊嚴，受到天主一樣的侍奉。東學認為，現實世界并非无可挽救，相反，作為歷史主体的人能够在地上建立天國。

爲此，首先必須“輔國安民”。“輔國”就是要維護國家主權，意味着國際侵略的消失和國際正義的實現。“安民”就是要百姓安居樂業，意味着物質富裕和正義社會的實現。東學注重個人內心的平和，同時強調人與人之間的平和，強調民族與民族、國家與國家的平和。東學的出發點不是自我，而是國家、民族、人類。概括地說，東學倡導的是自他一體的社會觀。

早期基督教教父聖奧古斯丁（354-430年）說：“所有一切的和平都是秩序的

安宁”（奥古斯丁：《上帝之城》，中國政法大學出版社，2003年版）和平的基础是合乎理性与道德的社會秩序。正義和道德的社會秩序，才是和平与安宁的穩固基础。在社會中确立正義和道德，需要在人的內心中培養理解和愛心。這正是真正宗教的真正使命。國家、民族、人与人之間构建一种新興的文化秩序，以斥除國際冲突、社會非正義現象以及抑壓人權、种族、性別歧視等暴力行爲，构成一种彼此信賴、寬恕和互相理解、尊重的行爲模式。

東學地上天國的理想与后天開辟的社會歷史觀有着不可分割的聯系。

所謂“后天”是相對於“先天”而言的。東學認爲，先天時代的宗教追隨者的信仰對象是居于天界的“天主”，并以死后升入極樂世界爲終級目標。但后天時代的宗教則是在人界供奉天主，旨在建設地上極樂世界。先天時代的倫理、道德是嚴格區別尊卑貴賤的階級主義倫理，而后天時代的倫理則是肯定所有人類平等无差的絕對平等主義倫理。也就是說，東學与西學一樣，承認上帝是唯一的神，但這個上帝不是与人類分离的高高早上的存在，而是上帝与人類同在于這個現實世界上。人類的每一个个体生命皆于“上帝”同存，因此，誠心誠意供奉這個“上帝”就有构筑地上天國的可能，人在現世就有可能生活在于上帝共建的地上天國。一句話，后天開辟的世界乃是万人平等、万人共樂的世界。

東學以人的平等和尊嚴爲基本內容的“事人如天”思想基础上，把和解、和睦、協作和團結爲目的的“誠、敬、信”的道德看作是最爲重要的道德范疇。這既是達到人神一体境界的修行方法，也是處理人神關係、人与人關係、人物關係的重要准則。海月神師說：“吾道只在誠敬信三字，若非大德，實難踐行。果能誠敬信，入圣如反掌。”（《誠敬信》）

關於“誠”，海月神師說：“純一之謂誠，无息之謂誠。使此純一无息之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与天地同度同運。則方可謂之大聖、大人也。”（《誠敬信》）關於“敬”，海月神師說：“人人敬心，則氣血泰和；人人敬人，則萬民來會；人敬物，則萬相來儀。偉哉，敬之敬之也夫！宇宙間充滿者，都是渾元之一氣也，一步足不敢輕舉也。”（《誠敬信》）關於“信”，海月神師說：“仁義禮智，非信則不行；金木水火，非土則不成。……億千萬事，都是在信一字而已。人之無信，如車之無轍也。信一字，雖父母兄弟難以變通也。經曰：‘大丈夫義氣凡節，無信何生！’是也。信心即信天，信天即信心。人無信心，一等身、一飯囊而已。”（《誠敬信》）應當說，東學極力宣揚的“誠、敬、信”的倫理道德觀是構建和平世界必不可少的東西。現代社會要真正實現和平，就必須進行國與國、宗教與宗教、文化與文化的對話和交流，學會寬容、共處，以至於共同進步的社會實踐。對話是構建和平的必由途徑。沒有相互了解，人與人、國與國之間則很難達到和平與友好；各國之間也不可能和平相處或安全共存。通過交流增進了解，加深理解，消除誤解，取得諒解，增進共識。科學地互相認識是人們建立和平共處的起點。人類要寬容而不要歧視，正視不同文明和宗教信仰的差異，要胸懷寬廣，兼收並蓄，異中求同，同中求異，同則相親，異則相敬。如此看來，“誠、敬、信”的東學道德觀，對建立和平的世界秩序方面有着非常重要的理論和實踐價值。

## 5. 結論

在当今世界的和平問題上，文化与道德因素的作用已日益突出，其對於國際政治、經濟的作用也越發給人以深切的感受。人類如欲告別暴力充斥、戰爭頻仍的過去，進入和平發展的21世紀，必須建設一种新的和平觀与發展觀，重新檢視以往所有人類的文明史，尤其是要尋找、研究不同民族、不同文化所給予的价值理想的共同之處。和平作為倫理範疇，表現為對生命、生存的肯定，對多元文化、不同的社會形態、意識形態、价值觀念的寬容与認同，對不同事物、不同人際、精神狀態、群際、國家与民族的存在狀態的包容与默許。只有在人類理想的共通之處，才能貫徹、滲入和平的理想和非暴力的觀念，使之成為21世紀人類的共同价值趨向，成為超越以往人類文明史的价值祈求。實際上，人類和平發展的可能性，奠基在人的道德修養以及由此而构成的文化精神層面上。正是在這一層面上，針對人類文明問題与当下面臨的全球性問題，東學和平倫理的人類學意義与全球性价值漸漸得以凸顯，不容得世人忽略。東學思想中所蘊含的和平倫理可為人類走向持久的和平提供可資借鑒的思想資源，特別是東學人乃天的和平觀難能可貴，它可為构建和平的世界提供一种价值指向，這也是在現代語境下審視東學和平思想的意義所在。因為東學的理性本質上具有和平主義的性質。這裏的和平主義，不僅僅是對冲突与戰爭的簡單否定，而更是為万物与衆生和平相處而作的努力。

從上面的分析可以得出結論：具有東學特色的和平倫理的构建不僅是可能的，而且具有重要的理論意義和現實价值。因此，不僅要在結構性和和平文化層面上，更應當在心性層面上將東學中精深的和平倫理作深刻的開掘。

◇ 제2주제 한글요약문

동학의 평화적 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에 관한 시론

김철수 (연변대 교수 겸 동방철학연구소 소장)

1. 서론

태평성세는 인류의 공동한 염원이다. 인류사회가 21세기에 접어들어 “평화”는 주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국제평화문화년으로 확정하였다.

국제적 범위 내에서 냉전은 결속되었다고 하지만 국부적인 충돌은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 민족문화간의 내재적인 가치충돌은 아직 완화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한 형식으로 부동한 국가와 지역사이에서 점점 심해가고 있다. 세계 여러 민족문화와 역사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평화에 관한 사상자원과 문화전통은 이로 인해 오늘날 전쟁을 소멸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참조기준으로 되었고 21세기 세계평화이론체계를 건립하고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가치적 근원으로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평화는 단지 정치적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문화적 경지와 가치이념이고 또한 인류사회문명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평화적인 길과 방법을 탐색함에 있어서 동학의 평화윤리에 관한 지혜를 섭취

하는 것이 자못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학은 평화에 대하여 자체의 독창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신적인 경지와 가치이념을 가지고 있다. 동학평화윤리관의 내용은 아주 풍부한데 “인내천”, 생명존중, 사회평등,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을 추구한다는 등이 내포되어 있다. 동학평화윤리관의 특수함은 그가 “인즉천”을 근본출발점과 의거로 한 평화윤리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동학평화윤리사상 산생의 사회적 기초

19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 한국을 놓고 말하면 매우 중요한 사회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제반분야에서 모두 격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세의 침략전쟁을 소멸하고 해방,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곧바로 이 시기의 절박한 과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이 과정은 아직 결속되지 않았고 의연히 진행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운선생이 창립한 동학시기의 사회역사배경에 대해 간단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정치의 문란, 관료의 부패, 사회적 기강의 붕괴,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저항과 봉기로 하여 조선왕조의 통치도 몰락해가기 시작하였으며 내란과 충돌은 극히 불안정한 사회 상태를 조성하였다.

조선은 그 전략적 지위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이미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림을 받은지 오래였으며 서방열강들의 침략대상으로 되었다. 19세기 60년대 이후 구미의 이양선(異樣船)조심스레 조선해협에 나타나기 시작했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고 심지어 군사적인 위협으로 통상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며 항도를 측량하려고 하였다. 서방열강들의 침략을 막는 것이 당시 조선왕조가 직면한 생사에 련관된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심리적 평화는 사회평화의 가장 견고한 시침돌이다. 한국근대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통치이념으로써의 주자학의 전면적인 붕괴와 서학동점이다.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든 사상과 신앙상에서는 모두 극히 혼란한 시대였으며 극히 불평화적인 시대였다.

### 3. 동학평화윤리의 근본기초: “인내천(人乃天)”사상

필자는 평화를 동학의 기본요소중의 하나이고 동학이 제창하고 있는 기본사상에는 하나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적 윤리관이라고 생각한다.

동학의 취지는“인내천”, 즉 사람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동학은 인류의 한울님은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한울님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神人合一”、“神人同格”였다. 동학이 제창하는“인내천”의 취지는 인류존엄을 강조하는 평등사상으로서 근본적인 평등주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이는 또한 평화적인 인류사회를 건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로 되고 있다. 동학은“인내천”사상의 기초상에서 또“경천”、“경인”과“경물”즉 “삼교”사상을 제창하였다. 평화를 숭상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근원에서 모두 같은 생명적 근원을 가진 동포이고 또한 이런 각성하에 평등,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수운선생이 동학평화윤리를 제창한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동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정심수도인데 그 요점은 “수심정기”와 “성, 경, 신”이다. 내심의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만 외재적은 화목과 안녕이 있다고 하였다. 내심의 불화, 외유의 불평가 사연이 되는 것이고 서로 영향주고 선동하면 충돌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4. 동학사회사상중의 평화윤리

지상천국을 건립하는 것이 동학의 최고 이상이다. 이 같은 이상사회에서 사람마다 천주와 같은 존엄을 가질 수 있고 천주와 같이 공경을 받을 수 있다. 동학은 현실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역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선 “보국안민”하여야 한다. 평화의 기초는 이성과 도덕에 부합되는 사회질서이다. 정의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질서야말로 평화와 안녕의 견고한 기초인 것이다. 사회에서 정의와 도덕을 수립하려면 반듯이 사람의 내심에서 이해와 애심을 배양하여야 한다.

동학의 지상천국의 이상과 후천개벽의 사회력사관은 서로 갈라놓을 수 없는 연계가 있다.

#### 5. 결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동학 사상중에 내포된 평화윤리는 인류가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로 되는 사상자원을 제공하였고 특히 동학 “人乃天”의 평화관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는 평화적인 세계 구축을 위해 가치적 지향을 제공하였고 이는 또한 현대어경하에서 동학평화사상의 의의를 살피는 것이다. 그것은 동학의 이성본질상 평화주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주의는 충돌과 전쟁에 대한 간단한 부정인 것이 아니라 만물과 중생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위해 하는 노력이다.

위의 논술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특색을 띤 평화윤리의 구축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구조성과 평화 분화층에서 더욱이 심성측면에서 동학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평화윤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탐색하여야 한다.

◇ 제3주제

## 甲午農民戦争と日本社会

### 갑오농민전쟁과 일본사회

임병택 (日本 삿포르 自由學校 教授)

甲午農民戦争が日本社会でどのように意識され位置づけられているか、また日本において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の深化がいかん東アジアの平和や韓半島の統一に結びつくのか、そうした問題の一端について在日韓国人として民族運動、市民運動を経験してきた立場から述べてみたいと思う。

#### ○私、そして在日韓国人にとっての甲午農民戦争

まず在日韓国人として日本で生育した私が、どのようにして甲午農民戦争に触れていったのか、そこで何を得たのか、について述べたい。

#### ◇在日二世としての私、民族的疎外の苦惱

1928年、慶尙北道清道郡の田舎の農家の長男だった私の父は、一家の生計のためそして若者にありがちな青雲の志を持って、植民地本國・日本に渡って来た。しかし植民地・朝鮮の出身者に可能な職業は限られており、私の父は土木労働に従事し、やがて北海道に渡って行った。その父の後を追って1939年、私の母は祖国で生まれた幼い姉を連れ北海道にやって来た。そして日本敗戦の翌1946年、私は北海道札幌市で在日二世として誕生した。

周知のように日本が朝鮮を植民地支配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民衆は日本の被支配民族として激しい差別にさらされていた。日本の敗戦後、朝鮮は解放されたが、日本が真にアジア侵略への総括と反省をできなかったために、アジア民衆への責任清算はおろそかにされ、適切な戦後処理は果たされなかった。そのために戦後になっても、日本における在日朝鮮人への差別は克服されずに続いていたのである。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私が物心つく頃には、自分が周囲と違う存在、つまり「日本人ではなく朝鮮人らしい」とは気づいていたが、日本の学校に通う時になって、それは私にとって大変な重荷になっていった。私が日本の小学校に入り、少しは物事を考えるようになってから、「朝鮮人として」の激しい劣等感にさいなま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朝鮮は遅れている、朝鮮人は劣っている」という幼く単純な思いから、まず芽生えていったのは朝鮮、また朝鮮人への嫌悪感であった。それはどうしてか。

敗戦後の日本の学校教育は、一般的な人権や国際親善を説くことはあっても、朝鮮に対する侮蔑をあらわにすることはなかったから、それが直接の原因というのではない。私の周辺や地域社会の人々が投げつける根強く露骨な差別性、それを刷り込まれた人々、また私の友人—子供達が見せる差別性、それらが幼い私に「歪んだ朝鮮観」を作っ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こうした地域状況は当時の日本社会の差別性の反映であり、縮図であった本来であれば、そのような社会への対抗力を人格形成期に与えるのが学校教育であろうが物質文明の発展度合いという価値観にとらわれ、日本のための国民を育成するとする教育であれば、それは望むべくもなかった。こうして私は、家庭で交わされる朝鮮語、朝鮮の風習、父の朝鮮の友人達、韓国の親戚の便りなど、朝鮮にまつわる全てのものを嫌悪す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そして私の朝鮮や朝鮮人への嫌悪感は、自分にも向かっていった。朝鮮人としての自分に対する劣等感である。学校で「朝」の字が現われ、それも「チョウ」と発音されようものなら、私は胸が高鳴り顔が上気し、卑屈に萎縮していく子供になっていったのである。私の一家が朝鮮人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近所はともかく、そうでない人々、特に友人達には、自分が朝鮮人であることを悟られまいとしてひた隠しに隠し続けた。

私が成長していくのにしたがって、朝鮮人としての劣等感は自己疎外、自己否定にも発展していった。「自分が朝鮮人であることが恥ずかしい、嫌だ、おぞましい」という自己嫌悪が私を支配した。さらに「なぜ自分が朝鮮人に生まれたのか、朝鮮人なのか、朝鮮人でなければならぬのか」、そんな答えのない根拠的な問いが私を縛り続けた。そして私は「自分が朝鮮人であるという事実を無かったことにできないか」などと夢見するようにもなった。私はすっかり自己疎外に陥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また同時に私は「自分が朝鮮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否定する自分自身を卑怯ではないか」と感じ、「醜態だ」とも思ったのである。朝鮮人であるのに朝鮮人であることを否定する自分、逆にそのような自分を否定する自分、私は一体何者なのか、自分自身の像が定まらない、自己分裂も起きていった。そして「自分は生きている意味があるのか、存在する価値があるのか」と、私は自己否定にもと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このような悶々とした苦悩は、私が民族運動に参加するまで続いていった。

こうした体験は私一人だけではなく、程度の差こそあれ在日二世以降の同胞に共通するものであった。後日、私が民族運動であった多くの青年たちとの交流からも、また在日同胞、青年達が善したものからも、それは確認できる。多くの在日二世以降の同胞は日本社会の差別性によって、民族的に疎外され自己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素直に受容できず、人格における自己疎外、自己否定に陥り、悩み苦しむという経験をする。その結果、自殺によって決着をつける者、さらに悲劇的な場合では、自分を朝鮮人に生んだとして親を責める子供と、やり場のない悲しみにうろたえる親との間でいさかいとなり、殺人事件までも起きたのである。

それでは、在日同胞青年にはこうした状況に対し、どのような克服の方法があったのであろうか。個人や家庭内における努力は基本であり大切であるが、限界がある。大阪など同胞密集地域に見られる地域社会の教育力も大きいのが、場所は限定される。最も効果的なのは民族学校であるが、韓国系民族学校は極めて少なく、共和国系民族学校は全国的に所在しているものの、韓国系同胞は子弟の就学を避けていた。何よりも日本では、民族卒業は正規の学校資格と認められず、日本における進学や就職に影響するという制度的差別を受けているため、同胞子弟の就学は多くはない。そうした中であって、在日同胞の民族組織、民族運動への参加は少なくない意義があった。私の場合が正しくそうであった。

#### ◇民族運動への参加－韓国民民主化運動へ

私は20代半ばの頃、韓国や在日同胞に触れてみようと思い、地元の民族団体・在日大韓民国居留民団(團)北海道本部に出入りし、1971年、その傘下青年団体である在日韓国青年同盟(團)北海道本部に参加した。こうした時期と重なって、70年代の韓国情勢、そして韓国民民主化運動のうねりは在日同胞社会にも押し寄せて来たのであった。

それは、71年の民団中央本部の団長選挙に、韓国人使館の情報権力が不当な介入を行い、彼らの御用人士を団長にすえる、という事件が起きたのである。これまで朴独裁政権は、在日韓国人の自治団体である民団を御用組織とすべく干渉し続けてきたが、独裁体制の強化と共にその策動は激化していった。この事態に対し、韓青や民団の批判勢力は朴政権追従勢力と民団社会を二分する「民団民主化運動」を展開していった。そしてこの運動を逆して、韓青など民主化道及勢力は本国の独裁政権と対峙する契機となっていったのである。またこの時期、韓国民民主化を求め朴独裁政権を支持している日本、米国で批判活動をおこなっていた前大統領選候補・金大中氏と、在日の民主化道及勢力は会合を重ね、金氏を中心として韓国民民主化運動と連携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時、私はこうした韓青の一員であったが、在日韓国人の少ない地方の青年運動を運営していく中心的立場として、現実的かつ慎重にならざるをえなかった。しかし前述の民団民主化運動の結果、民団中枢を占めた御用勢力は韓青の傘下団体排除から御用青年組織の新設へと進み、韓青北海道にもその組替えを強要してきたのである。私はこれまでの、民団の権力追従勢力の理不尽さ、民団北海道の没民族的な姿勢に怒りと失望を重ねていた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し、それに比べ韓青中央などの民主化追及勢力の青年らしい純粋さ、民族運動への真摯な取組みに強くひかれていた。そうした情勢がきっかけとなり72年、私は民間組織を離れ、韓青中央と同調する全国組織と連携し、民族運動を行うことを決断した。そして73年、韓国情報権力による“金大中氏の拉致→殺害未遂事件”が起きたが、私はすでに韓青で金氏の講演、著作に触れ、その見識の高さに共鳴していただけに、金氏の救援活動を行うと共に、“もはや朴独裁政権打倒しかない”と韓国民空化運動を取組むことに決意した。こうして私はこれ以降、韓青北海道の責任者として韓民主化運動を基軸とする民族運動を展開していった。

### ◇甲午農民戦争—獲得した私の「民族の誇り」と民衆運動の立脚点

この70年代当時、韓青で行われた学習はこうした韓青運動の性格を反映して、“真に愛国的とは、民族的とは、民主的とは何か”というテーマがあり、それが追及された。歴史について、現代史では李承晩独裁政権を打倒した「四月革命」、近代史では“外勢の侵略との抗争”に力点が置かれていた。

そうした流れの中で、私の「民族観」を根本的に変えさせる出来事があった。それは朝鮮近代史における「甲午農民戦争」を学び、知ったことである。甲午農民戦争については、日本史などでも「東学党の乱」などと記されていたから、私も全く知らなかっ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しかしその詳細な内容、近代史における位置づけについてはほとんど知らなかった。現在と違って韓民主化問題が活性化されようとする70年代初めは、日本における韓国・朝鮮関係の書物は大変に少なかったが、その中から私は朝鮮近代史と甲午農民戦争を勉強していった。それらの本を読み進めていった時、まさに私は“目から鱗が落ちる”思いがしたのである。

それまでに私は、71年の初訪韓で自分の祖国という存在を実感したし、また韓青運動の参加によって初めて敬服できる韓国人の存在にも触れ、私は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素直に認められるようにはなっていた。しかし幼い時に染み付いた民族的劣等感、“朝鮮は

遅れている、情けない朝鮮人”という意識はまだ払拭し切れずに残っていた。そしてそうした意識は日本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の歴史、“なぜ朝鮮は日本に支配され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腹立たしさ、無念さ、疑問から由来していたのである。

それが近代史における甲午農民戦争を知ることによって、私の朝鮮—朝鮮人観は180度変わっていったのである。それは“朝鮮民衆はやすやすと日本に支配されたのではない、甲午農民戦争という朝鮮独自の近代化への胎動があったのだ、もし日本という外勢の干渉が無ければ、朝鮮民衆は甲午農民戦争によって封建体制を打倒したのだ、日本の近代化である明治維新が下級武士とはいえ支配階級によるものだったのに比べ、朝鮮の甲午農民戦争は農民という被支配階級の民衆による、より進んだものではなかったか、そして甲午農民戦争は残念ながら敗北したが、そこで示された民衆力量はその後の抗日闘争につながっていったのだ”と、甲午農民戦争を認識したことである。このように甲午農民戦争が果たした役割、それを支えた民衆の崇高な戦いと犠牲、近代史での甲午農民戦争の意義を理解した時、“そうか私はこの民衆の末裔だったのか”と、私は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の誇り”というものを初めて感じたのである。

またこのような朝鮮近・現代史における民衆の抗争、私の韓青運動に関わってはおりからの韓民主義闘争における労働者、学生、知識人、宗教者の人生と命をかけた闘い、とりわけ80年光州事件での不正・強大な国家暴力に対する民衆蜂起など、それらに触れ、連帯・支援運動を通じて、私は深甚な感銘と共に“自分が歩むべき道標”を得れたと思っている。つまりそれは“民衆は社会の主人公であるがそうではない社会、そのためには民衆が主体的に立上がり闘んでいくべきである”という民衆運動であり、甲午農民戦争は私にとってそうした民衆運動の立脚点ともなったのである。

#### ○甲午農民戦争、日本社会の受容について

このように甲午農民戦争は在日韓国人の私にとってはかけがえのない「精神の糧」であり、他の在日同胞にも関心を持っている者もいるが、それでは日本社会にはとってどのように受容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結論から率直に言えば、日本社会では歴史研究者の一部、韓国・朝鮮問題に関心のある市民運動の一部を除いては、ほぼ知られておらず意識も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だ。また甲午農民戦争の日本社会の受容について、評価の対象となる材料にも乏しい。そうした状況にあって、ほとんどの日本人が甲午農民戦争に最も触れえる機会は、学校の義務教育（必修である）社会科である。そこでその中心かつ具体的な素材である小・中学校社会科の教科書を取上げて、“甲午農民戦争がどのように記述されているか”を紹介してみよう。ここで取上げる小・中学校社会科の教科書は、現在、札幌市で使用されているものとし、比較参考として私の小・中学校時代（札幌市）のものも、そして「記述の範囲」は甲午農民戦争に関わる部分とし、合わせて今年が「植民地支配 100年」目であるので、参考に「韓国併合」部分も載せておく。

#### ◇私の小・中学校時代の教科書（題名・題）、その記述

私の小学校時代は6年生（1958）で、中学校時代は2年生（1960）で歴史のこの部分を学んだ。以下、教科書の記述のうち（一）は題名、（二）は記述の題名である。

#### [小学校・教科書]

「**新 小学社会 題名 6年上**」（教育出版 1954文部省検定済〜56版）

##### 一、日本の歴史(教科書)

##### 産業の発達と大陸への進出

##### 日清・日露の戦争

日本は、朝鮮に品物を送って、ここに市場をひろげようとしていました。そこで、朝鮮に勢力をもっていた清国（中国）とのあいだに、勢力あそいがおこり、明治二十七年（一八九四）、ついに日清戦争がはじまりました。このたたかいは、日本の勝利となり、日本は大陸へ進む一つの足がかりをえました。

〈後略…日露戦争の記述〉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日韓併合

日清、日露の戦争のけっか、東洋に軍事的な力を強めた日本は、明治四十三年（一九一〇）朝鮮を保護するといつて、日本に併合してしまいました。そのために、朝鮮では、ことばや文字までも、すべて日本のものにあらためられました。しかし、朝鮮人のなかには、ひそかに朝鮮民族の独立をねがっていた人々もありました。

### [中学校・教科書]

〔編 新しい社会 ③〕（東京書籍 1955年増訂版～58～編訂）

#### 第5章 近代日本の成立

##### 3 資本主義の発達

###### (1) 日本の産業革命と大陸への進出

日清戦争 産業革命で、綿製品がたくさん生産されるようになると、これを外国に売りさば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とに、貧しい農民の多い国内では、製品があまり売れなかったので、市場を海外に求めることがますます必要になった。当時、諸外国の勢力はすでにアジアの諸地域におよんでいたが、日本は近い朝鮮に市場を求めよう

とした。しかし清は朝鮮を属国と考えていたので、日本の進出を喜ばず、朝鮮では日清両国の対立がはげしくなった。

1894年、朝鮮に起こった内乱をきっかけとして、日本と清とはついに戦争を始めました。この戦争は、早くから近代化に努めていた日本の勝利に終り、翌年に下関（山口県）で講和条約が結ばれた。この条約で、清は朝鮮を独立国として認め、遼東半島や台湾などを日本にゆずり、3億円の賠償金をはらうことになった。こうして朝鮮は日本の市場となり、日本の商品は大量に朝鮮に売られるようになった。

###### 日露戦争 <前略…日露戦争の記述>

この後、朝鮮は日本の思いどおりになるようになり、ついに1910年、朝鮮（韓国）を併合して日本の領土とした。

###### ◇札幌市・現用の教科書、その記述

次に現在であるが、やはり小学校では6年生で、中学校では2年生で歴史のこの部分を学んでいる。ここに紹介するのは札幌市の現用のものであるが、ちなみに新しい教科書が

小学校用については来年度（09検定済～10採択）から、中学校用については再来年度（10検定中～11採択決定）使用される（使用期間は採択から、次回の採択までの4年間）。現下、記述中の〈→〉は前掲のとおり、小学校用の巻一はコラム欄、巻二は注として、また中学校用の〈脚註〉はコラム欄、巻一と巻二は注として教科書自体に影響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

[小学校・教科書]

「韓社会 6上」(教育出版 2004년 1월 1일 발행)

3 新しい日本の国づくりを見つめよう

2 二つの戦争と日本・アジア

日清・日露の戦い 19世紀の終わりごろ、日本と中国(清)は、朝鮮をめぐる対立していました。日本が、不平等な条約をおしつけるなどして、朝鮮に勢力をのぼそうとしていたからです。

1894(明治27年)、朝鮮で、国内の改革や外国勢力の撤退を求める反乱が起きました。清が、朝鮮政府の求めに応じて援軍を送ると、日本もこれに対抗して出兵し、日清戦争が始まりました。

この戦争で、日本は清を破り、台湾などを領土にしたほか、多額のばいしょう金を得ました。また、清に朝鮮の独立を認めさせました。

こうして、日本は朝鮮に勢力を広げようとしたのですが、満州(中国の東北部)に進出し朝鮮にも力をのぼそうとしていたロシアとの対立を深め、1904年、日露戦争が起

きました。<後略…日露戦争状況の記述>

筆者注. この項目に関連し、「朝鮮と日本・清・ロシアの関係をふりかえりてえがかれた絵」と題された風刺絵、「日清・日露戦争の戦場、日本の戦死者・戦傷・領土の変化」と題された地図、グラフが記載。

戦争のえいきょうと朝鮮併合 <前略…日露戦争への日本国内の反発が紹介される>

1910(明治43)年、日本は、朝鮮(大韓帝国)の人々の強い反対をおしきって、朝鮮を併合し、植民地にしました。歌人の石川啄木は、これに疑問をいだくうたを残しています。

朝鮮では、多くの人々が土地を失い、日本人のもとで小作人として働いたり、日本や満州(中国の東北部)にわたって、鉱山などで厳しい仕事についた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学校では日本国民となるための教育が行われ、日本語や日本の地理・歴史が教えられました。一方、日本人の間には、朝鮮や中国の人々を軽視し、差別するまちがった考えが強まっていきました。

筆者注. この項目に関連し、「石川啄木」と題された挿写員と歌のうた、「日本軍で慰問を受ける朝鮮の子供たち」と題された授業風景の写真が記載。

●民族自立の願い 1910(大正8)年、朝鮮で、民族のほこりをうらやむとする日本の支配に反対する運動が起きました。人々は「わたしたちはここに、朝鮮が独立国であること、朝鮮人が自由民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という独立宣言文を发表し、独立を旨とする意志を樹の内外に示しました。当時15才だった女学生の柳寛順もこの運動に参加し、演劇の人々に独立運動に立ち上がるよううたをうたえました。

▼大韓帝国 1897年、朝鮮は、国号を大韓帝国(大韓)と改めました。

▼植民地 宗主国によって、資源の主要がうばわれ、一方的に支配される領土や地域。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中学校・教科書〕

〔社会科 中学生の歴史 読物社読物誌〕 (帝国书院 2005年講習版)

### 第5章 近代日本の歩みと国際社会

#### 第2節 新しい価値観のもとで

##### 1 新しい外交関係を求めて

**新政府の外交** <略…欧米との不平等条約改正交渉と政治機構・産業の視察の記述>  
**征韓論** 新政府は、欧米諸国から学んだ外交のやり方を、アジアに対して行おうとしました。まず新政府は、朝鮮と国交を結ぼうとしましたが、朝鮮は江戸時代からの関係をそこなうやり方だと考え、その要求に応じませんでした。そこで、西郷隆盛や板垣退助らは、武力に訴えてでも朝鮮に要求を通そうとする征韓論を主張し、士族の不満の解消もめざそうとしました。そこへ、1873年に岩倉・大久保らが帰国し、国内の整備が先だとして征韓論をおさえました。そのため、同年、西郷・板垣らは政府を去りました。

① 朝鮮は、従来の朝貢を通じた外交を求め、また、別等な関係ではないことを示し日本からの国交に反対しました。

**国境と領土** <前略…清と日清修好条規締結などの記述>

その翌年、朝鮮の江華島沖で、日本の軍艦が朝鮮に無断で測量したため砲撃される事件がおきました(江華島事件)。この事件を口実として、新政府は、朝鮮に不平等な条約である日朝修好条規を結ばせ、港を開かせました。

<後略…ロシアとの樺太・千島交換条約締結などの記述>

#### 第4節 アジアの日本から世界の日本へ

##### 1 朝鮮の支配を争った日清戦争

**帝国主義** <略…欧米諸国の帝国主義の解説>

**朝鮮をめぐる東アジアの情勢** 日本も欧米諸国のやり方をまねて、朝鮮半島に勢力をのぼそうと考え、江華島事件以後、朝鮮出兵の機会をねらっていました。そのため、朝鮮を勢力範囲と考えていた清と、対立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のころ朝鮮では、重い税金に加え、凶作と朝鮮開港後に進出した日本の商人による米の買いしめで、米の値上がりが続いていました。そうしたなか、1894(明治27)年、西洋文化(西学)に反対する宗教(東学)を信仰する農民たちを中心に、日本と

欧米諸国を追いはらい、朝鮮の政治改革をめざす反乱がおきました。農民軍は、政府軍を破って朝鮮南部に勢力を広げました(甲午農民戦争)(国訳)。

(国訳)朝鮮の近代化の道 日清戦争後、朝鮮は、朝鮮から朝鮮国が日本にやってきました。西洋文化を取り入れた日本の工部・警察・新聞などを導入し、朝鮮の近代化を促したためでした。しかし、当時の朝鮮では儒教思想が根強く、西洋文化への反発がありました。また、甲午農民戦争や日清戦争による混乱もあり、朝鮮国は成長をあげられませんでした。

**日清戦争** 朝鮮政府は、農民軍をおさえられなくなり、清に援軍を求めました。日本は清に対抗し、すぐに朝鮮へ軍隊を送りました。農民軍と朝鮮政府は休戦しましたが、日本は朝鮮王宮を占拠するなどの内政干渉を行い、清との対立を深めました。そして1894年7月、豊島沖の衝突をきっかけに日清戦争がはじまりました<sup>9)</sup>。日本では、議会や内閣が派兵の拠点になる広島に移されました。清は大国でしたが、戦争は近代装

備でまさる日本軍が勝利しました。〈後略…下関条約の内容〉

<sup>9)</sup> 『日清戦争』と題された戦場写真。(朝鮮を中心に豊島、甲午農民戦争も記録されている)

三國干渉 < 略 >

2 日露戦争と日本の立場

義和団の抵抗 < 略 >

日露戦争 < 略 >

条約改正の達成 < 略…条約改正の経緯と達成の記述 >

3 めりかえられたアジアの地図

日本の植民地支配 < 前略…日本勝利が与えたアジア民衆への影響—孫文の反清運動の紹介 >

一方、日本人の間には、日清・日露戦争などに勝利するなかで、日本人はアジアのなかで優れていると考える人も増えてきました。そして、アジア諸国の期待とは異なり、日本は韓国<sup>1)</sup>の植民地化を進め、陸軍・海軍の軍備を増強させるなど、帝国主義国としての動きを活発にさせていきました。

1) 大韓帝國の略称で、朝鮮は1897年からこの名刺を用いていました。

**韓国併合** 1905年、日本は韓国を保護国としたうえで、伊藤博文を韓国統監として派遣し、内政・外交とも日本の支配下におきました。そのため、韓国では激しい抵抗が全土に広がり<sup>10)</sup>、1909年には伊藤博文<sup>11)</sup>が暗殺される事件(国恥)も起こりました。1910年、日本は韓国を併合して、植民地としました(韓国併合)。朝鮮総督府<sup>12)</sup>において支配を開始し、韓国を朝鮮と改め、首都漢城(現在のソウル)も京城と名をかえさせました。日本の支配に対する朝鮮民衆の抵抗は、その後も続けられました。

<sup>10)</sup> 『朝鮮の王宮前に建てられた朝鮮總督府 現在は取り壊されています。』と題された全景写真。

筆者注。この写りに関連し、「韓国併合についてのうた(として) 近代朝鮮總督のうた 石川啄木のうた」と題された二人のうたを記録。

<sup>11)</sup> 『東京で撮影された韓国皇太子と伊藤博文』と題された二人の写真。

<sup>12)</sup> 『日本の朝鮮併合に対する朝鮮民衆の抵抗運動(1906~1911)』と題された朝鮮画。(抵抗運動のおこったところが記録されている)

(国恥) 韓国の敬禮法にある史実制。安重根は、伊藤博文を暗殺したため、朝鮮では英雄とされていますが、朝鮮では民族的英雄であり、朝鮮民族のために独立運動を行った人物として尊敬されています。そのため、韓国の教科書では次のようにとりあげられています。「安重根は、侵略侵略の元凶である伊藤博文が、大韓帝國についてロシア代表と交渉するために、満洲のハルビンにきたところを射殺した。安重根のこの行動は、日本の侵略に対するわが民族の強い独立精神をよく表したものである。」あわせて<sup>13)</sup> 『切手になった安重根』と題された切手の写真。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朝鮮・台湾・「滿州」での政策 植民地となった朝鮮では、学校で日本語や日本の歴史・地理が教えられ、朝鮮固有の文化や歴史を教えることは禁じられました。また、多くの農民が土地をうばわれたため、小作人となる者や、日本や「滿州」へ移住せざるをえない者もいました。 <後略…台湾や「滿州」での支配政策の記述>

[参考] 「ははゆ 中学社会 教科書」(日本書籍新社 2005年刊行)収録

### 第4章 近代国家の成立とアジア(※日清戦争の部分のみ記載)

#### 4. 朝鮮侵略と産業革命

##### 日本と清が戦争をする

##### 秦約改正問題 <略>

朝鮮をめぐる対立 日本は朝鮮に不平等条約をおしつけたのち、有利な条件を争かしてしだいに朝鮮に勢力をのばしていった。これに対し、朝鮮では反発が強まった。日本は朝鮮の宮廷のなかの対立を利用して、日本にたよろうとする勢力と手を結び、清の勢力をのぞこうとしたが失敗し、清との対立を深めた。

1894年、朝鮮では、日本や欧米諸国の進出と朝鮮政府に対する不満が爆発し、東学教を信仰する農民が中心になって反乱をおこした(甲午農民戦争)。農民軍は、外国勢力の追い出しと政治の改革を求め、各地で政府軍をやぶった。これをおさえるため、朝鮮政府が清国に助けを求めると、前から清との戦争の準備をしていた日本はただちに朝鮮へ出兵した。

日清戦争 日清両国が出兵したとき、すでに農民軍と朝鮮政府は休戦していた。しかし、日本は軍隊を駐在させつけるため、改革案を朝鮮政府におしつけ、これに対する回答を不満として、朝鮮の王宮を占領した。そして、清の海軍を攻撃したのち、宣戦を布告して日清戦争を始めた。

##### <中略…日清戦争の結果、台湾の植民地支配>

朝鮮では、日本公使が朝鮮の皇后宮を暗殺したが、日本よりの政権をつくることには失敗した。

▲「甲午農民戦争の経緯を 全のソウ(甲寅申水)は1895年、日本軍により鎮圧された。」と記された捕らわれ土俗の石文。

▲「日本軍の進出 軍隊は忠清の守備隊から出陣し、大本營(大營)が留守する本朝)も攻め込まれ、激突も成程で開かぬ。」と記された大戦場捕獲。

◎1860年代に生まれ大正期の一冊で、キリスト教(西学)に賛成し、人間の平等をとらえた。朝鮮の民の苦悩はもろからず、農民の側に立った。

◎興成を以て(同記)1951~95) 興成の自伝。しほしが政治の苦難をたどった。(百集画を以て)

## ◇～甲午農民戦争を中心に～教科書記述、私の評価

『私の小・中学校時代の教科書について』現用の教科書を比べると、その記述の量、質ともに大きな違いがあり、私の小・中学校時代の教科書の記述は極めて不十分であった。何よりも全体的に、日本の侵略に関わる記述が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甲午農民戦争については、小学用では一切ふれられてなく、中学用でわずかに「内乱」としてふれられているだけである。この時代の他の中学用教科書で、まれに甲午農民戦争の性格（農民の圧政への反抗、外勢の排撃）にふれたものもあるが、それでも表記はことごとく「東学堂の乱」であり、全く記述されていないものもある。

また歴史事実について明らかな過ちもある。小学用の日韓併合の項目で、朝鮮独立の願いについて「朝鮮人のなかには、ひそかに…」とあるが、史実を列挙するまでもなく、公然たる独立運動が存在（3. 「独立運動」した。中学用では日露戦争の項目で、戦争後「朝鮮は日本のおもいどおりになる…」とあるが、これも史実（後期義兵闘争）を矮小化している。さらにその矮小化は、日本による「韓国併合」を日露戦争の項目に埋没させるに止まっており、その植民地支配の内容や朝鮮民衆の動向にも何ら触れていない。こうした問題の所在は、朝鮮の存在を主体的にとらえられないことによる。そしてそれは小学用、中学用共に日清戦争をめぐる朝・中関係の記述にもこめられているが、それについては後述する。

日本の敗戦後、一般的な平和主義や国際友好は教育で尊重されるが、この時代はまだ日本の戦争の性格—アジア侵略への理解が大差不十分で、アジア関係およびアジア諸国への教科書記述も問題が多い。こうした状況から在日韓国人であっても、私は朝鮮（韓国も）について意識には残らず、むしろ民族的コンプレックスから苦痛以外のなにものもわかなかった。まして日本人にとっては、妥当な朝鮮意識など持てようはずもなかったであろう。

『現用の教科書について』約半世紀の時間の経過があるだけに、記述内容の進展は一目瞭然であろう。甲午農民戦争など朝・日近代史をみる場合、私は肝要な基準が二点あると思っている。一点目は日本の帝国主義や侵略の主導性が明示されてい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ある。日本の侵略動向を、“他国からの受動的対応”や“やむをえざるもの”として曖昧にしたり、合理化にしたりしていないか、ということだ。二点目は朝鮮の存在や朝鮮民衆の動向を主体的にとらえ認識しようとす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ある。朝鮮という存在をあたかも“中国の付属物”あるいは“無人の地”であるかのように、主体性を無視してとら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結果としてそれも日本の侵略を弁明することになる。

さて甲午農民戦争については、小学・中学用ともに農民戦争の性格にもふれられており、中学用ではさらに農民戦争の経緯にも「農民軍と朝鮮政府は休戦…」とふれ、関連して「日本は朝鮮王宮を占拠する…」と、他のほとんどの教科書では記述していない日本の侵略にもふれている。そして「甲午農民戦争」という表記は、現用および他の中学用教科書でも、右派の『野驢 新しい歴史教科書』も含めて使われており、かつての「東学堂の乱」という用語はない（但し、右派の教科書では「暴動」と位置づけている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前述の日本の侵略主導性の明示について、現用教科書では小学・中学用ともに、日本が「不平等な条約（日朝修好条規）」を「おしつける」（小学用）。「銘ばせ」（中学用）とあり、また「韓国併合」でも韓国の「人々の強い反対をおしきって…」（小学用）。「激しい抵抗が全土に広がり…」（中学用）とし、さらに中学用では「征韓論」、「江華島事件」を取上げ、日本の能動的策謀として明記している。こうした記述は右派の教科書を除けば、他の小学・中学用教科書でも若干の違いはともかく、共通している。

そしてもう一つの朝鮮の主体性への理解についてであるが、これについては過去はもちろん、現在のほとんどの教科書も問題を残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ここでのテーマである甲午農民戦争を契機として“日清戦争へ進展”する記述について見てみよう。私の小・中学校時代の教科書では「朝鮮に勢力をもっていた清国（中国）と…勢力あそい…」（小学用）、「清は朝鮮を属国と考えていたので…」（中学用）などにより、甲午農民戦争をきっかけに日清戦争が始まったと、記述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朝鮮を中国の属国視し、朝鮮をめぐる日本と清の対立”とする考え方は、過去の教科書に共通しているし、日本史もほぼそうであった。現在の教科書においても、現用の「日本と中国（清）は、朝鮮をめぐる対立」（小学用）、「朝鮮を勢力範囲と考えていた清と、対立」などのように、また他の教科書でも多少の表現の違いはあっても、そうした視点が底流となっている。

しかしそのような視点は妥当であろうか。それはまず朝一中関係についての認識と理解に問題があるからではないか。確かに近代以前の中国と朝鮮とは朝貢一冊封関係、あるいは事大主義（宗主国一藩属国）関係となっているが、この関係は原則的に権力的な支配一

被支配関係ではなく、朝鮮の自主性つまり内政・外交は干渉され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近・現代的な宗主国一植民地関係とは全く異なるものなのだ。さらにこの関係は、朝鮮が長い時代に渡る中国の侵略や戦いから、国境を接した大国との安定的関係を計ったものである。現代的に言えば、朝鮮の存立を確保するための「安全保障政策」であろう。朝鮮にとって中国との関係内容は、対等なものとは言えなかったであろうが、隣国である大国に抗し、国家・民族の存立を計ったという点で高度に主体的な営みであったのである。

しかし教科書の記述を見る限り、現用は過去のものより改善はされているが、こうした朝鮮の内実や動向が意識されているであろうか、少なくとも読み取ることはできまい。それゆえに朝鮮を中国の“一部ないしはその類い”として自立した存在とは位置づけられず、一気に日本と中国の大国間戦争へ、まるで同等の立場での植民地争奪戦のような記述になっていっている。こうして日本の行為が中国との対比関係に焦点がずれていくことにより、日本の侵略性が軽減されていき、あわせて日本の大国化を意識づける効果も果たしていく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朝鮮の主体性を理解することは、日本の侵略性、帝国主義性への理解と関連し、それを徹底させることにもつながるのだ。

朝鮮の主体性と歴史事実の推移を直視すれば、日清戦争の道程への記述は“日本の朝鮮奪取への侵略、その延長として（自國への危機を覚えた）中国と衝突”という表現になっていくのが道理ではないか。＜このような私の指摘の具体的表現が、「参考」として載せた日本書籍新出版社中学用教科書の記述であろう。この教科書は各項目に流って日本の侵略主導性を明示した記述になっており、日清戦争への過程についても朝鮮をめぐる日本と中国の軋争いという表現にはなっていない。この教科書は現用教科書採択時の候補8社中、私の評価では1番と見ており、現用の帝国書院版は2番目と見ている。＞

こうした日清戦争への記述、認識の中に、日本社会の朝鮮への不当な輕視意識、日本への大國意識が忍んでいるのである。朝鮮の主体性への理解の欠落について、日清戦争の記述の問題点を含めて述べてきたが、こうしたことは日本社会にとって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る、と私は考えている。なぜなら日清戦争こそが近代日本の朝鮮、アジアへの最初の侵略。帝國主義戦争であり、それへの理解。位置づけの不十分さが現在の日本の対朝鮮、アジア認識に影響しているからである。

#### ○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と東アジアの平和・韓半島の統一

本学会の目的は“東学と「東アジアの平和・韓半島の統一」との關係性”である。私は、東学については門外漢であり、また東アジアの平和や韓半島の統一という課題も広範にすぎないが、東学が生んだ“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の意義”について感じていることを述べて論稿の任としたい。

##### ◇朝鮮を主体的に理解すること

私は前述のように日本の教科書の甲午農民戦争に関わる日清戦争の記述において、朝一中關係を取上げて朝鮮への主体的な理解の不十分性を、また合わせて日本の侵略認識の不徹底性も指摘した。しかしそうした状況は教科書記述に止まらないのである。私の周りの市民・社会運動の人々、有識者においても、日清戦争については進歩的な視点を持つ人でさえ、朝一中關係については意識したこともない、考えたこともないというのが実態だ。おそらく全国の研究者、学者においても、そうした視野を持つ人は極めて少ないのではなからうか。こうした状況は、前述のような教科書記述の不十分さが日本社会をリードしてきたというよりも、日本社会に継統して残されている朝鮮認識の弱さが全般に影響し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る。

それではなぜ、“日清戦争に関わる朝一中關係への意識の弱さ”に例を取りながら述べてきたのか。それは“日本社会が朝鮮を主体的に理解することの弱さを自覚してほしい、それゆえに朝鮮をもっと深く真剣に注視する努力が必要だ”からである。現在の日本社会においては、日本の侵略への認識も、朝鮮の主体性の理解も、過去よりは前進している。前の教科書記述の紹介のように、日本の侵略・加害や朝鮮民衆の抵抗・闘争も明示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からだ。だがそれは日本と朝鮮の二者關係が明確な場合で、日本は一方の当事者（加害者）であれば、その範圍はわかりやすく否定しにくいものだからである。そして何よりも、この間の韓国を始めアジア被害民衆の闘い、良心的日本人の支援も含む国際世論の圧力の成果だから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しかし“日清戦争をめぐって”のような第三者が関係する場合はどうか。くり返しになるが現在の教科書記述では過去よりも多少の前進はあるものの、“日本と中国の対決、後景に退かされた朝鮮”という図式に変わりはない。日本にとって、大國・中国との戦争をして勝利に意識が奪われ、基本的に朝鮮への侵略戦争であることが明確に位置づけられていないのだ。中国が関係することで、日本の朝鮮への主体的な理解はさらに弱まり、日本の侵略行為まで曖昧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このような意識状況は日本社会も変わりはなく、日清戦争によって“日本がアジアの大國になったのだ”という濃然たる認識が濃厚なのである。

こうした日本の社会状況の証左として昨年、司馬遼太郎の小説「坂の上の雲」をNHKがドラマ化・放映した問題がある。この小説は日本の近代国家への過程を日清・日露戦争を舞台に描いたものだが、朝鮮の侵略・植民地化を合理化し、日清・日露戦争を日本の「防衛戦争」とするなど、歴史事実の歪曲、自國賛美に彩られたものであった。これに対し日本の市民運動は歴史認識の誤りをもとに、「国民作家」という著名な司馬をして公共放送としての影響力を鑑み、批判活動を行っているが、NHKは真摯に答えていない（総編を今年、来年予定）。実は後年、司馬は朝鮮・アジア観を修正しており、そうした意識からか彼は生前、この小説の映像化を固辞し続けていたのである。だがそれでも彼は、「司馬史観」と言われた“昭和期（～1945）の日本を非難しながらも、明治期（～1905）の日本を賞賛する”という歴史認識にはこだわった。このような歴史認識の類似型（明治期日本への植民地・欧米列強の圧迫を排し、近代国家を形成）は日本社会に既に存続しており、今後、増幅していくかもしれないのだ。なぜなら現在の日本社会において、アジア太平洋戦争期の日本の侵略・戦争責任については、不十分ながらも自覚せざるをえない状況にあるが、それを代償していこうとする「日本の国民意識」に利用されうるからである。

以上、こうしてみると日本の侵略・帝國主義行為の反省には、“日本の近代国家形成期におけるアジア侵略”へのしっかりとした反省意識の確立が大切な課題であることがわか

る。そしてその要所として、日清戦争（日露戦争も）への適切な理解と認識が必要とされるのである。現在、日本の歴史学、政治学では欧米の学問の影響からか「脱植民地化」というテーマが語られ始めている。本来で言えば「脱帝國主義化」ということであろうが、これには当然“日本の近代化形成期＝帝國主義國家化”が問われることになるが、それをひも解く鍵なのが“朝鮮を主体的に理解する”ことであろう。

### ◇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を広げていこう

さて「東アジアの平和」と「韓半島の統一」であるが、私は前者において主要な問題は二点あり、一つは日本と中国のアジアにおける主導権争い、もう一つは南・北朝鮮の分断による対立と緊張であり―後者の問題となる、と考えている。そしてこうした課題を平和的に解決していくには、日本の存在と役割が重要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であろう。

“韓半島の平和統一”について日本に望まれることは、日本が統一を阻害する立場に立たないこと、平和的統一の環境づくりを支援す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の基礎となるのはやはり日本の朝鮮・アジアへのしっかりとした理解であり、それにはどうしても日本の歴史問題における総括が求められるのである。それを通して日本の侵略・責任の認識が徹底

し、朝鮮への主体的な理解も可能となっていく。そうした歴史的事例としてあげたのが日清戦争とそれへの適切な認識であり、その手がかりが“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の進展”なのだ、私は思っている。

では日本社会において、甲午農民戦争の理解の広がりや深まりは、いかなる意義をもたらすのであろうか。第一に“民衆自身による独自の巨大な朝鮮近代化の営みがあった”と認識できることだ。日本においては、アジアの近代化では日本が最も豊れ成功したという誇りが内在しており、中国を除けば他のアジア諸国の近代化への関心は極めて薄い。甲午農民戦争を知ることは、自国の近代化の進み方（明治維新との比較など）の問題性の理解につながり、何よりも朝鮮近代史の実態を知ることになり、これまで決めつけてきた「停滞・他律性史観」を排し、朝鮮の主体的な理解につながるであろう。第二に“その朝鮮民衆と隣国の近代化を圧殺したのが日本の侵略に他ならない”と認識できることだ。日本では、植民地支配以前の日本の侵略に対する認識は弱く、とりわけ朝鮮近代化の分岐点ともなった甲午農民戦争の鎮圧については意識されていない。甲午農民戦争の朝鮮近代史上の意義と鎮圧実態を知ること、日本帝国主義の問題性がより深く理解されるのではないか。

こうしたことから私は、“日本社会における甲午農民戦争への理解をもっと広げるべきだ”と思っている。私自身これまで、日本による朝鮮への侵略、植民地支配、戦争責任に関する執筆、講演では意識的に甲午農民戦争にふれてきたし、特に「韓国併合 100年」の今年、私に関わる市民運動の講席でその歴史を強調もした。しかし私述の民族運動、市民運動もまだ非力なせい、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日本における甲午農民戦争への意識や理解は乏しい。今回、現用教科書を調査し甲午農民戦争の性格にふれられているのを見て、“ここまでは書か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と少しばかり驚かされたほどであった。

だが近年になって、日本社会に甲午農民戦争を知らず動きや新たな成果が生まれた。甲午農民戦争から 100年になる1995年 7月26日、日本の北海道大学文学部の標本庫で粗雑に放置されていたも体の頭骨が発見され、大きく報道されて社会問題となったのである。そのうちの主体が甲午農民戦争のリーダーのさらし首といわれ（「韓国東学堂の首魁の首級」と記されていた）、さっそく北大当局と札幌の真相究明の市民運動体(8.18連帯)の交渉が開始され、また韓国の東学農民革命記念事業会も真相究明、遺骨の奉還を強く要請し、1996年(5.30)当該遺骨は韓国に奉還された。こうした経緯を通して、いくつかの進展があった。在日同胞、アイヌ民族を含む日本側市民運動と朴詒ス氏(國光大教授)ら韓国側関係者との交流が続いており、そうした成果の一つであろうが、2007年、ジャーナリストで興味深くかつ専門的にも優れている韓国の「東学農民革命 100年」(益理・羅鍾勳編)の日本語版も刊行された。また北大の人間問題調査委員であった井上勝生氏(北人名誉教授)は日本側鎮圧軍の新たな資料の発掘・発表に努めており、2008年からは韓国側研究者と共同の学術交流を行っている。これまでは韓国側に限定されていた甲午農民戦争への取組みも、もう一方の当事者である日本側と重ねていける動向が生まれてきたわけで、全体像の解明に向けて新たな段階に入ったといえる。

それでも甲午農民戦争に対する日本全体の関心や理解はまだまだ低く、今後はさらに韓・日の連携と交流を深めながら取組んで行ければ、と思っている。最後に、今回このような発表の機会をいただけたことを、東学学会の皆様にも深く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ある。

◇ 제3주제 한글번역문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과 일본사회

임병택 (일본 삿포로시, 자유학교 '유' 교수)

갑오농민전쟁이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의식(意識)되고 위치지워져 있는가, 또 일본에서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어떻게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연결되는가. 이 같은 문제의 일단으로써 재일 한국인으로서 민족운동 및 시민운동을 경험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나와 그리고 재일한국인에 있어 갑오농민전쟁

먼저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필자가 어떻게 갑오농민전쟁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재일 2세로서의 나, 민족적 소외에 대한 고뇌

1928년 경상북도 청도군의 한 시골 농가의 장남이었던 필자의 부친은 한 집안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 청운의 꿈을 안고 식민지 본국인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출신자에게 가능한 직업은 한정되어 있어서, 필자의 부친은 토목(土木) 노동에 종사하다가 얼마 후에 홋카이도(北海道)로 건너갔다. 부친의 뒤를 따라 1939년 필자의 모친은 조국에서 태어난 어린 누이를 데리고 홋카이도로 건너 왔다. 그리고 일본 패전 이듬해인 1946년 필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재일 2세로 태어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함으로써 조선 민중은 일본의 피지배 민족으로 격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조선은 해방되었으나 일본이 진정으로 아시아 침략에 대한 총괄과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민중에 대한 책임 청산은 소홀하게 되었고, 적절한 전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45년 이후가 됐어도 일본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극복되지 못한 채 계속 되고 있다.

필자가 철이 들 무렵, 자신이 주위와 다른 존재, 즉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으나, 일본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큰 짐이 되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조금은 사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인으로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뒤떨어져 있다, 조선인은 열등하다”라는 어리고 단순한 생각 때문에 먼저 짝이 튼 것은 조선,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패전 후 일본의 학교교육은 일반적인 인권이나 국제친선을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모멸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필자 주변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쏘아붙이는 뿌리 깊은 노골적 차별성,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 또 필자의 친구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차별성, 바로 그것들이 어린 필자에게 왜곡된 조선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이 같은 지역사회 상황은 바로 당시 일본사회의 차별성의 반영이자 그 축소판이었다. 본래대로라면 인격형성기에 그 같은 사회에 대한 대항력을 학교교육에서 부여받지만, 물질문명의 발전 정도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일본을 위한 국민 육성을 하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바랄만한 것이 못되었다. 이리하여 필자는 가정에서 오고가는 조선어, 조선의 풍습, 부친의 조선 친구들,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오는 편지 등 조선과 관계된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태도는 필자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조선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학교에서 '조(朝)'라는 글자가 나타나 그것을 '쵸'라고 발음하게 되면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얼굴이 상기되어 비굴하게 위축되는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일가(一家)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친구들에게는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저 감추기에 급급했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조선인으로서의 열등감은 자기소외, 자기부정으로 발전해 갔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싫다, 무섭다"라는 자기혐오가 나를 지배했다. 또한 "왜 내가 조선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조선인인가, 왜 조선인이 아니면 안되는가" 그 같은 대답없는 근원적인 의문이 나를 계속해서 구속했다. 그리하여 나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까"라고 몽상하기까지 했다. 나는 완전히 자기소외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신이 비겁하지 않은가"라고 느끼고 "추악하다"라고까지 생각했다. 조선인인데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신, 거꾸로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 그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의 상(像)이 일정하지 아니한 자기분열마저 일어났다.

그리하여 "자신은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있을까,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자기부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던

고뇌는 내가 민족운동에 참가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체험은 나 개인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재일동포 2세들에게 공통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후일 내가 민족운동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과의 교류에서, 또 재일동포와 청년들이 쓴 저술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재일 2세 이후의 동포는 일본사회의 차별성에 의해 민족적으로 소외되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솔직하게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자기소외, 자기부정에 빠져 고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살로써 결말을 짓는 사람, 더 비극적인 경우에는 자신을 조선인으로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어린이들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에 당황하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재일동포 청년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극복 방법이 있었을까. 개인이나 가정 안의 노력은 기본이자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오사카 등 동포 밀집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력도 크긴 하지만 장소가 한정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민족학교인데 한국계 민족학교는 극히 소수이고, 공화국계 민족학교는 전국적으로 소재하고는 있지만 한국계 동포들은 자녀들의 취학을 꺼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민족학교 졸업은 정규학교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본 내의 진학과 취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포 자제들의 취학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일동포의 민족조직, 민족운동에 대한 참가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나의 경우도 과연 그러했다.

## 2) 민족운동 참가 - 한국 민주화운동

나는 20대 중반경, 한국과 재일동포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현지에 있는 민족단체인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약칭 民團)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훗카이도 본부에 출입하기 시작, 1971년에 그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약칭 한청) 훗카이도 본부에 참가했다. 이 시기에 겹쳐 1970년대의 한국정세와 한국 민주화운동의 파도가 재일동포 사회에도 밀려왔다. 1971년 민단 중앙본부 단장 선거에 한국대사관의 정보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들 어용인사를 단장에 앉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박정희 독재정권은 재일한국인 자치단체인 민단을 어용조직화하기 위해 간섭을 계속해 왔는데, 독재체제의 강화와 함께 그 책동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71년 사태에 대해 한청과 민단 내 비판세력은 박정권 추종세력과 민단사회를 양분하는 '민단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을 통해 한청 등 민주화 운동 세력은 본국의 독재정권과 대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 무렵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박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에서 비판활동을 하고 있었던 전(前) 대통령후보 김대중(金大中)씨와 재일(在日) 민주화운동 세력이 회합을 거듭하여 김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 연계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한청의 일원이었지만, 재일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방의 청년운동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심적 입장에서 현실적이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전술(前述)한 민단 민주화운동 결과, 민단의 중추를 차지한 어용세력은 한청을 산하단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어용청년조직 신설로 나아갔으며, 한청 훗카이도 본부도 그 재편성을 강요당하였다.

나는 그 때까지 민단의 권력추종세력의 불합리성, 민단 훗카이도의 몰민족적 자세에 분노와 실망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한청 중앙의 민주화운동 세력의 청년같은 순수성, 민족운동에 진지하게 헌신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 같은 정세가 계기가 되어 1972년에 나는 민단조직을 떠나 한청 중앙과 동조하는 전국조직과 연계하여 민족운동을 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1973년 한국 정보권력에 의한 '김대중씨 납치 살해 미수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는 이미 한청에서 김씨의 강연과 저작을 접하고 그 견식의 탁월함에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 구원활동을 전

개함과 동시에 “이제는 박 독재정권 타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부터 한청 훗카이도 책임자로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기축으로 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해 왔다.

### 3)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

#### - 획득한 나의 ‘민족의 긍지’와 민족운동의 입각점

1970년대 당시 한청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위와 같은 한청운동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정으로 애국적이란, 민족적이란, 민주적이란 무엇인가”라는 테마가 있었으며, 바로 그것을 추구하였다. 역사에 대해서는 현대사 중에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4월혁명’ 근대사에서는 ‘외세 침략에 대한 항쟁’에 역점이 주어져 있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나의 ‘민족관(民族觀)’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근대사에서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배워 알게 된 것이었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사에서도 ‘동학당의 난’이라고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상세한 내용, 근대사에 있어 자리매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한국의 민주화문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던 1970년대 초는 일본 내에서 한국과 조선(북한-주) 관계 책이 대단히 적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조선근대사와 갑오농민전쟁을 공부했다. 관련서적을 읽어 나가면서 나는 마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눈이 확 트이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전까지 나는 1971년 첫 방한(訪韓)을 계기로 내 조국이라는 존재를 실감하고 있었으며, 또한 한청운동 참가를 통해 처음으로 경복(敬服)할만한 한국인과의 만나게 되어, 내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렸을 때 물들어 있던 민족적 열등감, “조선은 뒤떨어져 있다. 한심한 조선인”이라는 의식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 “왜 조선을 일본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을까”라는 분노, 원통함, 의문 등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노와 원통함, 의문 등이 조선근대사에 있어 갑오농민전쟁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조선·조선인관은 180도 바뀌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 민중은 간단히 일본에게 지배당한 것이 아니다.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조선 독자적인 근대화를 향한 태동이 있었다. 만일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조선민중은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봉건체제를 타도했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인 메이지유신이 하급무사라고는 해도 지배계급에 의한 것인데 비해,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은 농민이라는 피 지배계급 민중에 의한, 보다 진보적인 운동이지 않았을까. 갑오농민전쟁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지만 거기에 나타난 민중역량은 그 뒤의 항일투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갑오농민전쟁이 수행한 역할, 그것을 뒷받침했던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 갑오농민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의의 등을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나는 바로 그 민중의 후예이구나”라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또한 이 같은 조선 근현대사에 있어 민중의 항쟁, 내가 한청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민주화 투쟁에 있어 노동자,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 광주사건(광주민주화운동-주) 당시 부정한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봉기 등과 만나면서 연대 지원운동을 통해 심오한 감명을 받음과 동시에 “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좌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민중이 사회의 주인공인데도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민중 스스로 주체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고 하는 민중운동으로

써, 갑오농민전쟁은 내게 있어 그 같은 민중운동의 입각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 2. 갑오농민전쟁, 일본사회의 수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농민전쟁은 재일한국인인 나에게 있어 들도 없는 '정신의 양식'으로써 다른 재일동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사회에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본사회에서는 역사연구자의 일부, 한국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운동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의식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갑오농민전쟁의 일본사회의 수용에 대해 평가의 대상이 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갑오농민전쟁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학교의 의무교육 과정인 사회과(社會科)이다.

그래서 그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소재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예로 들어 "갑오농민전쟁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예로 드는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현재 삿포로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며, 비교 참고하기 위해 나의 초·중학교 시대의 것도 인용하기로 하며, '기술의 범위'는 갑오농민전쟁 관련 부분으로 하되 올해가 '식민지 지배 100년'째 되는 해이므로 참고로 '한국병합' 부분도 실기로 한다.

### 1) 나의 초·중학교 시대 교과서(삿포로시 상용), 그 기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나의 초등학교 6학년(1958년)때, 중학교 때는 2학년(1960년)때 아래 인용하는 부분을 배웠다.

(이하 교과서 기술 속의 ...은 생략부분, < >안의 내용은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 【초등학교 교과서】

『표준 소학사회(小學社會) 개정판』(교육출판, 1954 문부성 검정 완료, 1956개정)

#### 一. 일본의 역사(원문은 세로쓰기)

산업의 발달과 대륙진출

청일, 러일전쟁

일본은 조선으로 물품을 보내 시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청국(중국)과의 사이에 세력다툼이 일어나 메이지 27년(1894)에 마침내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일본 승리로 끝나 일본은 대륙으로 나아갈 발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략, 러일전쟁 기술내용>

#### 한일병합(韓日併合)

청일, 러일전쟁 결과 동양에서 군사력을 강화한 일본은 메이지 43년(1910)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병합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조선에서는 말과 문자까지도 모두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 가운데는 몰래 조선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신편 새로운 사회③』 (도쿄서적, 1955 문부성 검정완료, 1958 일부개정)

제 5장 근대일본의 성립

3. 자본주의의 발달

(1) 일본의 산업혁명과 대륙진출

청일전쟁

산업혁명으로 면제품이 많이 생산되게 되자 그것을 외국에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가난한 농민이 많은 국내에서는 제품이 남아돌아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저 해외에서 시장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여러 외국 세력은 이미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가까운 조선에서 시장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청(淸)은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진출을 꺼려하여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내란(內亂)을 계기로 일본과 청은 마침내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은 일찍부터 근대화에 힘쓰고 있던 일본의 승리로 끝나 이듬해에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청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요동반도와 타이완 등을 일본에 할양하였으며, 3억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본의 시장이 되어 일본 상품이 대량으로 조선에서 팔리게 되었다.

러일전쟁

<전략, 러일전쟁 기술 내용>

그 뒤 조선은 일본의 마음대로 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1910년 조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을 병합하여 일본 영토로 삼았다.

### 2) 삿포로시 현용(現用)교과서, 그 기술

다음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때, 중학교에서는 2학년때 갑오농민전쟁 관련 부분을 배우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현재 삿포로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이다. 덧붙여 말하면, 새 교과서가 초등학교용은 내년도(2009검정완료, 2010채택), 중학교용은 내명년도(2010검정중, 2011채택)부터 사용된다. 사용기간은 채택한 해로부터 다음 채택까지 4년간이다.

(이하 기술 속의 < >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며, 초등학교용의 ●은 칼럼난, ▼은 주기(注記)이다. 중학교 용의 (국제)는 칼럼난, 1)과 ① 등은 주기로써 교과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 【초등학교 교과서】

『소학사회(小學社會) 6 상』 (교육출판, 2004 문부과학성 검정완료)

#### 3. 새로운 일본 만들기를 바라보자

#### 2. 두 개의 전쟁과 일본, 아시아

##### 청일·러일 전쟁

19세기 말경 일본과 중국(청)은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에서 세력을 넓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894년(메이지27년) 조선에서 국내의 개혁과 외국세력 철퇴를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청이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군을 보내자, 일본

도 그것에 대항하여 출병하여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청을 물리치고 타이완 등을 영토로 삼은 외에 거액의 배상금을 얻었습니다. 또 청에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조선에서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만, 만주(중국 동북부)에 진출하여 조선에도 힘을 뻗히려 하고 있던 러시아와의 대립이 깊어져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후략, 러일전쟁 상황 기술>

(필자주 : 이 항목과 관련하여 「조선과 일본, 청, 러시아와의 관계를 풍자하여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의 풍자화, 「청일, 러일전쟁의 전장, 일본의 전사자, 전비, 영토의 변화」라는 제목의 지도와 칼럼이 기재되어 있다.)

#### 전쟁이 끼친 영향과 조선병합

<전략,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국내의 반발이 소개되고 있다>

1910년(페이지 43) 일본은 조선▼(대한제국)인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시인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는 조선병합에 의문을 품은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일본인 아래에서 소작인으로 일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만주(중국 동북부)로 건너가 광산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국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 일본어와 일본의 지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한편 일본인 사이에서는 조선과 중국인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생각이 강해져 갔습니다.

(필자주 : 이 항목과 관련하여 「이시카와 타쿠보쿠」라는 제목의 사진과 그의 시, 「일본어로 수업을 받고 있는 조선의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의 수업 풍경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 ● 민족독립의 소망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1919년(타이쇼8) 조선에서 민족의 긍지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여 독립을 지향하는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15세였던 여학생 유관순도 이 운동에 참가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독립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 대한제국

1897년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한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 ▼ 식민지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 정치의 주권을 빼앗겨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나라나 지역

### 【중학교 교과서】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 일본의 발자취와 세계의 동향』 (제국서원, 2005 문부과학성 검정완료)

제 5장 근대 일본의 발자취와 국제사회

제2절 새로운 가치관 아래에서

4. 새로운 외교관계를 추구하며

신정부의 외교

<생략, 구미와의 불평등조약 개정 교섭과 정치기구, 산업시찰에 관한 기술>

정한론(征韓論)

신정부는 구미제국에서 배운 외교방법을 아시아를 향해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신정부는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고 했는데, 조선은 에도시대부터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sup>1)</sup>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등은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조선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 정한론을 주장하여쓰며, 사무라이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873년에 이와쿠라(岩倉)와 오쿠보(大久保) 등이 귀족하여 국내의 정비가 우선이라 하여 정한론을 억눌렀습니다. 그 때문에 같은 해 사이고와 이타가키는 정부를 떠났습니다.

1) 조선은 종래의 쓰시마번을 통한 외교를 주장하였으며,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것을 드러낸 일본의 국서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 국토와 영토

##### <전략, 청과 일청수호조규 체결 등의 기술>

그 다음해 조선 강화도 앞 바다에서 일본 군함이 조선에 무단으로 측량했기 때문에 포격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강화도 사건) 이 사건을 구실로 신정부는 조선에 대해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강요하고 항구를 개항시켰습니다. <후략, 러시아와의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 체결 등 기술>

#### 제 4절 아시아의 일본에서 세계의 일본으로

##### 1. 조선지배를 다룬 청일전쟁

##### 제국주의

##### <생략, 구미제국의 제국주의 해설>

#####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일본도 구미제국의 방법을 흉내내어 조선반도에 세력을 넓히고자 하여 강화도사건 이후 조선출병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을 세력범위로 생각하고 있던 청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과중한 세금에 더하여 흉작과 개항 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에 의한 쌀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계속 앙등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1894년(메이지 27) 서양문화(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동학)을 신앙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구미제국을 물리치고 조선의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농민군은 정부군을 격파하고 조선 남부에 세력을 넓혔습니다.

(갑오농민전쟁) (국제)

(국제) 조선의 청일(淸日) 시찰단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뒤 조선에서 일본으로 시찰단이 왔습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의 공장, 군대, 신문 등을 견학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사상의 뿌리가 깊어 서양문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에 의한 혼란도 있어서 시찰단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 청일전쟁

조선정부는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게 되어 청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청에 대항하여 즉각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조선왕궁을 점거하는 등 내정간섭을 하여 청과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7월, 풍도 앞바다의 충돌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③ 일본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파병 거점인 히로시마로 옮겨갔습니다. 청은 대국이었지만 전쟁은 근대장비가 우수한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후략,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 ③ 「청일전쟁」이라고 제목을 단 전장 지도  
(조선을 중심으로, 갑오농민전쟁도 기재되어 있다.)

삼국간섭 <생략>

2. 러일전쟁과 일본의 입장

의회단의 저항 <생략>

러일전쟁 <생략>

조약개정 달성 <생략>

3. 새로 칠해진 아시아 지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략, 일본승리가 아시아 민중에게 끼친 영향, 손문의 반청운동 소개>

한편, 일본인 사이에서는 청일·러일 전쟁 등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일본인은 아시아 속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여러나라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한국<sup>1)</sup>의 식민지화를 진행하고, 육군과 해군의 군비를 증강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 갔습니다.

1) 대한제국의 약칭으로 조선은 1897년부터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한국병합

1905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다음,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통감으로 파견하여 내정과 외교도 일본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전국토로 퍼졌으며<sup>⑤</sup>,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sup>②</sup>가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암살되는 사건(국제)도 일어났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총독부①를 두고 지배를 개시하고, 한국을 조선이라 개칭했으며, 수도 한성(현재의 서울)도 경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 대한 조선민중의 저항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① 「조선 왕궁 앞에 세워진 조선총독부 현재는 철거되었습니다」라는 전경 사진

(필자주 : 이 항복과 관련하여 ‘한국병합에 대한 노래 초대 조선총독의 노래, 이시카와 타구보쿠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를 기재)

② 「도쿄에서 촬영된 한국황태자와 이토 히로부미」라는 제목의 사진

③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조선민중의 저항운동(1906~1911)」라는 제목의 조선지도(저항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기재되어 있다)

(국제)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안중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암살자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조선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은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대륙침략을 위해 러시아 대표와 교섭하기 위해 만주의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사살했다. 안중근의 행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강한 독립정신을 잘 보여준 것이다.” 덧붙여 「우표에 등장한 안중근」이라는 제목의 우표 사진.

조선과 타이완, 만주에 대한 정책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는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역사, 지리를 가르치고 조선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소작인이 된 자,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도 있었습니다.

<후략, 타이완과 만주 지배정책에 대한 기술>

[참고]

『우리들의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

(일본서적신사, 2005 문부과학성 김정 완료)

제 4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아시아

#### 4. 조선침략과 산업혁명

조선을 둘러싼 대립

일본은 조선에 대해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뒤,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점차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일본은 조선 궁정 내의 대립을 이용하여 일본에 의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청의 세력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청과의 대립이 심해졌다. 1894년 조선에서는 일본 및 구미제국 진출, 조선정부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sup>②</sup>을 신앙하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외국 세력 축출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국에 원조를 요청하자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즉각 조선으로 출병했다.

청일전쟁

청일 양국이 출병했을 때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이미 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내정개혁안을 조선정부에게 강요하였으며, 그에 대한 회답에 불만을 품고 조선왕궁을 점령했다. 그리고 청의 해군을 공격한 뒤에 선전포고를 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중략, 청일전쟁의 결과, 타이완 식민지 지배>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조선에서는 일본공사가 조선의 황후③를 암살했지만 친일 정권을 수립하는 데는 실패했다.

▲ 「갑오농민전쟁 지도자 전봉준(사진 중앙)은 1895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체포당시의 사진

▲ 「일본군의 진로, 일본군은 히로시마 우지나항에서 출동하였으며, 대본영도 히로시마로 옮기고 의회도 히로시마에서 열렸다」라는 제목의 전장지도

② 1860년에 생긴 종교의 일종으로 서학에 대항하여 인간평등을 주창했다. 조선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③ 명성황후(민비, 1851~1895) 조선의 황후로 종종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다. (초상화 게재)

### 3) 갑오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기술에 대한 나의 평가

#### <나의 초·중학교 시대 교과서에 대해>

현재의 교과서에 비교하면, 그 기술의 양과 질 모두 큰 차이가 있어서 나의 초·중학교 시대 교과서 기술은 대단히 불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일본의 조선침략 관련 기술이 밝혀져 있지 않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용에서는 전혀 언급됨이 없고, 중학교용에서도 겨우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대의 다른 중학교 교과서에서 드물게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압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 외세 배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거기에서도 표기는 모두 '동학당의 난'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류도 있다. 초등학교용의 ‘한일병합’ 항목에서, 조선독립의 소망에 대해 “조선인들 가운데는 몰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史實)을 열거하지 않은채 공식적인 독립운동(3.1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중학교용에서는 ‘러일전쟁’ 항목에서 전쟁후 “조선은 일본의 마음대로 되기에 이르렀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후기의병 투쟁)을 왜소화하고 있다. 더욱이 그 같은 왜소화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러일전쟁 항목에 매몰시키는 데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식민지 지배 내용이나 조선민중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태도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태도는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 모두 청일전쟁을 둘러싼 조청(朝淸)관계 기술에도 들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제 2차대전 패전 후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평화주의나 국제우호는 존중되었으나, 일본이 자행한 침략전쟁의 성격 - 아시아 침략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불충분해서 아시아 관계 및 아시아 여러 나라에 관한 교과서 기술도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한국인인 나도 조선(한국)에 대한 의식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족적 콤플렉스 때문에 고통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했으니 일본인 입장에서 타당한 조선인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 <현재의 교과서에 대해>

약 반세기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기술 내용의 진전은 일목요연하다. 갑오농민전쟁 등 한일근대사를 바라보는 경우 나는 중요한 기준이 두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하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략의 주도성(主導性)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침략 움직임을 “타국으로부터 수동적 대응”이나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서 애매하게 만들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를 마치 “중국의 부속물” 또는 “주인 없는 땅”인 것처럼 주체성을 무시한 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적으로 그런 태도 역시 일본의 침략을 변명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초등·중학교용 모두 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중학교용에서는 특히 농민전쟁의 경위에 대해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일본은 조선왕국을 점령”이라고 하여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갑오농민전쟁’이라는 표기는 현용(現用) 및 다른 중학교용 교과서, 우파(右派)의 『중학 사회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종전의 ‘동학당의 난’이라는 용어는 없다. (단, 우파 교과서는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일본의 침략 주도성에 대해, 현용 교과서는 초·중학교용 모두 일본이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초등학교용), ‘체결시켜’(중학교용)로 되어 있으며, ‘한국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인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초등학교용)”, “격렬한 저항이 전국토로 퍼졌으며(중학교용)”이라고 하였고, 또 중학교용에서는 ‘정한론’과 ‘강화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능동적 책략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은 우파 교과서를 제외하면 다른 초·중학교용 교과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통되고 있다.

또 하나,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과거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현재의 대부분의 교과서도 문제를 남기고 있다. 여기서 주제인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하여 ‘청일 전쟁의 진전’이라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초·중학교시대 교과서에는 “조선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청국(중

국), 세력다툼(초등학교용)”, “천은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중학교용)” 등으로 설명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보고,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의 대립”이라는 사고방식은 과거 교과서에서도 공통되고 있으며, 일본사 역시 거의 동일했다. 현재 교과서도 “일본과 중국(청)은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초등학교용)”, “조선을 세력범위로 생각하고 있던 청과 대립(중학교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한 다른 교과서도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같은 관점이 저류(低流)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같은 관점(조선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관점-주)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그 같은 관점은 우선 조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문제가 있다. 분명, 근대 이전의 중국과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 또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종주국과 번속국)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력의 지배-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조선의 자주성 즉 내정과 외교는 간섭하지 않는 관계였다. 근현대적인 종주국-식민지 관계와는 전혀 다른 체제였던 것이다.

더욱이 이 관계는 조선이 오랜 시대에 걸친 중국의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 것이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장정책’이라 할 것이다. 조선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대국에 맞서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고도로 주체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기술을 보는 한, 과거보다 개선은 되어 있으나 조선의 내실(內實)과 주체적 움직임은 의식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도 없다. 그 때문에 조선을 중국의 “일부 또는 그에 속한 부류”라 하여 자립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은 채, 일본과 중국의 대국간 전쟁으로, 마치 동등한 입장의 식민지쟁탈전과 같은 기술이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행위가 중국과의 대비 관계로 초점이 벗어남으로써 일본의 침략성이 희미해지고, 그와 더불어 일본의 대국화(大國化)를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성, 제국주의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만드는 데 연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조선의 주체성과 역사적 사실의 추이를 직시하게 되면, 청일전쟁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조선 탈취를 향한 침략, 그 연장선으로써 중국과 충돌”이라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필자주 - 위와 같은 나의 지적의 구체적 표현이 [참고] 로 실은 일본서적신사관 중학교 교과서 기술이다. 이 교과서는 각 항목에 걸쳐 일본의 침략주도성을 명시하는 기술로 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에 대해서도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패권쟁탈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교과서는 현용 교과서 채택 당시 후보 8개사 가운데 나의 평가로는 제1위, 제국서원 판은 2위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청일전쟁 관련 기술과 인식 속에 일본사회의 조선에 대한 부당한 경시의식, 일본에 대한 대국의식이 감추어져 있다.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의 결락(缺落)에 대해, 청일전쟁 관련 기술이 지닌 문제점을 서술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사회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청일전쟁이야말로 근대일본의 조선 및 아시아에 대한 최초의 침략, 제국주의 전쟁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해와 자리매김이 불충분한 것이 현재 일본의 대(對)조선, 아시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3.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와 동아시아의 평화, 한반도 통일

이번 국제학술대회 목적은 「동학과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 통일」과의 관계성에 있다. 나는 동학에 대해 문외한이자,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도 너무 광범위하여 동학이 낳은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와 그 의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조선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속의 갑오농민전쟁에 관련한 청일전쟁 기술에서 조중관계를 예로 들어 조선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가 불충분함을, 그리고 일본의 침략성 인식의 불철저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은 교과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있다. 내 주변의 시민사회운동 사람들, 유식자들도,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조차 조중관계에 대해서는 의식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아마도 일본 전국의 연구자나 학자들도 그러한 시야(조선의 주체성-주)를 가진 사람은 극히 적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은 불충분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일본사회를 리드해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조선 인식의 미약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청일전쟁에 관련된 조중관계 인식의 미약”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일본사회가 조선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것이 미약하다”는 것을 자각해 주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을 좀 더 깊고 진지하게 주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사회는 일본이 자행한 침략에 대한 인식도,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도 과거보다는 진전하고 있다. 앞에서 교과서 기술을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조선민중의 저항과 투쟁도 명시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과 조선의 양자 관계가 명확한 경우로써 일본이 한 편의 당사자(가해자)이면 그 구도는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 민중들의 투쟁, 양심적 일본인들의 지원을 포함한 국제 여론의 압력이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둘러싸고”와 같이 제 3자가 관련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반복되지만, 현재 교과서 기술에는 과거보다 다소의 진전은 있으나 “일본과 중국의 대결, 뒷전으로 밀려난 조선”이라는 도식은 변함이 없다.

일본은 대국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그 승리에 의식을 빼앗겨 기본적으로 청일전쟁이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다. 중국이 관련됨으로써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는 약해지고, 일본의 침략행위는 애매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사회에 변함없이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의 대국이 되었다”라는 막연한 인식이 농후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함없는 일본사회의 증좌로 작년(2009)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NHK가 드라마화하여 방영한 문제가 있다. 『언덕 위의 구름』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가는 과정을 청일, 러일 전쟁을 무대로 묘사한 것으로써, 조선침략과 식민지화를 합리화하고 청일, 러일 전쟁을 ‘방위전쟁’이라고 합리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 자국(自國) 찬미로 장식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시민운동은 역사인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국민작가’인 시바료타로와 공공방송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비판활동을 하고

있으나 NHK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속편을 올해와 내년에 방영 예정)

시바는 실은 말년에 조선과 아시아관을 수정하였는데, 그러한 변화된 의식 때문인지 그는 생전에 자기 소설의 영상화를 계속해서 고사했었다. 그럼에도 그는 '시바사관(司馬史觀)'이라고 일컬어진 "쇼와시대(~1945)의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메이지시대(~1905)의 일본을 찬미하는" 역사인식을 고집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유사형태(메이지시대에 대한 동경, 구미열강의 압박을 배제하고 근대국가를 형성)는 일본사회에 이미 존속하고 있으며, 금후 증폭되어 갈지도 모른다. 왜냐면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일본의 침략-전쟁책임에 대해서는 불충분해서 자각(自覺)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대상(代償)하려고 하는 '일본의 국민의식'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일본의 침략, 제국주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기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확실한 반성의식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요점으로써 청일전쟁(러일전쟁도 포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역사학, 정치학에서는 구미 학문의 영향 탓인지 '탈식민화'라는 테마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탈제국주의화'일터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일본의 근대화 형성기=제국주의 국가화"가 문제시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조선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 2)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자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문제인데, 나는 전자에 주요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한 문제가 두 가지 있으며, 하나는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다툼,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분단에 따른 대립과 긴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일본이란 존재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해 일본에게 바라는 것은 일본이 통일을 저해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것,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 등이다. 그것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며,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총괄이 요청된다. 역사 문제에 대한 총괄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책임 인식이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며, 조선에 대한 주체적 이해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 같은 역사적 사례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청일전쟁과 청일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그 단서가 바로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의 진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사회에 있어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첫째, “민중 자신에 의한 독자적이며 거대한 조선근대화 노력이 있었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아시아 근대화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며 성공했다”는 사치가 내재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는 근대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희박하다. 갑오농민전쟁을 이해하는 일은 자국의 근대화 추진방법(메이지유신과의 비교 등)이 지닌 문제성을 이해하는 데 연결되며, 무엇보다도 조선근대사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단정지어온 ‘정체·타율성 사관’을 배격하고 조선에 대한 주체적 이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 조선 민중과 주변국의 근대화를 압살한 것이 바로 일본의 침략이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식민지 지배 이전 시기의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 근대화의 분기점이 된 갑오농민전쟁 진압에 대해서는 의식되지 않고 있다.

갑오농민전쟁이 조선근대사상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그 진압실태를 이해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문제점이 더욱 깊게 이해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일본사회에서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지금까지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에 관한 집필, 강연 등에서 의식적으로 갑오농민전쟁을 다루어 왔으며, 특히 ‘한국병합 100년’의 해인 올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운동 강좌에서 그 역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들 민족운동, 시민운동이 아직 힘이 약한 탓인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의식과 이해는 부족하다. 이번에 현용(現用) 교과서를 조사하여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게 되었지만...”이라는 생각에 조금 놀랐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일본사회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과 새로운 성과가 나왔다.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100년이 되던 1995년 7월 26일, 홋카이도 대학 문학부의 표본고에서 조잡하게 방치되어 있던 6구의 두골(頭骨)이 발견된 사실이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6구 가운데 1구가 갑오농민전쟁 지도자의 유골(“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쓰여 있었다)임이 알려져 즉각 홋카이도대학 당국과 삿포로시의 진상규명 시민운동단체(필자도 공동대표)와의 교섭이 개시되었으며, 또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진상규명과 유골봉환을 강력히 요청, 1996년 5월 30일에 유골은 한국으로 봉환되었다.

이 같은 경위를 통해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재일동포, 아이누 민족을 포함한 일본측 시민운동, 박맹수 교수 등 한국측 관계자 간의 교류가 계속되었으며, 그 같은 성과의 하나로 2007년에 저널리스트하면서도 흥미깊고 거기에 전문적인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100년』(전북일보 연재기사의 단행본)의 일본어판이 간행되었다.

또 홋카이도대학 ‘인골문제 조사위원회’위원이었던 이노우에 카츠오(井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上勝生) 명예교수는 일본측 진압부대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소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한국측 연구자와 공동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측에 한정되어 있던 갑오농민전쟁 연구가, 다른 한편의 당사자인 일본측도 함께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에 갑오농민전쟁 전체상 해명을 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일본 전체의 관심과 이해는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써, 향후 한일의 연대와 교류를 심화시켜가면서 노력해 간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동학학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010년 10월 14일 박맹수 번역)

◇ 제4주제

Self and *Jigi*<sup>1)</sup>(至氣, Ultimate Energy)

: Individual and Entirety in Donghak Thought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박소정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Donghak<sup>2)</sup> is widely marked as the first indigenous religion to Korea  
a. I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at the shift period of modernization  
was enormous, as generally acknowledged<sup>3)</sup>. The Donghak followers pl  
ayed a key role in a series of revolutionary movements<sup>4)</sup> against social

- 
- 1) In this paper, the transliterations of Korean terms are based on Revised Romanization of Korean (abbr. RR), which has been officially used in South Korea sinc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released to the public in 2000. However, the system commonly used for Korean transliterations in Western scholarly community is McCune-Reischauer system (abbr. MR). Most publications of introducing Korea also follows MR up to recently (e.g. Ch'oe ed. 2000, Buswell Jr. ed. 2007, and Baker 2008), while the domestic journals published in English currently adopt RR, e.g. *Korea Journal* an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Even worse, in the earlier literature, the transliterations of the terms show more variations on one's own authority. Therefore, although I hold RR for my transliteration in this paper, I leave the original transliterations in quotation untouched, and I will also provide some variations as well as MR.
  - 2) Donghak is translated commonly into "Eastern Learning" and occasionally into "Eastern Philosophy." It is transcribed into Tonghak (MR), and sometimes Tong-hak.
  - 3) See Weems (1964).
  - 4) "A series of revolutionary movements" not only refers to "Donghak movement" in 1894 but also means all sorts of social movements started or led by Donghak and Cheondogyo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such as March First movement (also Samil Movement), Children's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and economic injustice and foreign domination<sup>5)</sup>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Donghak movement<sup>6)</sup> has been highly valued in that it shows a spontaneous response from the people at the lower level of society to the intellectuals as well as an independent resistance against foreign influence.

However, the core thought of Donghak remains complicated and its nature as a religion is also elusive. The first thing that makes us be in confusion and miss the point is related to its syncretic characteristic. The conventional phrase for Donghak, most Koreans have repeatedly heard about this religion in school history, is 'a synthesi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This negligent explanation often frustrates our motivation to explore the own nature of Donghak and urges us to regard it as a mixture of all kind of traditional thought. The other reason why Donghak is even now struggling to establish the religious identity is linked to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Cheondogyo<sup>7)</sup>, the modernized version of Donghak, could not completely take over the predecessor's right although it is the oldest indigenous organized religion<sup>8)</sup> of Korea as well as the only legitimate successor of Donghak. Few Koreans

---

movement, Women's movement, and Publishing movement etc.

5) See Choe ed. (2000: 261)

6) How to define the Donghak movement is still pending among Korean historians. The historians who pay attention to its revolutionary feature and of a stratum of the main group tend to call it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is generally used nowadays. On the other hand, some historians who want to emphasize the political strife between classes are inclined to call it "Gabo Peasant War" stripping off the label of "Donghak," and instead adding up a numeral 1894 or the traditional name for the year, Gabo, which means the 31<sup>st</sup> binary term of the sexagenary cycle. The term, Donghak movement, is on neutral ground between them and, at the same time, implies it continued on the succeeding movements as mentioned above. The terminology is varied in different literature, e.g. Donghak uprising, struggle, demonstration, and rebellion etc.

7) Cheondogyo is translated into "Religion of Heavenly Way." There are other transcriptions, i.e. Ch'ondogyo (MR), Chondo-gyo, and Chondogyo.

8) See Baker (2007: 449). As for "organized religion," he enumerates some requirements such as "canonical texts," "standardized procedures," "clearly defined hierarchy of those ritual specialists," and "permanent building" etc.

are ignorant of Donghak but only a few Koreans are aware of Cheondogyo.

The history of Donghak is curved, indicating the unbelievably striking growth at the beginning and the incomprehensible declination of religious influence in the post-colonial era. Kirsten Bell brings forward an interesting observation on it. She takes notice of the contrast between Cheondogyo's prominence in government-sponsored publications and the general ignorance among the public. She argues that Cheondogyo's lionization in state and nationalist discourses, ironically, has been detrimental to the religion itself. Sh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onghak Revolution may have "made" Cheondogyo into a key historical artifact but it has simultaneously been "unmade" as a religious movement with any real relevance to the present<sup>9)</sup>. Her analysis successfully seizes the intricacy of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 over Donghak/Cheondogyo, but the essential question still remains unsettled. What makes Donghak be able to be Donghak?

The existing general introductions on Donghak/Cheondogyo mostly provide us only with contour-chasing description from the observer's viewpoint at a distance. Although a few recent researches show the concern about Donghak's own nature<sup>10)</sup>, but more researches still convey superficial observations, what is worse, which are often full of mistakes<sup>11)</sup>. On the one hand, the researches which overemphasize the Dongha

9) See Bell (2004).

10) "The Ch'ondogyo concept of God is also distinctive. The God of Ch'ondogyo is neither a supernatural personality like the God of Christianity nor an impersonal metaphysical concept like the absolute of Neo-Confucianism. Rather, Hanullim is something in between." (Baker 2007: 450); "The new religion was eclectic...But it was not simply a hodge-podge of Chinese and Korean notions of spirituality; the power of Ch'oe Cheu's mystical vision infused these various elements with new meaning and bound them together in a coherent whole." (Ch'oe 2000: 228)

11) We even now face at preposterous statements such as 'Ch'oe Sihyŏng is the nephew of Ch'oe Cheu' (Grayson 2002:198) and groundless views such as "Ch'oe's experience was wholly shamanistic in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k movement never give attention to Donghak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s which provide a general understanding on Donghak often reveal overall ignorance on their subject-matter. Our question is never answered yet. How do we penetrate into the heart of Donghak? There is a need for another approach to explore Donghak from a different angle.

To answer to the question of Donghak's own nature, it should be clarified before everything else how the relationship of two key terms 'self' and '*Jigi*' (Ultimate Energy)<sup>12)</sup> has been understood in the Donghak thought. It is because Donghak originated from Choe Je-u (1824 - 1864)<sup>13)</sup>'s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nature of this experience is revealed into the encounter of Choe Je-u himself and God, appeared as *Jigi*. In addition, as we will see, the Donghak's development is relat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self.' Although Donghak has been successfully evolved since its birth in 1860, its teaching has always been pivoting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entirety.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the most pivotal matter of Donghak thought, i.e., the problem of self and entirety. I will argue that Choe Je-u experienced an awakening of the self in a totally different way that Korean had ever had before this concept of self brings each believer to each one's sense of self-awakening as a result, it triggers and sustains a series of the nation-wide revolutionary movements.

My methodology to prove the above hypotheses sets two points forth

---

character" (Grayson 2002: 200) in a common introduction to Korean Religion. What is more, we often find an absurd mistake such that Ch'oe Sihyöng preached "In Nae Ch'ön," which is in fact Son Pyönghui's own term, even in the book describes Donghak as an original thought.(Ch'oe 2000: 229)

12) Chiki (MR), Chi-keui: 'Ultimate Energy' is a literal translation. It is also regarded as Entirety, Ultimate presence, and God.

13) Choe Je-u(a.k.a. Suun) is also transliterated: Ch'oe Che'u (MR), Ch'oe Cheu, Choe che-u, Choi Je Woo

h as premises, which are prone to be overlooked. The first point is the fact that Donghak was not only introduced and developed by Choe Je-u but has also been transformed and enhanced<sup>14)</sup> through two main spiritual figures, Choe Si-hyeong (1827 - 1898)<sup>15)</sup> and Son Byeong-hui (1861-1922)<sup>16)</sup>. The second point is that the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Donghak should be reoriented from defining Donghak with existing terms toward discussing the heart of the thought in its own context. Therefore, I will refer to the phases enriched by its successors as well as the original idea of the founder so 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entirety in Donghak. Besides, I will concentrate on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 of fundamental thought of Donghak, instead of distracting my attention to answer any collateral question.

This paper is constructed as the following. First, I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oe Je-u's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Donghak incantation, which resulted from the experience. By doing so, it will be clear why his awakening was so unique i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Second, I will examine how Choe Je-u's message was transformed and extended by Choe Si-hyeong and how it could transfigure each individual follower. Third, I will explore the dramatic change of the standpoints on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entirety between Choe Si-hyeong and Son Byeong-hui and argue that Son's choice was the inevitable option as a religious leader in the transition period of modernization.

### The Characteristic of Choe Je-u's Revelation and Donghak Incantation

14) Kim Yonghwi fairly holds this position. (Kim 2005: 11) My paper owes this point to his research.

As for the development of Choe Je-u's own religious experience, see Kim (2005: 34-37)

15) Choe Si-hyeong (a.k.a. Haewol): Ch'oe Sihyŏng (MR), Ch'oe ShiHyeong, Choe Sihyung, Choi Si-Hyung, Choi Shi Hyung

16) Son Byeong-hui (a.k.a. Uiam): Son Pyŏng-hŭi (MR), Son Byunghee, Son Byong-hi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n, *Jumun*

Choe Je-u described his revelation both in Chinese and Korean. To comprehend his intention,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linguistic situation in those days. There was an extraordinary gap between the spoken language<sup>17)</sup> and the written language in pre-modern Korea. Although the Korean Alphabet system, Hangeul, was created by King Sejong (1397-1450) in 1443, thereafter up to the late 20<sup>th</sup> century, the intellectuals wrote their thoughts as before in classical Chinese style and with Chinese ideographs, Hanmun. Therefore, even at the time of Choe Je-u, Korean people were still using the two-fold writing systems, Hanmun and Hangeul. The classical Chinese was only used for writing, not for ordinary conversation, but dominantly used for literary purpose among the intellectuals. Compared to Hanmun literature, Hangeul literature was produced among the lower classes, small in number, and less refined, but reflected the rhythm of vernacular Korean speech and delivered everyday conversation. It was rare thing that a well-educated intellectual produced Hangeul literature in Joseon Period. Nevertheless, Choe Je-u was fully aware of the merits of Hangeul literature with all his knowledge of classical Chinese.

*Donggeong Daejeon* (lit. Great Collection of Eastern Scriptures)<sup>18)</sup>, the completed works of the well-organized essays, was written by Choe Je-u in classical Chinese so as to explain Donghak's teaching systematically and by doing so to persuade the intellectuals. While *Yongdam Yusa* (1

---

17) Before the mid 15<sup>th</sup> century, Korean had used archaic writing systems to record what they spoke, e.g. Hyangchal (lit. vernacular letters) and Idu (lit. civil-servant graphs), which adopted some Chinese characters to express Korean syllables.

18) Kim Choon Sung translates it into "Eastern Great Scripture"(Kim 2002) : Baker "a collection of canonical writings by Ch'oe Cheu" (2007:449)

it. Memorial Songs of Yongdam)<sup>19)</sup>, an anthology of popular-style songs with four-foot in a verse, was written in vernacular Korean for the general public's full understanding. In the two different scriptures, the Ultimate is called by different names. In the texts written in Chinese<sup>20)</sup>, the two established Chinese terms are used for denoting the Ultimate presence: One is a Sino-Korean term, *Sangje* (The Lord above) the other is an adopted term from Catholicism, *Cheonju* (the Lord of Heaven). However, they are only translation in a sort from Korean concept into Chinese character so as to get matched to Chinese text<sup>21)</sup>. In the texts written in Korean, e.g. *Yongdam Yusa*, they are replaced by a native Korean term, *Hanullim*<sup>22)</sup>. Therefore, I will use the term *Hanullim* to refer to the Ultimate in Donghak if it is not necessary to make an additional remark.

Choe Je-u was a frustrated intellectual by the distorted caste in Joseon period<sup>23)</sup>. He observed the miserable state of the people under the corruption and incompetence of Joseon government and was filled with anxiety about the critical phase of his country to be getting the b

---

19) Shin translates it into "Posthumous Songs of Yongdam" (1979:19)

20) The texts include not only *Dongyeng Dageon* but also the other Scriptures such as *Haewol Sinsa Beopseol* and *Uiam Seongsa Beopseol*.

21) Baker argues that *Hanullim* was only the vernacular translation of the term *Cheonju* rather than *Cheonju* was a Chinese translation of the indigenous term *Hanullim*. He insists that "*Hanullim* appears only in the few vernacular documents Ch'ondogyo began producing from the early 1880's." (Baker 2002 p.127) But *Dongyeng Dageon*, where 'Cheonju' appears, was published in 1880 and *Yongdam Yusa*, which is the "vernacular documents," was successively published in 1881 both by Choe Si-hyeong. Considering the poor publishing condition of those days, two publications should be regarded as almost simultaneous events. It is not plausible to believe that *Hanullim* was the translation of *Cheonju*.

22) Fortunately, in MR as well as RR, the transliteration of *Hanullim* is the same.

23) Choe Je-u was a son of a remarried widow, which barred him from applying for a civil official under the examination system of Joseon period. Nevertheless, his father, a reputed scholar Choe Ok, felt special affection for his intelligent son begetting in his later years and so educated his son to complete Confucian cultivation. This estrangement between his ability and social restraints made Choe Je-u unsettled although his father left an enough inheritance to make a living.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attlefield of the World Powers. He ranged over all sort of teachings and went around all over the country but could not find the solution. The revelation happened to him during the retreat when he came back home after all his academic and practical efforts had come to nothing. According to Podoekmun (On Propagating Virtue)<sup>24</sup>, Choe Je-u heard the voice of Heaven with severe trembling. I cite the experience for the sake of argument in spite of its length.

*Then a totally unexpected event occurred one day in the fourth month of that year. <sup>25</sup> All of sudden a chill came over my heart and my whole body shivered. It was as if I had abruptly fallen ill, but I couldn't tell what sort of illness had attacked me. Then my ears seemed to pick up a strange voice.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closest I can come to describing it is to say that it sounded like the voice of one of those immortals who lives deep in the mountains. I was frightened and asked, "Who are you?" An answer came back, "You don't have to be afraid. I am the one whom human beings call the Lord Above (Sangje). Don't you know who the Lord Above is?" Startled, I asked why he was talking to me. He replied, "So far I haven't been able to accomplish all that I have wanted to accomplish. Therefore I have sent you into this world so that you can teach human beings the right way to do things. So cast all fear and doubt aside and listen to me. I then asked, "Do you want me to teach people the Western way of doing things?" He replied, "No, not at all. I have a talisman that is called the 'medicine of the mountain immortals.' ... Take this talisman and use it to heal people of the various diseases that afflict them. Also, I am giving you an incantation of mine that I want y*

---

24) This experience is rephrased over and over again in the various chapters of the Donghak Scriptures: "Nonhakmun" (On Learning Truth) in *Dongyeng Dageon* "Gyohunga" (Song of Instruction), "Ansimga" (Song of Comfort), and "Yongdamga" (Song of Yongdam) in *Yongdam Yusa* etc.

25) It was the 5<sup>th</sup> of April, 1860.

*ou to use to teach human beings on my behalf. If you do this, you will live a long life and will propagate virtue all over the world."* 26)

Although he was completely healed of illness after he followed the voice's i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was too real for him to deny, he over and over again doubted the truth of what he attained. Because the experience was not found in any teachings he had ever accessed to and the voice straightforwardly had rejected his attempt to find a clue from the new religion, Catholicism, he could not know how to cope with the revelation. After almost one year's reflection and verification<sup>27)</sup>, he convinced himself of the revelation and established Donghak's incantation and composed Donghak's scriptures<sup>28)</sup>. When he came to understand his revelation at length, the message of Hanullim was rephrased into "My heart/mind is nothing but your heart/mind."<sup>29)</sup> It seems to be a slight difference but a significant change. Hanulim was still talking to him and he was hearing the voice but in the end he was aware that the voice was not different from the voice inside Choe Je-u himself. Hanullim is not a commander in heaven above but stays in us.

26) I quote Baker's translation here. (Baker 2007: 456) Although his translation seems to be too free, it is readable and a product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s well. The original text is quoted from "Podeokmun" (布德文, On Spreading Virtue) in *Donggeong Daejeon*.

27) It is said that his religious experience lasted all through the period. The traditional Korean calculation inclines to count a year on the basis of four-season-unit, that is to say, taking spring as the beginning and winter as the end, while Western calculation tends to count a year in full. Suppose that one had experienced something in this April and it had now been in November after several months had passed since then, Korean might have said 'almost one year,' while a Westerner 'seven months.' Therefore, the time he indicated with "almost one year" in Nonhakmun is most likely sometime at the end of that year. Yi Don-hwa reported that Choe Je-u entered on a new phase on 20<sup>th</sup> of September of that year after continuous conversation with the Ultimate. (See Kim 2005: 35) If it is the case, the incantations would be produced after 5 months and more.

28) See "Nonhakmun" (On Learning Truth) in *Donggeong Daejeon*: "吾亦幾至一歲, 修而度之則, 亦不無自然之理, 故一以作呪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

29) Ibid. "吾心卽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How can a being be existent inside, and be existent outside at the same time? The key to the mystery of Hanullim is *Jigi*.<sup>30)</sup> It can be tentatively put into "Ultimate Energy" but the meaning of *Jigi* is even broader and deeper than that. *Ji* means 'ultimate'<sup>31)</sup> and *gi* is "the matter and energy out of which the universe is constructed" but has "creative and controlling powers."<sup>32)</sup> *Gi* is the energy to form the entire universe and at the same time to form each individual person. Each of us is 'of' as well as 'in' Hanullim, Ultimate Energy, if only one accomplishes one's own *gi*, in that one's *gi* as an entity and *Jigi* as Entirety are not distinguished in nature. Due to the absence of the mind-body dualism in Asian context, the flow of *gi* is revealed to be the mental as well as the physical functions of all sorts. Therefore, the pivotal point of the revelation here is not just to understand what *Jigi* is, but to communicate with it, to possess it, and to let it alive in oneself.

*Jigi* is a crucial component in the Donghak incantation, *jumun*. There are three kinds of Donghak incantations left, being known as Choe Je-u composed after his revelation.<sup>33)</sup> There are the Master's incantation, *Seonsaeng jumun*, and the Disciple's incantation, *Jeja jumun*.<sup>34)</sup> The latter is

---

30) In Chinese, "qi (氣)" is equivalent for Korean term "gi." *Jigi* is also rendered into "Vital Energy."

31) *Ji* also means "to reach." One can see "*Ji*" in Asian context implies the final result of a long series of efforts or events rather than something "fundamental" or "supreme" beyond ordinary events.

32) Here I borrow Baker's explanation of *gi*. (Baker 2007: 450-451) On the whole, I appreciate his point that Donghak borrows those two meanings of *gi*, the matter and energy, from Neo-Confucianism but adds to them those new meanings, the creative and controlling powers. However, I do not entirely agree with him from the point that "gi" is not only a Neo-Confucian term but also an enduring term retroactively to Daoism in pre-Qin period."

33) There is another 14-syllable incantation recited by the Cheondogyo believers these days: Sin-sa Yeong-gi A-sim-jeong Mu-gung Jo-hwa Geum-il-ji. (The Spiritual Master's divine energy makes my mind/heart settled. May the infinite creation come to me today) It was proclaimed by Son Byeong-hui as the occasion demand in 1911 and its current usage is limited to Sunday evening prayers.

34) Baker presents four incantations now in use: the 21-syllable, the 8-syllable, the 13-syllable, and the 14-syllable incantation as mentioned above (Baker 2007: 457-458), instead of introducing the Master's incantation and the Beginner's incantation. However, since the 21-syllable is in fact the combination of the 8-syllable and the 13-syllable, it turns out that he suggests only two kinds of incantations, the

once again divided into two, one for beginners and one for regular members. These diverse incantations reflect his prudential revisions in the early stages of revelation, while only the Disciple's incantation for regular members is widely recited now. In Choe's Scriptures, the incantations are referred to as "three-seven syllables (viz. 21-syllable)" or "13-syllable." The 21-syllable incantation is the extended form of the 13-syllable incantation by adding up the 8-syllable incantation in the front. The main incantation is the 13-syllable incantation, which is called *Bon jumun* (Main incantation).<sup>35)</sup> The 8-syllable incantation, which is called *Gan gnyeong jumun* (Spiritual incantation),<sup>36)</sup> is not independently recited but joined to the 13-syllable incantation for the purpose of praying the descent of Spirituality. *Jigi* appears in the 8-syllable incantation. Analyzing the variation between the two early incantations and the established regular incantation, one can see how the relationship of *Jigi* and self was transformed. The following are the incantations<sup>37)</sup> in the supposed order in which they were produced. The 21-syllable does not mean that its recitation has 21 beats. When the 21-syllable incantation is recited, it has generally 12 beats as you see in the below tables.<sup>38)</sup>

---

21-syllable and the 14-syllable; otherwise three kinds of incantations, the 21-syllable, the 13-syllable and the 14-syllable, because the 8-syllable is not an independent incantation.

35) Baker puts it into "Sacred incantation." (Baker 2007:460)

36) Baker puts it into "the incantation for inviting the descent of the Divine Presence" *ibid.*

37) For reference, here I present the Chinese characters of those incantations.

[先生呪 降靈呪 至氣今至四月來 本呪 侍 天主令O我長生無窮無窮萬事知

[弟子呪 初學呪 爲天主顧我情永世不忘萬事宜

[弟子呪 降靈呪 至氣今至願爲降 本呪 侍 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38) When only the 13-syllable is recited, the tempo of recitation becomes much slower into 32 beats (or sometimes 16 beats) and the rhythm is also varied. Refer to the below table.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Master's incantation (7-syllable +14-syllable = 21 syllables)

Spiritual	^Ji	Gi	^Geum	Ji	^Sa	Wol	^Lae	~
Main incantation	^Si	~	^Cheon	Ju	^Yeong	A	^Jang	Saeng
	^Mu	Gung	^Mu	Gung	^Man	Sa	^Ji	~

Disciple's incantation for beginners (13-syllable)<sup>39)</sup>

	^Ji	Gi	^Geum	Ji	^Won	Wi	^Dae	Gang
Main incantation	^Wi	~	^Cheon	Ju	^Go	A	^Jeong	~
	^Yeong	Se	^Bul	Mang	^Man	Sa	^Ui	~

Si	-	Cheon	-	Ju	-	-	-	Jo	-	hwa	-	Jeong	-	-	-
Yeong	-	Se	-	Bul	-	Mang	-	Man	-	Sa	-	Ji	-	-	-

The different tempos may be related to the different uses between the 21-syllable and the 13-syllable incantations: the 13-syllable is generally chanted by congregation during various rituals; the 21-syllable is mostly chanted during spiritual training.

39) There is no established English translation of the Donghak incantation yet. For reference, here I present some translations from the published materials. The following is of the beginner's incantation. "I pray to God to look to me. If one remembers God forever, all will be realized" (Shin 1979:15)

Disciple's regular incantation (8-syllable + 13-syllable = 21syllables)<sup>40)</sup>

Spiritual incantation	^Ji	Gi	^Geum	Ji	^Won	Wi	^Dae	Gang
	Ultimate Energy		Be now and here		Pray to be/ask for		(Jigi) be within me	
Main incantation	^Si	~	^Cheon	Ju	^Jo	Hwa	^Jeon	~
	Bearing/Serving		The Lord of Heaven		Transformation		Tranquil/balanced	
	^Yeong	Se	^Bul	Mang	^Man	Sa	^Ji	~
	Through all ages		Don't forget		All affairs		Be aware of	

I shall begin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ster's incantation and the regular Disciple's incantation. There are three modifications: 1) 'Sa-Wol-Lae' to 'Won-Wi-Dae-Gang' 2) 'Yeong-A-Jang-Saeng' to 'Jo-Hwa-Jeong' 3) 'Mu-Gung-Mu-Gung' to 'Yeong-Se-Bul-Mang.' First, 'Sa-Wol-Lae' means '(Ultimate Energy) visited me in April' while 'Won-Wi-Dae-Gang' means 'I pray that (I realize) the Ultimate Energy within me.' Second, 'Yeong-A-Jang-Saeng' means '(Hanullim) let me live long' while 'Jo-Hwa-Jeong' means 'to be tranquil in the Transformation.' Third, 'Mu-Gung-Mu-Gung' means 'forever and ever' while 'Yeong-Se-Bul-Mang' means 'constantly aware of (Hanullim within me).' As the Master's inc

40) Baker's translation is all of the 21-syllable, while Shin's one is only the part of the 13-syllable. "Ultimate Energy being all around me, I pray that I feel that Energy within me here and now. Recognizing that God is within me, I will be transformed. Constantly aware of that divine presence within, I will become attuned to all that is going on around me." (Baker 2007: 450); "Serve God and creation (chohwa) will be tranquil (chông). If one remembers God throughout one's life all will be realized." (Shin 1979:15)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antation is what Choe Je-u first received from Hanullim, it is full of jubilation in awakening from hi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regular Disciple's incantation is what he revised later on the purpose of awakening people in general and at the same time it reflects his transformed understanding of Hanullim. The notable change is the disappearance of the 'self'<sup>41)</sup> in the revised version. The 'A' (self) was the subject to converse with and receive *Jumun* from Hanullim in the first version but ceases to exist in the regular Disciple's incanta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Beginner's incantation<sup>42)</sup> and the regular incantation tells us the same thing. The existing gap between the self and *Jigi* in the Beginner's incantation vanishes in the regular incantation. There are also three places of alterations: 1) 'Wi-Cheon-Ju' to 'Si-Cheon-Ju' 2) 'Go-A-Jeong' to 'Jo-Hwa-Jeong' 3) 'Man-Sa-Ui' to 'Man-Sa-Ji.' In the first case, the difference is in between 'Wi' and 'Si.' According to Choe Je-u, 'Si' is the state of both internally bearing the Divine spirituality and externally being aware of connecting energy and thus once each person realizes Hanullim within himself, nobody is able to take away from him.<sup>43)</sup> On the other hand, 'Wi' means 'to respect' or 'to do in behalf of' and the state of 'Wi-Cheon-Ju' is that I am still I myself and Hanullim is over there as the object of my worship. In the second case, 'Go-A-Jeong' means '(I pray to Hanullim) to look after m

---

41) Although in the above translation I supplement the 1<sup>st</sup> person pronouns to meet the grammatical needs of English language, in Korean context, the 'A' (self) ceases to exist in the regular Disciple's incantation.

42) It is unknown exactly when the Beginner's incantation was composed and how it was employed in early Donghak history. Most probably it might not join to the 8-syllable Spiritual incantation, as beginners could not be immediately ready to invite the Spiritual power. Currently, it has a temporary use: It is recited by people who come to believe in Cheondogyo only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Shin believes that the Beginner's incantation is the earliest extant version and the Regular incantation is the revised version. (Shin 1979: 14-15)

43) "Nonhakmun" (On Learning Truth) in *Donggeong Daejeon*: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y feeling,'<sup>44)</sup> while the 'A'(self) is gone in the regular incantation. We can also see a distance between Hanullim and the 'self' in this phrase. The different part of the third case is only one letter 'Ui.' 'Man-Sa-Ui' means '(I pray) everything will be suitable' while 'Man-Sa-Ji' means '(I pray) I will be aware of all around me.' There is a transition from 'my own angle' to 'all angles around me' between two incantations.

The transformation from two early incantations to the regular incantation does not imply 'a mere loss of self' but 'a new recognition of self' as Hanullim alive within me by experiencing *Jigi*. The significant point is that Choe Je-u's awareness of 'self' as Hanullim could be developed into the more mature awareness of everybody as Hanullim since *Jigi*, the nature of Hanullim, is internally and externally connecting energies and we all share *gi* so a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For that reason, Choe Je-u's teaching is unwitnessed by any narcissism unlike most founders of a new religion thereafter. He never even taught the Donghak followers to believe in the founder of Donghak<sup>45)</sup> himself, but instead told the followers, "never believe in me but only believe in Hanullim. While Hanullim resides within you yourself, how come are you abandoning the familiar but pursuing something far off?"<sup>46)</sup> He was fully aware of his role as the sender of a salvational message,<sup>47)</sup> but he was also aware that he was not the only person selected by the grace of God but everybody was bearing Hanullim within one's own. A way to

---

44) Note that the meaning of 'Jeong (情)' here is different from the 'Jeong (定)' in the regular incantation. The former means mostly 'feeling' or 'emotion,' sometimes 'mind/heart,' and occasionally 'situation.'

45) It is general to preach 'believe in the founder' regardless of new religions or major religions. Referto The Acts.16:31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46) See "Gyohunga"(Song of Instruction) in *Yongdam Yusa*

47) See "Ansimga" (Song of Comfort) in *Yongdam Yusa*: "Hanullim produced me to preserve our country from misfortune"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be accord with *Jigi*, Ultimate Energy, is nothing but rectifying one's own *gi*.<sup>48)</sup>

Choe Je-u's revelation is characterized by three points as the following: Firstly, the religious experience visited with him in the midst of self-discipline after more than ten year's pilgrimage. Secondly, it was an encounter with Hanullim as the other, i.e. his revelation was not a consequence of his original purpose but an unexpected event. Thirdly, as we have seen in the consummated incantation, he took divinity seated in everybody regardless of age or sex. The final point makes Donghak be indeed unparalleled i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The intellectuals never tried to break down the distinction of classes in actual way even if they might assume human dignity in principle and the unlearned had no ability to attest their own dignity until Donghak revealed everyone's divinity.

From the second and the final point, it is clear that Donghak is neither Buddhism nor Confucianism nor any other religion. In the primitive Buddhism, the Ultimate is Dharma, the principle of the cosmos, not a personal presence to talk to us; in the vernacular Buddhism which was popular in Joseon period, a Buddhist is relieved through the benevolence of Buddha. None of them is in accord with Donghak thought. As Baker reasonably points out,<sup>49)</sup> the Ultimate Energy of Donghak is not the same as the Neo-Confucian absolute either. Besides, the God of Catholicism is a commander and a creator to human beings but the Hanullim of Donghak is growing together with the spiritual growth of each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

48) Baker translates one's own *gi* into one's "psycho-physical endowment."

49) See Baker (2007: 450): "Neo-Confucians never had any personal encounters with their abstract absolute."

Regarding the first point, we see the Donghak thought is a practical philosophy rather than mere learning from books. His awareness was deep-rooted in the sense for real problems, and this very fact had great potentialities in the future history of Donghak. The successive Donghak leaders, Choe Si-hyeong and Son Byeong-hui, never confined themselves to the spiritual world but led their lives as religious leaders and simultaneously practical teacher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en they confronted.

#### Realization and Expansion of Donghak thought by Choe Si-hyeong

After Choe Je-u's martyrdom of 1864, Donghak became an underground organization. It may be true that the growth of the early Daonghak community was so rapid and wide that Joseon government could not help but execute him for unreasonable charges: Catholic belief and insurrection. However, his propagation period was too short to make the community solid and mature. It is Choe Si-hyeong who embodied the messages of Cho Je-u and brought the Donghak community up to the first and largest grass-roots group in Korea. There were numerous uprisings of people before the Donghak movement of 1894, but they cannot be compared with Donghak in that "they were highly isolated and localized movements lacking in organization, leadership and tie-up with other areas."<sup>50)</sup>

How did Choe Si-hyeong establish such an organized network while he was decamping from place to place for 30 years since 1864 with the government following at his heels? How did the followers grow up to

---

50) See Mok. (1978:50)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be such spontaneous and ethical members in the national-wide resistance organization? It may well be true that this miraculous success is due to his personality with religious charisma and moral influence as is generally known, but I would rather explore the answer further on the basis of his teaching than make a sweeping statement. I will examine how the founder's original message was construed by the second Donghak leader Choe Si-hyeong and by doing so how transformed into a viable alternative at the twilight of Joseon period.

Choe Si-hyeong hardly emphasized spiritu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anthology of his sermons.<sup>51)</sup> He only called everyday experience 'the evidence of Hanullim'<sup>52)</sup> instead of mentioning several miracles which is said that he had ever experienced. Consequently, his understanding of self and *Jigi* also shows a subtle change into a matter of living world. In the case of Choe Je-u, Hanullim's presence is felt, heard, and revealed within a practitioner and this experience was tinged with religious ecstasy. On the other hand, Choe Si-hyeong construes Hanullim's presence as an experience that we meet every single moment and everywhere, in the course of ordinary events. The denotation of Hanullim is boundlessly extended. Choe Si-hyeong expanded the teaching of his teacher rather than altered.

Surely, Choe Si-hyeong was fully aware that 'Sicheonju' was given significance only after the religious experience of his teacher. He once told his disciples to contemplate: "When was the meaning of 'Si (Bearing)' born? Was it born at the moment when your mother was pregnant,

---

51) *Haewol Sinsa Beopseol* (Sermons by Divine Teacher Haewol)

52) "Cheonji Bumo" (Heaven and Earth are Our Parents) in *ibid.*: "Human beings breathe, action, behave, eat and wear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Hanullim" "Dogyeol" (A Key to Way) in *ibid.*: "walking, sitting, lying, breathing and speaking, being silent, moving, staying, being still is nothing but the transformation of heaven and earth and sprits."

when you were born, or on the very day that our teacher Choe Je-u experienced the descent of the Divine Presence?"<sup>53)</sup> Interpreting the Donghak incantation, he still mentioned "three-seven syllables" i.e. the 21-syllable incantation,<sup>54)</sup> which includes the 8-syllable incantation, meaning *'Ultimate Energy being all around me, I pray that I feel that Energy within me here and now.'*<sup>55)</sup> Also, he illustrated the meaning of Sicheonju (Bearing Hanullim) with 'internally bearing the Divine spirituality' and 'externally connecting energy.'<sup>56)</sup> However, he construes the 'internal energy' as 'Newborn baby's innocent mind/heart' and the 'external energy' as 'the fetus's gaining all the sensation in the womb'<sup>57)</sup> Choe Si-hyeong interpreted originally uncommon event experienced by the founder into something that all the time happens around us.

Choe Si-hyeong's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everything bears Hanullim' transfigured a mere commonplace into a profound matter and let his teaching permeate everyday occurrence. He gave each follower an actual guide, which was simple but powerful. The founder of Donghak already suggested that everybody bears Hanullim but failed to survive to lay down a guiding principle. Choe Si-hyeong took over the task and applied it to all cases in the living world. His consideration reached from children and women who are little respected in those days to all things in universe. He taught the followers to "treat earth as precious as your mother's flesh"<sup>58)</sup> and said "the words of human being are nothing but the words of Hanullim; a chirping of a bird is also the sound

53) See "Gita" (The Rest) in *ibid.*

54) See "Yeongbu Jumun" (Talisman&Incantation) in *ibid.*: "呪 大宇宙, 大精神, 大生命, 圖出之天書也."

55) See Baker. (2007: 450)

56) Refer to the footnote 43.

57) See "Yeongbu Jumun" in *ibid.*: "內有神靈者, 落地初赤子之心也. 外有氣化者, 胞胎時, 理氣應質而成體也."

58) See "Seong, Gyeong, Sin"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in *ibid.*; also see Kim (2002:173)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of Sichenju."<sup>59)</sup> He also said "Don't hit your child. Hitting your child is the very same thing to hit Hanullim."<sup>60)</sup> In addition, he declared "a woman is the master of a family"<sup>61)</sup> "There will be reproduced many awakened women in Donghak."<sup>62)</sup>

This kind of reverence for all existence was not a mere conclusion of his reasoning but a consequence of his realization persisted for the 30 years' underground activities. His personality made the followers accept him as their true leader even though he was an unlearned commoner. Nevertheless, some followers might be dissatisfied with a reversed organization in their order between *yangban*, aristocratic class, and *sangmin*, the common people. When Choe Si-hyeong was told a disciple's complaint about a commoner selected as a boss above many other *yangban*,<sup>63)</sup> he replied in a gentle but firm manner, "the class system are made by human but one's duty in Donghak is endowed by Hanullim...Heaven bestows everybody life and fortune without distinction of *yangban* and *sangmin*... From now on, break down all the distinction of classes within our community."<sup>64)</sup> Furthermore, he made a harsh criticism of the class system of Joseon: "We have two evil customs in this country: one is the distinction between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ren, and the other is the distinction between a nobleman and a commoner. The former is the root cause to ruin a family; the latter is the root cause to destroy a country... Hanullim begat everyone in the world; you cannot say a peaceful reign before everybody becomes to revere each other

---

59) See "Cheoneo" (The words of Heaven) in *ibid.*

60) See "Dae In Jeop Mul" (How to Treat People and Things) in *ibid.*

61) See "Buhwabusun" (Harmless marriage) in *ibid.*

62) See "Bu in su do" (Cultivation of Women) in *ibid.*

63) See "Podeok" (Spreading Virtue) in *ibid.*

64) See *ibid.*

as Hanullim."

All the literature of Choe Si-hyeong is not written by him but is a compilation of his dialogues and preaching which had been performed over the period of 30 years when he was travelling from door to door throughout the country. His teaching was a face-to-face talk to each follower and a practicable guide to living. The idea that one can get into accord with Hanullim or *Jigi* by awakening oneself to one's being divine presence at every moment in daily happenings was indispensable to the success of Donghak organization, which allowed each member to act spontaneously. It may safely be said that the seeds of Donghak was sown by the founder but it was Choe Si-hyeong who made them sprout out, take root into each individual, and developed into the social consciousness.

Turning toward modern Korea by the third leader of Donghak Son Byeong-hui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Hanullim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by Son Byeong-hui. There is no question that he must have practiced enough to be a religious leader and most probably experienced a deep awareness of Donghak practice, seeing that he wrote a special book in Donghak practice.<sup>65)</sup> Nevertheless, he parted with any mysterious experience in a determined manner and carried out an overall rationalization of the Donghak doctrine. His reorientation was the result of recognition that Donghak had already grown into

---

65) See "Muche Beopkyeong" (No Body Cannon) in *Uiam Seongsa Beopseol* (Sermons by Holy Teacher Uiam).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adulthood at that time and also the methods of religious practice was required to meet the change of times.<sup>66)</sup>

It is notable that the 21-syllable incantation, which includes the 8-syllable spiritual incantation, disappeared while the 13-syllable incantation was reinforced with extremely reasonable accounts in the complete works of Son Byeong-hui, *Uiam Seongsa Beopseol*. Accordingly, the meaning of *Jigi*<sup>67)</sup> as Ultimate energy, Spirituality, and Entirety faded away and instead a rational interpretation was prized. He said, "It is said that at 'Si' means 'internally bearing the Divine spirituality' and 'externally connecting energy.' Our teacher Haewol analyzed them into 'a newborn baby's bearing an innocent mind/heart' and 'the fetus's gaining all the sensation in the womb.' This interpretation is the utmost and completed."<sup>68)</sup> Son Byeong-hui bestowed high praise on Choe Si-hyeong's account so as to dilute the mystic color of Sicheonju.

Son Byeong-hui placed great emphasis on 'A (self),'<sup>69)</sup> while the founder appreciated a state of transcending oneself and the second leader focused on reverence for all existence rather than 'self.' For him, 'self' is the starting point of all kinds of operations, whatever mental or physical, and at the same time is the ending point that all ages' affairs converge on.<sup>70)</sup> He also compared 'self' and Heaven to host-guest relationship: "Viewed in the light of Heaven as the subject, 'self' becomes the

---

66) See "Ogyo ui Sinsasang sidae" (The Era of New Thought of Our Religion) in *ibid*.

67) He mentioned *Jigi* three times in his book. All the cases are related to the conventional phrase of demanding a believer's self-discipline but there is no serious consideration of *Jigi* itself. See "Susu Myeongsillok" (On Essence of Transferring) and "Ganglon Gyeongui" (On Meaning of Scriptures) in *ibid*.

68) See "Ganglon Gyeongui" in *ibid*.

69) The word 'A (self)' has high frequency of use as many as 233 times and was taken very seriously in *Uiam Seongsa Beopseol*.

70) See "Muche Beopkyeong" in *ibid*: "運用最始起點曰我...億億萬年,自我而始焉...億億萬年,亦至我而終焉."

e object; Viewed in the light of 'myself' as the subject, Heaven turns into the object."<sup>71)</sup> Recalling Choe Si-hyeong highlighted 'self' as an agent which is connected with every single existence, Son Byeong-hui turned his attention to 'self' as the subject against the object. Taking a step forward, he said "Heaven is located in you yourself, if then, to which place you look up and in which place you have faith? Only I worship myself; I believe in myself; I realize myself."<sup>72)</sup>

It is not true that Son Byeong-hui originated the very idea of focusing on 'self.' Indeed, Choe Je-u left the message suggestive of self-discovery such as "If you are not clear the place where wisdom is kept, don't pursue far off but cultivate yourself"<sup>73)</sup> Choe Si-hyeong developed the hints into a self-cultivation procedure: "It is I myself who 'cultivate myself instead of pursuing far off'...it is I myself who 'consider my birth'..."<sup>74)</sup> In a sense, Donghak's birth and growth a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elf' and Choe Je-u's experience of self-effacement can be interpreted as a break-through for self-discovery and self-fulfillment not as literally 'loss of self' nor as an empty concept.

Nevertheless, Son Byeong-hui put much stress on the 'self' as a subject who can see, hear, and act, and carried out an overall reinterpretation of the Donghak doctrine in rational and modern manners. His well-known slogan *In Nae Cheon* (Human being is the same as Heaven) presented in this reformatory atmosphere. He coined this new slogan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a clear and compact concept to summarize the

71) See *ibid*: "凡天地萬物, 不無主客之勢. 觀天以主體, 我爲客 觀我以主體, 天爲客."

72) See *ibid*: "天在於我 仰之何處 信之何處 但 我仰我 我信我 我覺我."

73) See "Jeon Paljeol" (the first half of octet) in *Donggeong Daejeon*: "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也."

74) See "Sudobeop" (How to Cultivate a Moral Character) in *Haewol Sinsa Beopseol*: "'遠不求而修我, 我也...' '料吾身之化生, 我也...'"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e complex and broad teaching of Choe Je-u<sup>75</sup>) and wanted to unify all the followers to the under the simple and powerful slogan "Human being is the same as Heaven."<sup>76</sup>) This declaration had the effect of secularization and let the followers more concerned about worldly affairs. Therefore, *In Nae Cheon* is not exactly the same as 'In Si Cheon' (Human being is nothing but Heaven) or 'A Si Cheon' (the Self is nothing but Heaven) which Choe Si-hyeong used predicatively to complement the meaning of self and Hanullim. They were not used as fixed terms but *In Nae Cheon* was. As Carl Young pointed out,<sup>77</sup>) Son Byeong-hui was fully aware of the necessity of "active involvement by the general population" in order to modernize Korea and to make her independent from the annexation by Japan. *In Nae Cheon* was primarily a religious slogan but also carried out its political mission.

I am not saying that *In Nae Cheon* was impure or violated the original Donghak teaching. It was surely indebted to the former two teachers of Donghak in that Donghak was consistently teaching each follower, who might not be the master of his/her own life before, to find and to cultivate himself or herself by realizing Hanullim within him or her. The transformation of Donghak thought from Choe Je-u via Choe Si-hyeong through Son Byeong-hui was dynamic: Choe Je-u first encountered Hanullim as the other but afterwards realized the impossibility of demarcation between Hanullim and himself; Choe Si-hyeong developed Hanullim into all the existences in the world and made mutual reverence as Hanullim become the acquired nature of the Donghak followers;

---

75) See "Daejong Jeongi" (Truthful Meaning of Main Teaching) in *Uiam Seongsa Beopseol*: "大神師, 吾教元祖, 其思想, 博從約至, 其要旨, 人乃天."

76) See "Sinang Tongil gwa Gyumo Ilchi" (Unification of Faith and Conformity of Norms) in *Uiam Seongsa Beopseol*: "the first objective of our Cheondogyo is 'In Nae Cheon'."

77) See Young (2002: 80)

Son Byeong-hui now ventured to develop Donghak into something modern and rational in his own way and by doing so wanted to meet the needs of his times. Rescuing the country on the verge of the annexation to Japan, it was insufficient to entrust an elite enterprise or to rely on a religious charisma but rather every single person was needed to develop a consciousness of self and to grow into an independent do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achievement of Son Byeong-hui both in political and in religious way. Although Cheondogyo's power was enormous in those days and it must be much easier way to live as an established leader within his own organization than to aim at a national salvation, he was not contented with insuring his own community. His enlightenment project was opened to non-believers as well as believers. As a result, the pursuit of spirituality was entrusted to individual's efforts and all sorts of worldly cares replaced it such as a fund-raising drive for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ll kinds of enlightenment movement. From the standpoint of today, his determined step toward modernization may be unsatisfied with the miss of religious profundity. However, he fulfilled his duty that the times assigned as the leader of the special religion Choendogyo as his former teachers respectively responded to the current of the different times. For Donghak believers, the spiritual experience itself is neither special nor difficult to reach. As often reported,<sup>78)</sup> most people can experience the spiritual presence within if they sincerely practice to a certain extent with Donghak's cultivation practice. The main point is how to develop that religious experience into meaningful life. For that reason, Son Byeong-hui's persistent effort to cut through the road to modern Korea is worthy of contemplation.

---

78) See Baker. (2007: 461-463)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Donghak performed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The self-*Jigi* model of Donghak is unique in various ways. It was neither a pure theory which was always monopolized by the intellectuals nor an unsophisticated dogma to reject any change. It put forth power to move one after another so as to face with self-existence. It has been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influenced the social consciousness of each times. The transformation of self-*Jigi* model from Choe Je-u via Choe Si-hyeong to Son Byeong-hui underwent the following procedure: from the self-awakening of 'Hanullim resides within me' through the spiritual expansion of 'Everything bears Hanullim' to a modernized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is nothing but Heaven.' The self-*Jigi* model is that everyone is aware of having Hanullim within and at the same time everybody is developing one's awareness into mutual reverence by realizing each existence is interactively connected with *Jigi*. The successful organization in a series of the Donghak movements suggests that the core idea of Donghak makes each member be aware of one's duty and be cap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 References

### 1. Primary Sources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Chondogyo Central Church Headquarters, 1992 *Cheondogyo gyeongjeon*  
(The Scriptures of Cheondogyo)

Choe Je-u, *Donggyeong daejeon*(Eastern Great Scripture) 1880

Choe Je-u, *Yongdam yusa* (Memorial Songs of Yongdam) 1881

Choe Si-hyeong, *Haewol Sinsa Beopseol* (Sermons by Divine Teacher H  
aewol)

Son Byeong-hui, *Uiam Seongsa Beopseol* (Sermons by Holy Teacher Uia  
m)

### 2. Secondary Sources (Korean)

Kim, Yonghwi. 2005. "Sicheonju Sasang ui Byeoncheon eul Tonghae B  
on Donghak yeongu." (A Study on Donghak through the Transition of  
Sicheonju's Thought) Kore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3. Secondary Sources (English)

Baker, Don. 2002. "Hananim, Hanunim, Hanullim, and Hanollim: The  
Construction of Terminology for Korean Monotheism." *The Review of Ko  
rean Studies*, 5.1:105-131.

Baker, Don. 2007. "The Great Transformation: Religious Practice in C  
h'ondogyo" pp. 449-463 in *Religions of Korea in Practice*.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Baker, Don. 2008. *Korean Spiritual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Beirne, Paul. 1999. "The Eclectic Mysticism of Ch'oe Cheu."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159-81.

Bell, Kirsten. 2004. "Cheondogyo and the Donghak Revolution: The (un)Making of a Religion." *Korea Journal*, 44.2:123-148.

Buswell Jr., Robert E. ed. 2007. *Religions of Korea in Prac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oe, Yŏng-ho, Peter H. Lee, Wm. Theodore de Bary. ed. 2000. *Sources of Korean Tradition*, vol.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rayson, James Huntley. 2002. *Korea - A Religious History*, (the first edition in 1989) RoutledgeCurzon.

Mok, Chong-Gyun. 1978. "Th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unctions of the Tonghak Movement: With Reference to Communication of the Tonghak group." *Korea Journal*, 18.5: 50-63.

Kim, Choon Sung. 2002. "Donghak: Towards Life and Spirituality." *Korea Journal*, 42.4: 158-186.

Shin, Susan S. 1979. "Tonghak Thought: The Roots of Revolution." *Korea Journal*, 19.9: 11-20.

Weems, Benjamin B. 1964. *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 Tucson: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Young, Carl. 2002. "Tonghak and Son Pyŏnghŭi's Early Leadership, 1899-1904."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5.1:63-83.

## ◇ 제4주제 한글요약문

##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박소정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

동학은 한국 최초의 고유 종교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 한국학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동학은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해왔으며 한국의 근대성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하다. 동학을 주체 세력으로 한 일련의 근대 지향의 운동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회 각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저항의식은 흔히 자주적 근대성의 맹아와 발전으로 평가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학사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의 관심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동학의 핵심 사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사상 내적으로는 동학사상의 복합적 성격이 동학사상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흔히 '유, 불, 선 삼교의 종합'이라는 안이한 말로 처리되는 동학에 대한 소개는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학의 독자성을 크게 해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동학사상의 본래적 면목에 도달하고자 하는 탐구 의욕을 꺾는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동학이 처한 대외적 상황도 동학에 대한 친근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가운데 하나이다. 동학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동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견인해야할 위치에 있는 천도교는 동학의 영광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동학을 모르는 한국인은 드물겠지만 천도교를 아는 한국인도 드물다. 동학, 그리고 천도교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통해 창도 후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경이로운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하면서도 불가해한 몰락을 경험하였다. 외부에서 동학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동학과 천도교의 이와 같은 성쇠를 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학의 핵심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 동학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나'와 '지기'(또는 '한울님')의 관계의 해명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나'와 '지기'의 관계를 동학의 핵심 문제 탐구의 첫걸음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운 최제우의 한울님 체험이야말로 동학을 동학답게 하는 원형이기 때문이다. 동학은 수운의 체험에서 시작하지만 해월 최시형과 의암 손병희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진화해왔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와 '지기'(혹은 한울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놓여 있었다. '나'와 '지기'의 관계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이자 '개체성'과 '전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전제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동학은 수운의 창도 이후 단순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해월과 의암 등에 의해 재해석되고 체계화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이 점을 놓치면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핵심 개념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변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수운의 종교 체험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체험의 결과로서 성립한 동학 주문에 나타난 '나'와 '지기'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운의 가르침을 해월이 어떻게 변모시키고 확대하였는지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교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월에서 의암으로 넘어 오면서 개체성과 전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에 생겨나는 극적인

변화를 살펴볼 것이며 의암의 이러한 전환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이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 동학이 전개한 '나'와 '지기'의 관계는 한국 지성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이러한 '나'와 '지기'의 관계를 통해 동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자각할 수 있었다. 셋째, 그럼으로써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동학 운동을 발생시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 제5주제

#### 동학의 민족통일론 연구 - 동귀일체 통일론

임형진 (고려대 겸임교수)

1. 서론
2. 구동존이(求同存異) 통일방법론
3. 북한의 동학 천도교와 남북교류
  - 1) 해방 후 북한의 천도교와 천도교 청우당
  - 2) 천도교의 남북교류와 통일운동
4. 동학의 민족통일론
  - 1) 동학의 통일국가론
  - 2) 민족자주 통일론
5. 결론

## 1. 서론

역사의 반복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절감해야 한다. 분명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흐름은 지난 우리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위기 상황은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화평을 넘어 대국굴기(大國崛起)의 야망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일본 역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주요 상수이다. 여기에 동북아 체제에 적극 개입을 외치는 미국과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러시아 등 예측불허의 상황은 과거 역사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동북아 전체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동북아 질서와 남북간의 대치는 이러한 희망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민족 모두의 과제이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고 통일의 희망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역사의 교훈처럼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가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영구 평화체제 형성에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학은 조선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발생한 민족이념으로서 그것은 특히 당시의 피폐화된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어 반봉건 반외세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완수하고 지상에서의 군자국가 건설을 목표로했다. 이른바 개혁의 이름으로 동학은 그때까지의 민중적 사고의 총결산이자 그들의 이상적 세계관이 수운 최제우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상사회의 건설로 완결된 것이다. 즉, 동학 천도교에서 주장하는 시천주, 인시천, 인내천의 사상은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우리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하여온 천신숭배의 신앙이 동학에 이르러 창조적인 모습으로 승화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생각해 오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 동학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고<sup>1)</sup> 나아가 그들 신선들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동학이 추구하는 민족통일의 이상사회 역시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만민평등을 넘어서 경인경천 그리고 경물의 사상으로 까지 확대된 이상적 공동체의 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모습보다는 그 반대의 현상으로 심화되고 악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동학이 추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은 민족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창도 당시의 동학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창도 당시가 시천주한 인간 평등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면 지금 민족통합을 위한 첫단계는 반세기 이상을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불신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학의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현 단계 동학 통일운동의 모습임을 밝혀 향후의 방향성과 함께 그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차후로 미루고자 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는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통일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략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이의 심화 확대를 기대하고자 한다.

---

1) 오익제, “동학혁명운동의 현대적 재조명.” 이현희 엮음,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517쪽, 1984.

## 2. 구동존이(求同存異) 통일방법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로 걸던 남북관계는 2010년 3월 서해상에서의 천안함 침몰로 더욱 심각한 상화에 처해지고 있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공표했고 24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거의 모든 대북 제재안을 선언했다. 이어 외교, 국방, 통일부 등의 정책당국자들도 각 부서별로 북한을 제재하기위한 군사적, 외교적인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도 남북교류 단절은 물론 전군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언론은 한반도는 무력충돌을 위해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위태롭다고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개방 3000” 이후 그동안 유지되던 남북간의 비상 핫라인도 없어지고 김정은 3세대로의 후계구도를 확정해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예측불허 역시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질서와 세력균형의 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반도는 상호불신과 배제의 논리만 확대 재생산 되는 위기상황이다.

금년들어 계속되고 있는 악재들은 그동안의 기본합의나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 등 남북관계를 유지해 왔던 기존의 장치들이 폐기되고 훌륭한 완충 구실을 해 왔던 금강산 관광 등 민간교류는 끊어졌고 겨우 개성공단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긴장의 결과는 통일부의 통계자료에서도 남북교류의 단절로 확인되고 있다.<sup>2)</sup>

2) <http://www.unikorea.go.kr/kr/MIPT/MIPTBmain.jsp>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 남북 관광협력사업 현황 -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98~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해로	158,628	213,009	57,879	84,727	39,902	449	-	-	-	-	-	552,998
육로	-	-	-	-	34,432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381,664
합계	158,628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3	234,446	345,006	199,966	-	1,934,662

### ▷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민간경협	11	5	1	2	6	10	4	6	9	1	55
개성공단(승인)	-	-	-	-	17	26	15	163	53	10	284
개성공단(신고)	-	-	-	-	-	-	-	-	-	12	12

### ▷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연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사회문화	17	6	7	13	16	47	26	19	3	-	154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의 지속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했을 때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의 논리를 빌릴 것도 없이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가 21세기의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불신으로 인해 공

직자의 부패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감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sup>3)</sup> 남북한은 불신과 대결의 오랜 지속으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상실했다. 불신은 분단이 빚어낸 최대의 비극이며,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은 최소한의 안정과 신뢰를 갖춘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우리 사회만 놓고 보아도 젊은 층으로 내려 갈수록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통일은 구세대의 이념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그들만의 편집증적 형태로 비춰지기도 한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현재 남한 인구의 90% 가까이 분단과 전쟁 이후 탄생한 세대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이미 분단체제가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와 닿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한 내용일 수 있다.

실제적으로 남북간의 이질감과 괴리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장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부터 우리만 통용하는 용어일 뿐이다. 우리 영토를 벗어나면 당장 남북한의 용어는 낯선 용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 할 때 북은 조선반도를 말하며 한민족은 조선민족과 대치된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도 북한이 우리를 미제의 괴뢰정부요 앞잡이라고 비난한다. 북이 지적하는 부정적인 면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전체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Francis Fukuyama,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pp. 449-450, 457. 현대사회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Barbara A. Misztal, Trust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8) 참조.

4)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2008년 조사한 통일의식조사는 51.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4.9%는 “필요하지 않다”, 23.4%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식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65.8%를 차지하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9.2%에 불과하다. 20대의 경우에는 31.3%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7.5%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익)이 안 된다”, 그리고 68.4%는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병로, “21세기적 통일비전”, 인터넷 자료.(<http://tongil.snu.ac.kr/>)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물론 수많은 탈북자들에 의해 증언되는 북한 사회 역시 맞는 점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북한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나라 북한이나 서로의 필요한 부분만을 보려고 애쓰고 특히 상대방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확대 강조함으로써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인류학과의 로이 리처드 그링커(Roy Richard Grinker) 교수는 남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실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링커 교수는 1998년 출판한 그의 저서 「한국과 그 미래: 통일과 끝나지 않은 전쟁」(*Korea and Its Futures :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일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한국과 조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남조선'은 이렇다, '북한'은 이렇다고 규정하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집불통의 현실을 꼬집어 "한반도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한민족 동질성의 신화"라고 비판한다.<sup>5)</sup>

서로 다른 점만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기를 노력한 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였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서로의 같은 점만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도출되는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면들은 잠시 뒤로 돌려 두자는 것이다.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sup>6)</sup> 통일방법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5) 위의 글 재인용.

6) 구동존이는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중국의 주은래 총리가 한 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공통점을 먼저 찾아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그의 논리는 이후 중국 외교의 대표적인 협상전략이 되었다.

구존동이는 우선은 서로 실체를 정확히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가 가능한 영역부터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점차 그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으로 유연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우리 식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논리나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의 가치와 도덕적 기준만으로 재단하는 일은 더 이상 통일인식의 저변 확대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 역시 나름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다원성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는 자세가 이 시점의 통일운동이 요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통일을 지향하는 많은 영역 중에서 동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 부여 받았다. 창도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학이 대 사회적으로 추구했던 구호는 동귀일체이다. 다양한 영역이 하나로 귀일됨을 의미하는 동귀일체는 향후 통일운동의 주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구동존이의 통일방법론을 주장한다면 남북한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많고 이미 상당부분 실천되고 있었다. 향후의 과제는 이를 더욱 정확히 인식하고 공통점을 확대 발전 그리고 계승의 작업이 될 것이다.

### 3. 북한의 동학 천도교와 남북교류

#### 1) 해방 후 북한의 천도교와 천도교 청우당

- 7)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바탕한 비판이 요구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기반으로 할 때만 유용한 것이다. 때로는 도덕적 판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우리의 가치기준과 고정관념, 상식 그리고 신념을 기반으로 한 비판은 북한이 우리에게 행하는 비판과 다를 바가 없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해방 후 우리 사회는 최초의 사상적 자유 속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정치단체들이 저마다의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등장했다.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사회와 국가건설에 저마다의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일제 하 그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도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을 강하게 전개했던 천도교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진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참회하고, 현실을 정관하고, 미래에 정진하자’며 자중정관하던<sup>8)</sup> 천도교는 45년 9월 23일 전국대회를 준비하고<sup>9)</sup> 새로운 출범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분단의 설정은 이러한 천도교단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시기 천도교는 국내에서 여전히 가장 큰 종단의 하나였으며 대규모의 민중기반과 동학사상으로 이념 무장된 정치세력이었다. 즉, 천도교는 해방 당시 약 300만명을 헤아리는 교인 수와 부활한 천도교 청우당을 통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38선 획책으로 인해 천도교는 부득이 남북으로 이원화 되는 기형적 종교조직이 되어야 했다. 해방과 함께 비로소 지상천국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동학시대 이래의 천도교 이상은 다시한번 시련의 시기에 처해진 것이다.<sup>10)</sup>

당시 천도교 교세의 대부분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는데 1950년 3월에는 66만6천여의 교호수와 2백86만6천여명의 교인수를 자랑했었다.<sup>11)</sup>

8) 『如菴文集』 상, 여암선생문집편찬위원회, 1971, 147-149쪽 및 『如菴文集』 하, 45-47쪽.

9) 『매일신보』 1945. 9월 23일.

10) 북한 지역의 천도교 관련 자료는 주로 표영삼, “북한의 천도교”(상중하), 『신인간』 1980, 통권 375-377호,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연구 1945-1960』 선인, 2008, 기타 천도교 중앙총부 간행 출판물들을 참조해 재구성한 것임.

11) 북한 천도교 북조선 중무원 법도부장이었던 문재경 선생이 작성한 것으로 『신인간』 통권 288호의 “문재경 선생의 유교”의 글을 표영삼 글에서 재인용한 자료임.

## 1950년 3월 북한 천도교세 분포현황

도별	교구수	교호수	교인수	비고
평안북도	21	158,277	680,591	
평안남도	17	145,019	623,582	
황해도	19	87,723	377,209	
강원도	15	70,363	302,561	
함경북도	16	112,140	482,202	
함경남도	15	93,069	400,197	
합계	102	666,591	2,866,342	

숫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에서도 정신지도기관인 「연원회」와 행정기관인 「종무원」과 전위단체인 「천도교청우당」을 102개 시군과 그 산하 구·면·동에 이르기까지 조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활동 면에서도 읍·면 이상의 조직에는 수명의 전임교역자를 배치하고 교화사업과 조직동원에 일사불란한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정국은 정상적인 종교로서의 천도교 활동과 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공산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북한의 경우 해방정국시기 천도교는 성장과 고난의 기간이었다.

해방과 함께 새로운 국가건설에 참여하게 된 천도교는 종교적 활동을 위해 1945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천도교임시전국대회를 열고 새출발을 선언했다. 3원 1판제의 총부기구를 구성하는 교헌을 채택하여 새 진영의 천도교 중앙총부를 출범시켰다. 하루 앞선 10월 24일에는 천도교 전위단체였던 천도교청우당을 부활시켰다.<sup>12)</sup> 이로써 천도교는 오랜 전통인 교정쌍전의 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천도교단은 곧 청년 교역자 양성을 위한 전국적인 중학원 교육을 실시

12) 천도교 청우당의 재건과 해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줄고, “해방정국과 천도교청우당” 『동학학보』 제4호, 동학학회(2002,10) 참조바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하였다. 그러나 중학원 교육을 통해 전국적인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했던 중앙총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그것은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발표되고 이른바 찬탁과 반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특히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38선의 장벽을 더욱 두껍게 함으로써 북한 지역 청년들의 서울방문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중앙총부의 교무연락이 북한지역으로 원활하게 전달되기 어렵게 된 점이었다. 중앙집권적 조직체인 천도교 특성상 남북한 전 지역의 모든 교무활동은 중앙총부의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북한지역으로의 연락이 거의 두절상태에 처해진 것이다. 절대적인 교세를 북한에 둔 중앙총부는 그간 서울과 각 시군 종리원간에 직접 왕래하던 교무를 부득이 함흥과 평양에 연락소를 두어 처리하는 잠정조치를 취해야 했다. 1946년 1월 총부는 함흥과 평양에 각기 북선연락소와 서선연락소를 개설했다. 이 연락소의 기능은 서울의 중앙총부 교무지시를 받아 북한지역 시·군 종리원에 하달하고 시·군 종리원에서 납부한 성미와 각종보고를 상달하는 연락기구 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8선은 강화되고 위험부담이 증대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의 정신지도기관인 연원회는 1946년 말 경에 북한지역에 있는 45개 연원대표들이 모여 천도교북조선연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북한 사회가 소련군의 계획 하에 공산국가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한계에 처해졌다. 1946년 2월 8일, 소련군은 김일성에게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케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해 사실상의 단독정부행세를 하게하면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 등으로 공산화 초기 단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락소 체제로 북한지역의 천도교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연락소 체제에 한계를 느낀 교단은 원로들과 연원대표들의 찬동 하에 1947년 2월 1일 서선연락소와 북선연락소를 발전적으로 해산시키고

북한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단일중앙기관으로 평양에 천도교북조선총무원을 설치하였다. 이로부터 북한지역의 교무 일체와 교화사업은 북조선총무원에서 총괄하게 되어 교회활동은 비로소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

한편 남쪽에서의 청우당 부활에 이어 북쪽에서도 청우당은 부활되었다. 1945년 11월초 신의주시 당부조직에서부터 시작된 부활운동은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청우당 결성대회를 갖고 뒤이어 2월 18일 재건되었다.<sup>13)</sup> 청우당의 조직체계는 도당→시·군당→읍·면당→동에는 접을 두었는데 1946년 6월경에 북한전역에 당 조직을 거의 완료하였다. 단일성 중앙조직을 통해 근대적 정당체계를 갖춘 것은 과거 일제시대 이래의 청우당 전통이었다.

청우당은 남북한 모두 공히 4대강령(일, 民族自主의 理想的 民主國家建設을 期함 이, 事人如天의 精神에 맞는 새 倫理 樹立을 期함 삼, 同歸一體의 新生活에 基한 新經濟 制度의 實現을 期함 사, 國民皆勞制를 實施하여 日常輔國의 徹底를 期함) 아래 천도실현을 정치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청우당은 민족자주와 민족해방과 통일을 강조하며 민주경제 건설을 통한 사회해방을 추구하고 극우, 극좌의 극단주의를 배격했다.

이러한 청우당의 강령과 노선은 북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우당은 북한 인민의 대부분인 농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항일전통의 민족종교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 속에서 1946년 들어 실시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는 천도교와 청우당 발전의 일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북한을 공산체제로 만드는 데 필수조치였지만 반소, 반공계층에 속하는 지주와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경제적 기반과 생활수단을 박탈하는 구실이 되었고 이때 북한 지역의 대부분 종교와 단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천도교는 일부 지도층을 제외하면 심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절

13) 『北韓年表』, 국토통일원, 1980, 31-32쪽.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대다수 교인들이 빈농출신이었기에 오히려 당세는 확장되었다. 1946년 8월 29일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작하여 노동당을 만들었을 때 총당원수는 36만6천명(공산당27만6천명, 신민당 9만명)이었으므로 그들의 조직원과 천도교의 조직원은 거의 비슷하였다. 이처럼 해방 초기 노동당은 민주당 등 타당과의 대립 및 공산체제 형성을 위해 청우당과는 일정정도 경쟁적 우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우당은 1947년 북한의 각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노동당과 경쟁을 하기도 했고 맹산군에서는 당 간부가 테러혐의로 검거되었다가 무죄 석방되자 군확대회의를 열어 기세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당은 독자적인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해 졌다. 노동당은 여타의 정치세력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청우당과의 관계설정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세가 확대일로하고 있는 천도교에 대한 제재는 우선 성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농민에 대한 착취라는 것이 노동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천도교에 가장 큰 타격은 북한의 화폐개혁이었다.

1947년 12월 1일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의 경제적 통제권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화폐개혁은 1인당 700원씩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동결시키는 개혁이었다. 즉 1인당 700원 이상은 교환하여 주지 않고 예금시켜 버렸다. 화폐개혁은 이후 점차 강화되어 금액이 많을수록 몰수되는 액수가 늘어났다. 이 조치로 인한 천도교의 타격은 실로 막대했다. 일제시대부터 천도교는 대외적인 비밀유지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유용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사용했었기에 보유 금액의 상당부분을 몰수당한 입장에서 일상적인 교무행정은 물론 출장, 출판사업 등 대부분의 포덕활동이 제한될 수뿐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천도교에 가장 큰 위협은 고착화되는 분단이였다. 창도 이래로 단 한반도 민족통합과 자주독립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버리지

않았던 천도교 입장에서 점증하는 분단 고착화와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치달리는 국론분열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북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던 천도교는 급기야 1948년 3월1일을 기해 민족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기로 결정했다. 삼일재현운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북한의 단정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한 주민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자주적 민족통합의 통일국가수립을 주장한 이 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어 남한에서는 성명서 발표로 끝났고 북한에서는 맹산, 양덕, 덕천, 순천, 영변 등 평안도 일부지역에서만 전개되었다.<sup>14)</sup>

이후 전쟁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서의 천도교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sup>15)</sup> 소위 1950년대의 농업협동화정책과 상공업협동화 정책 등에 합류되면서 천도교인들의 사상개조를 위한 교양사업에 동참되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종교와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도교는 북한의 최대 종교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도 수는 1만 5천명으로 종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교실도 800개에 이르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종교를 우리와 같은 개인의 구원 차원으로 보지 않는 북한에서의 종교는 정치와

14) 삼일재현운동은 사전밀고로 17,000여명의 교역자가 체포되고 187명이 처형되었다.([삼일재현운동지』신인간사, 1969.) 그러나 필자가 만난 북한측 인사들은 3.1재현운동에 대하여 교인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던 운동으로 상층부 일부만 가담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북한 지역 천도교 운동사라고 할 수 있다.

15) 북한의 천도교역압은 전통적인 연원제를 없애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연원주간을 중심으로 모이던 연원제는 동학 창도 이래로의 전통이었지만 북한은 1948년 4월 6일 천도교북조선총무원 정기대회에서 속지주의로 개편했다. 속지주의에 따라 지역별로 1개 교구를 연원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별 연원이 형성되고 이는 서울 중앙 등 남한으로부터 받는 지시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백세명, “당시 북한의 교회실정”, 앞의 책 『삼일재현운동지』, 115쪽, 표영삼, 위의 글 재인용.

16) 북한 내 종교인구에 대한 북한측의 발표를 보면(2001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질문에 답한자료) 2001년 현재 북한의 천도교인은 1만5천여 명, 기독교 1만여 명, 천주교인 3천여 명, 불교인 1만여 명으로 되어 있다. 외형적인 숫자 말고도 북한에서 민족종교로서 천도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청우당위원장인 류미영씨가 6·15공동선언 후 첫 이산가족 상봉단의 대표로 참석하는 등 남북의 천도교를 민족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운길,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신인간』 2001년 8월호, 36-41쪽 등 참조.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천도교 역시 북한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도교 청우당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17) 청우당 위원장인 류미영 위원장(88세)은 북한 천도교의 본부인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권력서열 21위이다. 그리고 강철원(70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천도교인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비종교국가인 북한에서 이처럼 천도교가 나름대로의 상당한 권력과 교인 등 전국적인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은 1894년 동학혁명 이래로 남쪽의 교인들 대부분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동학의 지도자들은 북부 지방에 포덕(선교활동)을 집중했다. 혁명의 중심지였던 남부지방보다 훨씬 탄압과 관의 감시가 적었던 북부지방은 이때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에는 천도교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분단되기 이전 천도교인 수가 300만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그중 80%가 북한사람들이었다. 지금도 남한 천도교인 상당수가 6.25 참화에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금의 북한 종교인에서 천도교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과거의 동학, 천도교 교세와 무관치 않다.

북한에서 천도교가 위세를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김일성과 천도교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5세의 김일성이 만주로 건너와서 첫 번째 입학한 학교가 화성의숙이었는데 당시 교장선생이 최동오였다. 후일 임시정부의 법무부장을 지낸 최동오는 독실한 천도교인으로 그 시절 어린 김일성에게 동학과 천도교를 가르쳤다. 비록 김일성은 천도교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사상으로서의 동학과 민족종교로서 천도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현재 청우당 위원장인 류미영이 최동오의 며느리인 점이나 강철원 부위원장이 당시 숙감이었던 강제하의 손자라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

17)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등장하는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와 그 전위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천도교 청우당이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0년대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지금의 북한 천도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름없이 정권의 보호를 받는 종교이다. 그러나 특이할 정도로 천도교에 대해서는 종교임에도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나름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특히 북한 내의 동학을 비롯한 민족주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 등에서는 청우당이 반드시 앞장을 선다. 단군릉을 관리하고 또 개천절 행사를 주관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청우당의 사업인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이다. 이 단체 역시 류미영 위원장이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청우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북한 역사학회 등 민족관련 연구, 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천도교는 이처럼 크게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천도교의 남북교류와 통일운동

천도교의 남북교류는 전위단체인 (사)동학민족통일회가 전담을 하고 있다. 1991년 출범한 동학민족통일회는 과거 청우당의 전통을 이어 민족운동의 중심이 될 것을 선언하며 민족대화합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통일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동학민족통일회는 그 설립 취지문과 선언문 등을 통하여 ‘인류는 같은 한 울안의 공존질서 속의 지구촌 동포이며 우리 민족 역시 남북으로 분단되어서는 안 될 한 겨레’임을 선언하고 ‘세계냉전의 종식과 변혁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남북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대결의 장으로 남아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자존과 지성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중략) 조국통일은 양 체제의 혼합·절충이나 흡수가 아닌 남북을 초월하고 포용하는 민족대화합에 의한 인간화의 원점에 선 민족동질성 회복의 통일문화 창출의 새로운 창조적 민족통일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통일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명시했다.<sup>18)</sup>

18) 동학민족통일회, <설립취지문>(1991. 5. 11), <선언문>(1991. 5. 11)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의 이념과 사상을 이념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확장 사업, 교양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을 위한 세미나, 강연회 개최, 홍보용 책자 간행”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민족통일강좌를 이은 민족정신 선양의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술 발표회를 주최하여 통일운동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천도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단극복을 위한 선언문 발표 등을 하였다.

특히 동학민족통일회는 북한 청우당과 직접적인 교류 파트너로 나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인적, 물적 교류를 거듭해 왔다. 양 단체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중국 심양에서 만난 향후의 교류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 하면서 부터였다. 여기서 양측은 최초로 공동의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고 다음의 몇 가지를 합의했다.

첫째, 양측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건

- 동귀일체 정신에 입각해 통일운동에서 남북한 천도교인이 단합한다.
- 민족문제에 공동대처한다.(3. 1절 행사장의 류관순 기념관으로의 변경 반대를 적극 찬동한다. 아울러 천도교를 무시한 3·1운동의 역사 왜곡에 공동 대응하고 내년도 3·1절 행사를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함을 모색한다.)
- 천도교 행사에 양측의 참여를 늘린다. 단, 금년의 천일기념일(4월 5일) 행사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유보하고 내년 행사에는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금년도 평양에서의 남북한 합동 개천절 행사는 동학민족통일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치른다.

둘째, 북한 천도인들의 지원사업에 관한 건

- 농번기에 필요한 비닐박막 지원
- 비료 지원 요청의 건

- 기타 경험의 건

셋째, 남한지역에서 동학민족통일회가 민족운동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의 건

- 청우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한다.

- 특히 6.15 행사에서 가급적 많은 천도교인의 방문을 희망한다.

넷째, 동민회와 청우당의 회동 정례화

다섯째, 신인간(천도교 기관지)에 북한 천도교인의 글 기고 합의

이후 동학민족통일회는 청우당과 직접 연결되는 팩스라인을 형성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민족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5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대일 규탄 공동행사를 가져 내외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의 강도적인 재침 야망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애국애족의 투쟁전통을 자랑과 재부로 삼고 있는 북과 남의 전체 천도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제가 우리나라를 비법불법으로 강점한지 100돛이 되고 패망 60년이 되는 올해에 빠져린 역사의 교훈을 찾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보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의 재침야망기도를 더욱 보편화하고 있는데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어 함께 목소리를 합쳐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온 세상에 공포한다.

날이 갈수록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면서 헌법개정과 군대 개편놀음을 계속 벌여왔고 당국자들까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전범자들의 망령을 부르며 역사왜곡을 감행하던 일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조국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땅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제 2의 침탈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나서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전 민족을 향한 일본의 영토적인 선전포고이다.

(중략)

우리의 주장

하나 :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향한 영토적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 2의 침략이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보국안민>을 기치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 우리는 일본의 어리석은 역사왜곡과 헌법개정, 군대개편 놀음과 함께 당국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행위를 우리 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에 대해 민족의 공조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셋: 우리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향한 오늘날의 침탈행위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지난날의 죄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온 겨레와 세계양심의 전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북)---동학민족통일회(남)

2005년 4월 5일

평양 서울

이 공동성명서는 남북한의 동학의 후예들이 최초로 만들어 낸 의의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함께 찾아낼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한 선언이었다. 이후 남한 동학민족통일회와 북한 천도교청우당 명의로 공동의 동의와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하고 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확정했었다.

이러한 결의이후 양측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제와 민족문제에 관련한 부분에서부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7월 29일부터 11월 17일 까지의 시한을 정해 놓고 남북한이 함께 “보국안민 척왜창의 운동”기간을 설정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카스라테프트 밀약 100년과 을사늑약 100년을 맞은 남북 민족운동진영의 공동의 소리를 모은 것이다. 당시 공동성명서에는 이러한 남북한 동학 후예들의 의지를 담아내었다.

### 보국안민 · 척왜창의 운동 남북 공동선언문

오늘 7월 29일은 제국주의 열강 일본과 미국이 음모 결탁하여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겨레의 운명을 저들의 나누어 먹기 제물로 삼은 카스라테프트 밀약 100주년의 날이다.

이 밀약은 제국주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통치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제국주의 미국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적극 도와주며 나아가서 이 땅에 대한 일제의 소위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 범죄적 행위였다. 100년 전 오늘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 강도적 침략행위가 이후 얼마나 많은 피압박 민족을 고통과 심각한 수탈에 처하게 했는가를 온 인류의 양심세력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하고 반성한다.

그 날의 치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명백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국토에 대한 침탈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는커녕 국론을 분열하고 민족을 이간질시키며 오히려 자신의 이득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매국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성한다. 100년 전 오늘의 무방비는 곧 11월 17일 을사늑약의 망국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절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중략)

첫째, 우리는 민족제일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북과 남의 공조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중략)

둘째, 우리는 전통적인 반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북과 남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북과 남의 공조로 최근 야기되고 있는 우리 땅에서의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실천운동을 가열차게 벌려 나갈 것이다.(중략)

7천만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전민족의 힘을 합쳐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나서자. 이성스러운 애국운동에 민족정신과 사상으로 일치된 민족종교인과 민족운동단체 운동자들이 앞장 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중략)

우리는 우리의 “보국안민 · 척왜창의 운동”이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호응을 받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역사의 호위를 받을 것이며 보국과 안민에 몸 바쳐 창의하신 선열들의 넋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이다.”(2005. 7. 29)

공동운동기간 선언 이후 양측은 운동기간 동안 “제2의 멸왜기도회”를 각기 가지기로 합의했고 공동학술대회와 남북한 지역의 동학운동 성지순례와 공동조사단 파견 그리고 민족의식 고취 행사 추진들을 하기로 하였다. 비록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학술대회에는 청우당에서 원고를 보내주어서 대독 발표되기도 하였다.<sup>19)</sup> 이 일을 계기로 양측은 해마다 운동기간을 설정해

19) 당시 북한의 청우당 부위원장인 강철원의 “1905년과 2005년” 원고는 2005년 11월 17일 독립기념관 주최의 을사늑약 100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식과 행사를 추진해 왔다.

2006년에는 기간을 확대해 3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를 “자주평화민족대 단합운동”기간으로 설정했으며 2007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을 “민족중시운동” 기간으로 2008년에는 “민족자주수호대회”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남북의 동학 천도교인들과 민족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3.1절 공동성명 및 공동행사 진행, 카쓰라테프트 밀약 규탄 남북공동성명서 발표 및 학술 강연회, 동학혁명기념일 행사, 개천절 행사, 을사늑약 규탄 학술대회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동학혁명 남북합동 기념식은 그동안 지역별<sup>20)</sup>로 각기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던 행사 일을 남북이 합동으로 하는 기념 행사일을 잡음으로써 오랜 시비거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남북이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9월 18일의 동학혁명 남북합동 기념식은 해월 최시형에 의해 내려진 총기포명령일로 2차 동학혁명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동안 남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결과 남한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고 또 남북한 모두가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날로 이 날을 잡은 것이다. 금년의 연대사에서도 북한 청우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는 근대 우리나라 반침략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갑오농민전쟁 2차 봉기일을 맞으며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동학혁명기념식에 굳은 연대성을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반일, 반봉건 투쟁에 일떠섰던 갑오농민전쟁참가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20) 그동안 각 지역마다 동학혁명 기념일은 다르게 진행되었다. 최초 봉기일인 1월 11일(음력) 고부봉기일, 3월 20일(음) 고창의 무장기포일, 동학혁명군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격문을 발표한 3월 21일(음) 백산기포일, 5월 11일(양) 황도현 승리일, 집강소 설치를 실현한 5월 31일(양), 남북 동학군의 논산집결일인 9월 16일(음), 우금치 전투일인 11월 8일(음) 등으로 지역마다 편이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4월 25일(음력 3월 20일)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은 오늘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 온 겨레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략)

북과 남의 천도교인들과 동학 관련 민족운동 단체들은 마땅히 그날의 합성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는 친일매국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동학혁명 기념식을 계기로 남측의 동학관련 민족운동단체들이 연대연합하여 반전평화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가는데 적극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2010, 9, 18 )

이밖에도 2010년에만 “국치 100년 연대사”, 천도교의 환경생명운동단체인 한울살림연대 창립식에 축하 연대사 등을 보내 주었으며 남북 합동 기도회를 같은 날자와 기간을 설정해 행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 단체는 2001년 이후로 국가적 행사가 되고 있는 6.15 남북대회와 8.15 남북대회에서는 언제나 함께 참석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타 통일운동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인적교류로는 동학민족통일회 수뇌진과 청우당의 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 회동을 거듭했는데 주로 개성, 금강산, 평양 등지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2005년 북측의 제의로 10월의 아리랑 축전 참관 명분하에 이루어진 평양 방문은 또 다른 남북 교류의 전기가 되었다. 아리랑 축전 기간 동안 동학민족통일회는 350여 명의 방북단을 보냈다. 3차례로 나누어 방북한 동학민족통일회 측은 평양의 청우당사 방문은 물론 남북 천도교인의 합동 시일식 봉행, 류미영 위원장 면담, 단군릉 등 민족성지 참관을 통한 한민족 동질성 회복 추구,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공통분모 모색,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교류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을 이용해 청우당은 동학민족통일회와의 합의한 대로 독립유공자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성묘를 추진하여 일부 인사들이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의 선조들 묘역을 참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인적교류는 현재까지 서울과 평양, 개성, 금강산 그리고 중국 등지에 이루어 졌는데 30여회 이상이 진행되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경제 부분의 교류는 가장 미진한 영역이다. 2005년 북한 천도교인들을 위한 농업용 비닐박막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교류는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해마다 거둬지는 북한의 수재로 인해 매년 작은 규모이지만 북한 수재구호품과 묘목 전달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북한 천도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북한 천도교는 인력과 땅을 제공하고 남한 천도교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 천도교는 모임의 정례화, 팩스 교류의 활성화를 강구하면서 학술교류와 체육교류, 상호 간행물에 상대방 원고 실어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남북의 천도교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형성에 일정정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동학 천도교는 첫째, 남북공동의 의식 회복 둘째, 지속적인 교류협력 논의 셋째, 동학혁명 공동기념식 합의 넷째, 독도수호 공동성명서 작성 등 민족공동사업 다섯째, 민족운동의 주요단체로서의 위상 확보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동학의 민족통일론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1) 동학의 통일국가론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통일국가이론은 일제 하 청우당 시절 제시했던 논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동학 이래로 그들이 추구한 이념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청우당이 제시한 동학의 목적은 보국안민과 포덕천하이다. 보국과 안민은 단계적 목적이 되고 포덕천하(지상천국)는 이상적 목적이 된다. 즉, 보국 이후에 안민이요, 안민이후에 지상천국에 달하는 것이다.

보국은 민족주의의 단계이니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청우당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는 그 시대에 적합한 보국의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청우당은 일제시대 내내 조선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줄기찬 투쟁과 문화운동을 통해 조선혼의 회복과 보존을 계속해 왔다. 즉, 보국을 '민족을 왜적의 속박에서 해방케 하며 민족의 완전독립을 기하여 문화생활수준을 세계각민족과 일치케 하며 민족으로서 세계공화에 적합하도록 향상 진화'<sup>21)</sup>를 목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이다.

수운의 예언대로 “개 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간에 소멸”<sup>22)</sup> 하였다. 그러나 해방후의 사태 또한 수운은 예언하고 있다. 즉, “무병지란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한울님께 복록받아 수명은 내게 비러라” 하였다. 왜적은 소멸되었으나 완전보전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무병지란은 계속된다.”고 하였다. 즉, 무병지란이 지난 후에야 완전독립이 된다는 의미이다. ‘무병지란이 끝나고 만국병마가 자퇴할 방책은 무엇이나’ 이것에 대한 대답을 청우당은 신인간으로 극복하자고 한다. 조선혼을 가지고 동귀일체가 되는 것이 청우당의 보국목적이다.

21) 이돈화, 『당지』 평양: 천도교청우당 중앙당선전부, 1947, 36-37쪽.

22) 『용담유사』 「안심가」.

보국의 다음 단계는 안민이다. 안민은 민주적 정권과 민주적 생활권을 말한다. 보국이 완전독립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일시의 타율에 의한 독립과 같은 것은 도리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퇴보의 길이다. 그러면 완전독립으로 향구 안민의 방책은 무엇인가.

보국 뒤의 안민의 단계는 완전독립과 향구적인 안민의 방책을 말한다. 보국을 통한 민족주의의 실현은 하나의 국가가 설립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의 실현인 보국의 추구는 당연한 것이다. 보국의 실현이 이루어지면 그 독립된 국가의 발전과 보존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안민으로 실현된다. 안민은 국민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경제적 기초의 성립과 자치적 치안의 유지 그리고 끝으로 그러한 정치적 독립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함양을 위한 정치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나친 보국안민의 강조는 퇴행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동학사상이 추구하는 마지막 민족통일국가론은 민족주의를 뛰어 넘는 인류주의, 세계주의를 제시하니 그것이 포덕천하이다.

포덕천하(지상천국)는 통일된 민족국가에 지향해야 할 동학의 이상이다. 청우당은 엄정한 이 현실을 개척하면서 지상천국의 위대한 이상에 나아가자는 것이 목적이다. 원대한 국민은 원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원대한 이상을 가질수록 엄정한 현실을 쉽게 개척한다. 사슴을 쫓는 자 태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사슴은 이상이라 하면 태산은 현실이다. 사슴 쫓는 일에 희망의 세력이 집중하고 보면 태산같은 높은 곳도 부지중에 답과한다는 뜻이다. 청우당은 그러한 이상을 현실세계에서 추구하는 이념정당이다.

이처럼 동학 천도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세계관은 후천개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이다. 이것은 인간은 한울을 모신 존귀한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동학의 세계는 상호경쟁이 아닌 공존과 조화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를 바탕으로 상생의 질서를 요구한다. 그것은 동학의 동귀일체이념에서 두드러지는데 수운은 동귀일체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sup>23)</sup> “역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던가”<sup>24)</sup>라고 하여 인류가 한 가족임을 밝혀 주고 있다. 그는 세상이 혼탁해진 근본원인을 중생들이 각자위심하여 不順天理하고 不願天命하는 데 있다고 통찰하고 각자위심의 중생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귀일체하는 새로운 도법으로 무극대도를 실천하여 지상천국건설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동귀일체는 또한 하나의 사상으로 귀일하여 결집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인합일, 個全一體의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 주체적 의미는 인간사회는 모든 개인의 결집체요, 협동체요,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부분적 존재요, 사회는 전체적 존재로서 부분적인 개인을 무시하고는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고 전체인 사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생존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상호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및 능력을 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전체의 평등을 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전체주의는 전체의 평등을 기하는데 치중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 및 능력을 말살하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는 평등을 앞세우지만 폐쇄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재와 비타협적 배타성을 지니고 비판을 거부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결함이 있다. 반대로 개인주의는 개방적으로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고정불변한 이념적 독선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불평등에 빠지기 쉽고 자유의 역설논리를 면하기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말하자면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때 자유는 스스로 자멸한다는 역설이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까지도 포괄하게 되며

23) 『용담유사』 「권학가」.

57) 『용담유사』 「교훈가」.

따라서 자유를 제한할 국가보호주의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데 국가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남용은 다시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에로 기우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sup>25)</sup>

여기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한 쪽에 편중하는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그 해결책이 동학의 동귀일체사상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의 부조화를 화합시키어 쌍전으로 조화하여 이들의 대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동귀일체이다.

동학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는 이처럼 동귀일체를 바탕으로 성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신인간이다. 신인간은 후천개벽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그는 개개인의 도성덕립을 이루어야 한다. 천도교가 끈임 없이 인격도야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군자이고 신선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 천도교가 제시한 민주적 정치와 민주적 경제, 민주적 문화가 실현되고 민주적 윤리가 사람 사는 근간을 이루는 이상국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적 국가관의 하나로 상정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국가의 정당성과 그 구성원의 가치 때문이다.

## 2) 민족자주 통일론

천도교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에 완성되었다.<sup>26)</sup> 이 방안은 북한 청우당에도 전달되고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하기로 한 통일론으로 이후 전개되는 남북한 교류의 근간이 되고 있

25)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153-154쪽 참조.

26) 이 방안은 원래 '민족자주 동귀일체 통일방안'으로 1999년 5월 29일 확정되었다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수차례에 걸친 윤독과 수정을 거쳐 2002년 11월 25일 "민족자주 통일방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다고 할 수 있다.

민족자주 통일방안은 먼저 동학은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해 왔고, 앞으로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요, 뼈요, 살이요, 혼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동안 끈임 없이 개재되어 왔던 외세의 간섭과 사대주의 풍조는 마침내 민족정신과 민족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동학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동학은 국토와 민족분단에서 뿐 아니라 사회개혁의 역사적 사명에서도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동학은 좌절과 무기력에서 떨쳐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더 이상 조타수 없는 항해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다시금 동학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자고 다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대내적 원인과 대외적 원인으로 구분해 그 처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족의 각자위심(各自爲心)</li> <li>2. 민족 자주정신 상실</li> <li>3. 이념과 체제의 극심한 대립</li> <li>4. 정치 지도자들의 자주통일 의지 미약</li> <li>5. 민족의 동질성 상실</li> <li>6. 정치·경제력 부족</li> <li>7. 도덕성 상실과 종교인들의 노력부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냉전 이후 등장한 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li> <li>2.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li> </ol>

민족자주 통일방안은 동학의 중심사상을 인내천, 보국안민, 동귀일체, 개벽으로 그 정치이념은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윤리와 신민족주의 사상으로 하며 사회이념으로는 도덕적 민주정치, 도덕적 자유순환 경제, 도덕적 문화 창달로 제시했다.

통일조국은 천도의 튼튼한 사상적 기초 위에 온 국민이 자아완성과 인화, 봉사와 도덕을 최고 가치로 알고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면서 다같이 물심양면으로 풍요를 누리며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무궁히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인류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와 세계일가의 새 세계 건설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천도교가 구상하고 실현코자 하는 통일조국의 국호는 조선으로 하고 국기는 태극기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상적 모습은 첫째, 민족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이며 둘째,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도덕적 민주국가이며 셋째, 동귀일체의 자유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넷째, 후천개벽의 도덕적 문명국가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족자주 통일론의 구체적 방안은 점진적 통일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민족의 통일 성취과정은 평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이며 국내외적인 평화와 화합은 통일조국이 완성된 뒤에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내야 할 과제이지만 통일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원칙이므로 통일과정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족자주 통일방안의 통일성취 4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정착 단계로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 당국자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기존 기본 합의서 등을 참작하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여 남북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가침 평화정착, 신뢰회복이 될 수 있도록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협정은 4자 회담, 6자 회담 등을 통하여 인접 관계국들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실한 보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해 남북한은 무력통일, 흡수통일, 혁명, 체제전복기도 등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하며 향후 평화정착이 확실히 보장되면 남북은 민족의 화합과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점차 군비축소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단계 - 남북연합 교류협력단계(2정부 2체제 1연합기구)는 현존하고 있는 남북의 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 공동으로 연합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연합기구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게 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 3 단계 - 융화 통일단계(1정부 1체제 2자치제)는 남북연합 교류협력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남북 전면교류, 남북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곧 이어 온 국민의 합의를 거쳐 통일헌법이 제정되고, 1정부 1체제 2자치제로 발전하는 융화 통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단계이다. 여기서 평화와 민족자주의 정신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참회와 정신개벽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신개벽과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며 특히 이때에 모든 종교인들은 종파를 떠나 신앙의 총역량을 조국통일에 바치면서 국민 정신개벽 운동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제 4 단계 - 완전 통일(동귀일체) 단계는 정신개벽과 자주정신 확립으로 온 민족이 동귀일체를 이루게 되면 통한의 휴전선 철조망은 철거되고 경의선·경원선 등 남북을 잇는 철도가 개통되며 남북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온 민족의 소원을 담은 통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드디어 민족자주 동귀일체 통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통일은 가시적인 비무장지대의 철조망만 걷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마음속의 철조망도

함께 걷어지는 진정한 민족자주 동귀일체 통일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운동을 달성키 위해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첫째, 정신 개혁(신인간 창조) 운동 둘째, 민족정기 선양운동 셋째, 인내천 사상 선양 운동 넷째, 삼경사상 실천운동 다섯째, 남북교류 협력운동 여섯째, 종교통합 운동 끝으로 근면·절약운동을 시급히 그리고 꾸준히 전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5. 결 론

동학에서 추구하는 통일된 민족국가는 종교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세계에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후천개혁의 단계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新人間)들의 세상, 이른바 군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천도의 실현을 현실세계에서 추구하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이념은 우리 민족의 근대적 자각을 넘어선 민족의 목표인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의 도정에서 있다. 이러한 동학 천도교의 노력은 개인의 동귀일체가 이웃과 이웃의 동귀일체로 나아가 사회전체의 동귀일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시키고 오면서 그 가운데 상당부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수 천년의 운명 공동체로 삶을 같이 영위해 온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이질성은 매우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결코 극복치 못할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많은 부분의 공통성이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한 민족임을 자각시키고 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둘을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는 것 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리는 뜻에서의 통일이다. 동학이 제기하는 동귀일체 통일론은 이런 의미에서 본래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통일론이다. 구동존이의 방법론은 이 과정을 수행시켜 주는 성실한 노력이다. 이미 갈라지고 분열되어 갈등의 차아가 두드러짐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시 원래의 하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구동존이의 첫 걸음이다. 그런 다음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급적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내어 교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 동학이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쪽의 동학민족통일회는 북쪽의 청우당과 획기적인 유대와 교류를 증진해 남북한의 공동분모를 만드는데 일익을 하고 있어 왔다. 남북의 동학민족통일회와 청우당은 이미 종교적 공통성을 넘어 이념적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통일운동의 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학정신을 공유한 가운데 전개되는 통일운동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부문의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어느 단체 못지않게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히 천도교는 남한 내 단일 종단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북한 내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붓물 터지듯 밀려오는 민간교류에 있어 천도교는 그 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간의 동학이념을 공유하는 양 단체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천도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천도교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어느 단체 못지않게 남북통합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가능성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세의 미약과 연결되는 대북교류 규모의 빈약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동학을 하던 선배들 역시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었기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내부에 있다.

교단 전체의 보수화와 그에 따른 적극성 부족이 그것인데 이 문제는 교단의 노후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단의 현대화 작업이 미진해 지면서 젊은 층의 호응과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현재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은 물론 민족의식과 정기 수호라는 차원에서도 전 국민적인 많은 관심과 질정이 요구된다. 동학은 그냥 천도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민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교로서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제6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문명의 전환<sup>1)</sup>

주요섭 (모심과 살림 연구소 부소장)

1. 촛불
2. 궁궁: 동학의 생명사상
  - 1)생명의 무늬
  - 2)전일성
  - 3)순환성
  - 4)창조성
3. 개혁: 동학의 생명운동
  - 1)개혁의 전일성과 현재성
  - 2)수행운동
  - 3)생활운동
  - 4)정치운동
  - 5)하늘사람
4. 전환: 궁을회문명
  - 1)전환의 시대
  - 2)생명의 패러다임
  - 3)전환의 기획
5. 녹색태극

1) 이 글은 학술논문이 아닙니다. 사회운동가의 입장에서 동학과 사회적 대안에 대한 관심을 나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마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된 초고 수준입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촛불

매일밤 광화문에 수만,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거대한 강물처럼, 혹은 깊은 밤을 물결치는 은하수처럼 촛불의 물결이 흐르고 또 흘렀다. 2008년 봄 광화문에서 남대문의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은 장엄했다. 그 촛불 하나하나가 수 만 송이 꽃처럼 피어났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생물학적 욕망이었을까? 아님 눈 가리고 아웅 국민을 속이는 쩌질한 권력자에 대한 분노였을까? 사회운동과 정치권을 망라한 기존 질서에 대한 풍자의 놀이판이었을까? 시민운동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촛불소녀의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처럼 태풍이 되고,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비판하던 시인과 평론가에게 새로운 꿈이 되고, 좌절한 사회운동가에게 대안의 전략이 되는 바로 그것. 촛불이었다.”<sup>2)</sup>

열망이 아니었을까? 몸의 열망이면서 마음의 열망, 혹은 전일적 생명의 열망. 그 표층은 생존의 욕구로 머물렀지만, 결국 내면엔 평화와 합일의 열망이 아니었을까?

세상만사가 그러하듯 열망도 상대적이다. 아니 관계적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배고픔의 고통과 정치적 굴종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생활이 버겁고 삶이 비루하다. 돈을 좇았지만 돈이 ‘나’를 버린다. 자살률 1위, 출산률 거꾸로 1위. 생명의 무게를 반증하며 사람들을 반생명의 나라로 떨어뜨린다.

21세기 지구자본주의 체제 아래 G20의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은 인적 자원으로, 물은 수자원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영혼을 비롯해 억조창생이 모두 상품화되는 시대에 사람을 비롯한 온 생명이 각각 그 나름으로 아름답게 꽃피어난다는 게 가능할 일일까?

2)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2008),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2008년 촛불의 기록, 한겨레 출판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무엇일까? 아이폰과 페이스북과 구글을 통해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된, 지구적 신경망과 '글로벌 브레인'은 무엇일까? 파키스탄의 대홍수와 아프리카의 대기근과 아이티의 대지진을 알고 또 무감각해지는 21세기 지구적 삶은 무엇일까?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에서 사람들이 찾으려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 2002년 서울월드컵대회에서의 '국민적 열광', 효순이 미선이와 탄핵반대의 물결, 그리고 2008년 쇠고기 파동과 광화문의 촛불의 열망은 무엇이였을까?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생태계의 위기, 세계관의 위기, 삶의 위기, 그리고 생명의 위기. 위험사회라고 한다. 물질적 풍요속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 삶의 위기는 관계의 단절의 위기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은 없다. 삶의 위기는 인간성의 상실이다.

20세 중반 수운의 시대도 역시 불안과 공포의 시대, 새 하늘 새 땅을 고대하는 열망의 시대였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매관매작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오  
전곡 쌓인 부침지도 일심은 궁궁이오  
유리걸식 패가자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위심 하는 말이 내 옳고 네 그르지<sup>3)</sup>

열망이다. 아니 욕망이다. 아니 본능이다. 19세기 조선엔 삶의 욕구, 생명의 본능이 요동친다. 궁궁을 찾아 나섰다. 전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피눈물 나는 반상·적서 차별에서 해방되고, 파렴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고향을 떠나 십승지와 궁궁촌(혹은 궁을촌)을 찾아나선다. 부침지도 세도자도 패가자도 모두가 궁궁이니 궁궁에

3)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대한 열망은 보편적이다. 보편적 열망이다. 무엇일까? 궁궁의 비밀은 무엇이고 촛불의 열망은 무엇일까?

수운의 혼원지일기(渾元之一氣)일 수도 있고, 김지하 시인이 감옥 속에서 발견한 꽃씨일 수도 있다. 그렇다. 생명이다. 동학은 결국 생명에의 열망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태, 생존, 생계, 생활을 아우르는 생명. 서양에는 루돌프 슈타이너와 전일적 세계관(holistic world-view) 혹은 에콜로지가 있겠으나, 우리에게겐 동학이 있고 생명사상이 있다. 수운이 논한 것처럼 우주생명의 길, 즉 천도(天道)는 하나이나 그 학은 서학(西學)이 아니고 동학(東學)인 것이다.

궁을회문명(弓乙回文明)이라는 전환의 패러다임도, 산불리수불리(山不利水不利) 이재주야만궁지간(利在晝夜挽弓之間)<sup>4)</sup>의 혼돈 속 질서의 비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척사와 개화를 넘어, 혹은 좌와 우를 넘어서 생명질서의 탐구, 혼돈의 질서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

동학은 하나의 생명사상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비전을 실천한 전일적인 생명운동이었다. 개혁, 의식과 삶과 체제를 바꾸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뒤틀린 관계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전환운동이었다. 먹고 살기 위한, 참 생명의 의미를 찾는 생명살림운동이었다.(해월의 향아설위는 그 전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후술.)

요컨대, 촛불의 열망과 이재궁궁의 염원, 그 키워드는 바로 삶·생명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궁궁은 생명사상의 동학적 상징인 것이다. 생명사상으로써 동학을 탐구할 일이다. 또한 동학과 해월과 수많은 접주들과 도인들의 실천은 수행, 생활, 정치를 아우르는 전일적인 생명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현대적 비전은 궁을회문명, 즉 문명의 전환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21세기 궁궁의 상징은?

## 2. 궁궁: 동학의 생명사상

4) 도선국사의 도선비결(道詵秘訣) 1편에 나온다고 한다. “병자(丙子)에 감호만국(坎胡滿國)하면 산불리수불리(山不利水不利)하고 이어궁궁(利於弓弓)이라” “병자년에는 북쪽 오랑캐가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산도, 물도 이롭지 못하고 오직 이로운 것은 궁궁이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동학의 생명사상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김지하 시인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 오문환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생명사상으로써의 동학이 조명되었다. 이제 동학사상은 한국적 생명사상 혹은 생태사상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아도 될 듯. 김지하 시인의 경우, 우주생명의 궁극은 혼 원지일기로 이해되고 기(氣)의 현대적 개념이 곧 생명이다.<sup>5)</sup> 특히 해월 최시형의 십무천(十毋天)은 곧장 생명사상의 실천강령이 된다. 천을 생명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새롭게 살아난다.

1. 무 기천 (毋欺天)하라 생명을 속이지 말라.
2. 무 만천 (毋慢天)하라 생명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3. 무 상천 (毋傷天)하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4. 무 난천 (毋亂天)하라 생명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5. 무 요천 (毋夭天)하라 생명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6. 무 오천 (毋汚天)하라 생명을 더럽히지 말라.
7. 무 뇌천 (毋餽天)하라 생명을 주리게 하지 말라.
8. 무 괴천 (毋壞天)하라 생명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9. 무 염천 (毋厭天)하라 생명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10. 무 굴천 (毋屈天)하라 생명을 굴하게 하지 말라.

현대 한국 생명운동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장일순<sup>6)</sup>은 동학의 생명사상을 천지만물막비시천주(天地萬物莫非侍天主)<sup>7)</sup>로 압축한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한울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없다. 만물이 개체생명이라면 천(天)은

5) 김지하(1994), 생명과 자치, 솔

6) 장일순(1928~1994)은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주화운동 지도자, 서예가. 특히 1980년대 이후 한 살림을 비롯한 생명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7) 동학 생명사상의 정수가 아닐 수 없다. 待人接物, 해월법설.

전체생명, 우주생명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천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상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궁궁(=궁을) 혹은 태극이 그 상징이다. 하늘의 무늬이며 생명 질서의 드러난 부분이다. 궁궁은 숨겨진 생명 질서 상징이면서 또한 지금 여기 생민(生民)의 염원과 열망의 표현이기도 한다. 동학의 생명사상은 궁궁의 발견(혹은 재발견)과 실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궁궁은 19세기 민초들의 집합적 열망의 표현이었고, 수운이 이를 전일적 생명세계로 재해석하고 해월이 이를 몸으로 보여준다.(여기서는 생명의 질서에 통찰과 그 상징으로써 궁궁. 그리고 그 자취를 생명세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 1) 생명의 무늬

궁궁(弓弓=弓乙). 수운 최제우의 열망도 민초들의 그것처럼 이 속에 담겨 있었다. 이로우름 궁궁에 있다는 이재궁궁(利在弓弓)의 그 궁궁. 피난의 생존을 위한 십승지와 궁궁촌(혹은 弓乙村)의 그 궁궁. 주유천하와 주류팔로(周流八路)의 세월을 보내며 찾아 헤매었던 궁궁, 을묘천서를 통해 영감을 얻었던 궁궁, 용담에 다시 돌아와 불출산외(不出山外) 하며 구했던 그 궁궁. 그리고 무극대도도 궁궁, 혹은 만사지의 궁궁.

19세기 조선 민중의 열망은 오로지 궁궁이다. 민초들에게 궁궁은 밥이요, 따뜻한 잠자리이며 안전한 피난처였다. 장생(長生)의 비법이다. 궁궁은 생명이다. 억조창생의 생명이다. 생계, 생태, 생활, 생존이다. 생명의 열망이다. 수운은 표피적 육체적 욕망으로서의 생명을 넘어 우주적 생명을 본다.

송송가가8) 알았으되 이재궁궁 어찌 알꼬

천운이 들렀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8) 송송가가에서 송송은 이재송송에서 온 말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송을 쫓은 경우 생존을 했다는 말이다. 가가는 1800년대 초 홍경래에 난 당시 홍경래를 따르지 않고 집(家)에 있는 자들이 목숨을 부지했다는 속설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지9)

궁궁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수운의 경험에 비추어 궁궁은 실존적인 삶의 욕구였을 것이다. 뼈아픈 적서의 차별에서 벗어나고, 개벽세상 고깃국에 쌀밥을 먹고 기와집에 살며 장생하는 삶. 전란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삶. 양이의 침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창궐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장생하는 삶.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무엇을 먹고 어디에 깃들여 살 것인가?

그렇게 '천하가 분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시절' 19세기 조선의 봄날 경신년 사월에 경상도 경주땅에서 불출산외(不出山外)를 결심하고 수련 정진하던 수운 최제우는 그 이름이 선약(仙藥)이고 그 모양이 '궁궁 혹은 태극'인 영부(靈符)를 받는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의 한 끝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무늬, 우주질서의 형상이었다. 그의 열망 역시 궁궁이었다. 그러나 그의 궁궁은 십승지나 궁궁촌이 아니었다. 태극 형상의 영부였다.

“弓乙은 吾道之符圖也요 天地之形體也니라

故로 聖人이 受之하사 以行天道하고 以濟蒼生也시니라”<sup>10)</sup>

생명세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무늬, 특징을 몇 가지를 그려낼 뿐이다. 그 첫 번째는 전일성(全一性, 혼)에 대한 통찰이다. 개체생명(사람) 안에 있는 전체생명(우주), 그리고 그 사이의 상호주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수운이 하늘로부터 들은 첫 번째 음성은 오심즉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였다.<sup>11)</sup> 궁궁 혹은 태극의 무늬는 연결된 전체를 표현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공명하는 세계를 설명한다.

9)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10) 영부주문, 해월법설

11) 논학문. 曰吾心即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 及汝無窮無窮之道 修而煉之 制其文教人 正其法布德則 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

둘째는 '순환성'에 대한 통찰이다. 논학문에서 수운은 선비들의 질문에 답하며, 주역에서 밝히는 무왕불복(無往不復)의 이치, 즉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았다고 말한다. 순환이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셋째는 창조성에 대한 통찰이다. 무위이화(無爲而化)에 대한 깨달음이다. 수운에게 생명세계는 무위이화, 무궁진화의 과정이다. 시천주조화정(시천주조화정) 함으로써 매 순간 창조적 진화를 동참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 불연기연(不然其然)의 과정이기도 하다. 공즉시색과 그것과 같이 고정된 것이 없다. 삶 자체가 창조적 개혁의 연속이다.

궁궁은 이러한 생명세계의 무늬이다. 하늘도 생명도 정의할 수 없다. 수운은 논학문에서 21자 주문에 대해 한자 한자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유독 천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마치 신을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 혹은 생명세계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슬람이 마호멧을 묘사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런 탓일 것이다. 다만 생명세계 혹은 하늘의 도는 그 자취로만 짐작할 뿐이다. 궁궁 혹은 태극이 바로 생명의 무늬, 하늘의 무늬인 것이다.

태극 문양의 그것. 음양 혹은 삼태극의 천지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로 돌아가는 순환의 연결고리, 변화와 진화의 이치를 그려 보인다. 현대 과학이 그려내는 생명의 무늬도 궁궁의 그것과 비슷하다. 유전자의 나선구조, 소용돌이 모양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과학자 후쿠오카신이치는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동적 평형]이라는 책에서 소용돌이가 "생명과 자연의 순환성을 상징화하는 문양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한다.

궁궁 혹은 태극이라는 말처럼 삶·생명은 이중적이다. 체와 용처럼 생명은 명사, 삶은 동사이다. 궁궁은 움직임, 태극의 존재의 실상처럼 보인다. 삶·생명은 욕망과 열망의 이중주이다. 이밥에 고깃국과 우주생명과의 합일의 이중적 열망. 충위를 배제한다면 매슬로우의 자기실현의 욕망과 존경이라는 사회적 욕망, 성과 식 등의 생물학적 욕망의 공존이다. 요컨대 삶·생명의 욕망·열망이다.

열망에는 네거티브 열망과 포지티브 열망이 있다. 궁궁촌을 찾아헤매는 100년 민초들에겐 네거티브 열망이 있었다. 전란을 피하고 피질에서 벗어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나고 굶주림을 면하는 생존의 열망이다. 그런데 수운과 해월은 민초들의 네거티브 열망을 포지티브 열망으로 전환시켰다. 수운은 아버지처럼, 해월은 어머니처럼, 천지부모로 억조창생의 생사고락을 걱정하고 함께한다.

궁궁, 새로운 삶의 원형은 시사한다. 전일성, 순환성, 창조성의 그것. 사회적, 생태적, 우주적 차원에서의 공생과 순환, 창조의 생활양식을 예감케 한다.

### 2) 전일성(全一性)

사실 동아시아에서 생명사상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서구의 근대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연의 대상화되지 않았다. 개조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와 공존의 한 주체였다. 오히려 인간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생명세계의 전일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적 관점 중의 하나가 삼재론이다. 수운도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바탕으로 생명세계를 펼쳐보인다. 하늘은 오행의 버리가 되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된다. 생명세계는 시간(天)×공간(地)×인간(人)의 묘합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표1. 삼재론으로 본 생명세계와 삶의 모습

	天(우주생명)	地(지구생명)	人(인간생명)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삶의 모습	우주 영적인 삶	생태적 삶	사회적 삶
성격	영성	감성	이성
관계 방식	예술·종교(문화)	노동·경제	정치·사회
운동영역	영성·문화 운동	환경·생태 운동	자치·상생체 운동
윤리	敬天	敬物	敬人
개혁	정신개혁	물질개혁	사회개혁
	待天(모습)...수운	養天(기름)...해월	體天(살림)...의암

12) 논학문, 동경대전

삼재의 세계는 3중 열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영적인 삶과 생태적 삶과 사회적 삶의 삼태극적 열망. 열망의 3원 구조라고나 할까.

그런데 삼재의 존재론은 상호주체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세계의 전체성을 획득한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하늘의 음성은 나의 몸과 마음에 시간적으로 축적되고 공간적으로 확장된 공시적 통시적 전체라는 선언이다. 즉 개체생명과 전체생명(우주생명)과의 합일이다.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sup>13)14)</sup>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나는 밤 하늘의 별 하나, 우주적 화원의 꽃 한 송이다.

수운의 侍에 대한 해석도 그 전체성을 잘 드러낸다. 수운에 의하면 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다.<sup>15)</sup> 이때 이 각지불이(各知不移)가 각각의 개체생명이 깨닫는 전일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한다.

개체생명과 개체생명과 관계도 상호주체적이다. 물오동포(物吾同胞), 즉 인간은 자연이라는 어머니에게서 함께 태어났으니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한 형제인 것이다. 특별히 대인접물에서 보여지는 생명에 대한 해월은 태도는 차라리 아름답다.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 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 할 것이오,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sup>16)</sup>

13)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0-21)

14) 천주, 즉 인격적 한울님사상 을묘천서와 시험 이야기, 를 비롯해 기독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듯. 한반도의 특징, 유목적 한울님사상이 면면히 있었던 것.

15) 논학문, 동경대전.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16) 대인접물, 해월법설. 萬物莫非侍天主 能知此理則 殺生不禁而自禁矣 雀之卵 不破以後 鳳凰來儀草木之苗 不折以後 山林茂盛矣 手折花枝則 未摘其實 遺棄廢物則 不得致富 羽族三千 各有其類 毛蟲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3) 순환성

생명의 세계는 순환한다. 사시성쇠(四時盛衰)나 생장소멸(生長消滅)로 순환한다. 무왕불복(無往不復),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다.

신유년에 이르러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와서 묻는다.

“지금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였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하시기를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니라.”<sup>17)</sup>

생명의 무늬, 궁궁 혹은 태극 자체가 순환의 이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용담유사에서는 이 순환의 이치를 소박하게 표현한다.

부하고 귀한사람 이전시절 빈천이오

빈하고 천한사람 오는시절 부귀로세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 하시나니

물이 고이면 썩는다. 구조화되고 폐쇄적으로 고착되어 썩어문드러진 시대에 순환은 그 자체로 불온한 기운이 된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권력자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그것은 혁명이다. 19세기 조선사회는 ‘순환’이라는 척도로 보아도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부와 권력이 신분제를 통해 괴물처럼 집중화되고 사회적 순환, 경제적 순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경제성장제일주의 시대 경제적 부가 독점되는 양극화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생명은 순환함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한다. 인간생명의 항상성이나

---

三千各有其命 敬物則德及萬方矣

17) 논학문, 轉至辛酉四方賢士進我而問曰 今天靈降臨先生何爲其然也 曰 受其無往不復之理

생태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순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가 들고 대기와 호흡하고 정보와 사회적 자원이 적절하게 소통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순환은 녹색 혹은 에콜로지의 척도, 건강한 사회의 척도다.

내 恒常 말할 때에 物物天이요 事事天이라 하였나니, 萬若 이 理致를 是認한다 면 物物이 다 以天食天아님이 없을지니, 以天食天은 어찌 생각하면 理에 相合치 않음 과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人心의 偏見으로 보는 말이요, 萬一 한울 全體로 본다하면 한울이 한울 全體을 키우기 爲하여 同質이 된 자는 相互扶助로써 서로 氣化를 이루게 하고, 異質이 된 者는 以天食天으로써 서로 氣化를 通하게 하는 것이니,18)

해월의 생명순환에 대한 통찰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천식천은 그 자체로 생명 순환의 원리를 표현한다. 해월은 이천식천을 설명하기에 앞서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세상 만물이 곧 한울이며, 모든 일에 한울의 작용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밥 한 그릇’에도 한울의 우주·생태적 작용이 오롯이 모아져 있으며,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는 물(物)과 물(物)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먹이연쇄가 연상되기도 한다. 동물이 식물을 먹고, 식물이 무기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모두 이천식천인 셈이다. 넓게 보면 생명의 순환 과정이나 공생관계, 즉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생명의 그물망’이라고나 할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되갚는 ‘호혜의 관계망’이라고나 할까.

#### 4) 창조성

그런데 그 순환의 과정은 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다. ‘기계적 순환’은 반복

18) 이천식천, 해월법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이나 '생명의 순환'은 똑 같은 반복이 없다. 매번 다르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것도 천체의 좌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반복이 아니다.

무위이화는 생성(生成)이다. 생명은 외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난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를 일러 자기생성, 혹은 자기생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창조적 진화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창조성의 원천은 무엇일까? 수운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 서구적 표현으로 말하면 영성(spirituality)이다. 인간의 정신성이 창조의 동력이며 이 정신성이 우주정신과 묘합될 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sup>19)</sup>

창조적 진화는 불연기연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있다. 불연기연은 한자 말 그대로 '아니다(不然) 그렇다(其然)'이다. <한살림선언>은 이를 동학식으로 표현된 진화의 문법이라고 말하기도 한한다. '아니다 그렇다'는 아니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아니다. 세계를 이분법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생성변화의 과정으로 본다는 뜻이다.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새롭게 생겨난다. 이렇듯 생명과정은 매 순간이 창조와 개벽이다.

### 3. 개벽: 동학의 생명운동

궁궁이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통찰을 상징한다면, 개벽은 그에 기반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실천을 상징한다. 궁궁이 동학적 생명사상의

---

19) 논학문, 동경대전.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메타포라면, 개혁은 동학적 생명운동의 키워드이다. 동학은 단지 사상으로 써만이 아니라 혹은 종교적 실천으로만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며 삶의 전환이며 체제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혁운동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영화 아바타 식으로 말하면 수운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생명 세계의 본래면목을 보았고("I see You"), 해월은 억조창생의 사랑으로 이를 실현했다. 해월은 삶 자체로 사람을 비롯한 생명세계관 그의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대안적 삶의 원형이었으며 개혁적 삶 그 자체였다.

그것은 광제창생(廣濟蒼生)으로 사회화된다. 광제창생이 곧 생명살림운동, 생명공동체운동, 생명평화운동이다. 널리 생민(生民)을 구하는 것이 생명사상의 출발이다. 억조창생의 생사고락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동학의 생명사상이다. 창생은 물론 인민,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창생(蒼生)이 어찌 사람뿐일까. 더욱이 사람이 곧 하늘이요. 우주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주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 1) 개혁의 전일성과 현재성

“이 세상의 운수는 개혁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리어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느냐”<sup>20)</sup>

생명세계의 전일성(‘하나’이면서 ‘모두’)은 천지인 삼재로 표현되고, 후천개혁의 필요성은 그 삼재의 위기에서 기인한다. 위기(危機), 천지인 세 기틀이 위태롭다. 그 위기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실존적이다. 굶주리고 병들고 핍박받는 현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궁궁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機會)이기도 하다. “생명(새로운 질서)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는 생명학의 고전적인 경구처럼 말이다. 천지인

---

20) 개혁운수, 해월법설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삼재의 세 기틀이 재구성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이도 한 것이다.

기회는 열망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다가 온다. 수많은 도참과 비결처럼 궁궁촌을 찾아 ‘피난(避難)’하는 것이 답이었다면 동학은 없었을 것이다. 궁궁이라는 생명의 질서를 깨닫고 삶의 대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동학은 살아있는 생명운동이 되었다. 열망의 조직화이고 열망의 사회·정치화다. 생명세계가 전일적이듯이 열망도 전일적이다. 내면의 평화로 완성되는 생명의 열망은 생활의 필요를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하고, 체제를 변혁하는 정치적 에너지로 폭발하기도 한다. 김구의 열망이 그 증거 중 하나이다.

마음이 좋은 사람(好心人)이 되기를 진심으로 맹세한 나에게는 天主를 몸에 모시고 體天行道한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쏙혔으며, 또 상놈 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로서는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대우를 철폐한다는 말이나, 이조의 운수가 끝났으니 장래의 신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에는 참으로 가슴이 뛰고 끓었다.<sup>21)</sup>

‘개벽의 전일성’이다. 천지인 삼재의 세계관은 변혁의 전일성을 추동한다. 또한 동학의 후천개벽은 지금 여기의 혁명, 지금 여기의 유토피아다. ‘개벽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안의 한울님에 대한 자각(覺天)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은 나를 기존질서의 전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삶과 세계를 지금 여기서 실현토록 고무한다.

그것은 접이라는 기초조직의 3중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난다. 수운은 하늘로 돌아가기 1년전 그간의 도인들을 묶어 16개의 접(接)을 만든다. 그리고 해월은 수운 사후 피멸적인 탄압속에서도 36년동안의 도바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김용옥은 이렇게 표현한다. “실오라기 같은 전수(傳受)를 조선을 망라한 교직으로 엮어내었다.”

동학의 접은 기본적으로 수행조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천

---

21) 김구, 백범일지

지인 삼재의 전일적 공동체였다. 살아있는 궁궁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동학의 접은

천, 시천주를 통해 하늘사람이 되는 '수행공동체'였다.(수행운동)

지, 치병(治病)과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생활공동체'였다.(생활운동)

인, 체제 변혁을 위한 '정치공동체'였다.(사회·정치운동)

이는 삼재와 더불어 해월의 경천, 경물, 경인의 삼경(三敬)론의 구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전일적 깨달음은 전일적으로 실천되며, 그것은 윤리일 뿐 아니라 지상신선, 지상천국이기도 한 것이다.

## 2) 수행운동

개벽운동, 즉 동학적 생명운동의 중심은 궁궁에서 보았듯이 분명 생명세계에 대한 통찰과 우주적 합일을 추구하는 영성운동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제 3자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모심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군자가 되고 진인(眞人)이 되고 신선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하늘님, 만인성인이다. 천자나 대속자나 대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늘님이 된다. 그야말로 자재연원(自在淵源)이다.

동학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심고(心告)와 수심정기(守心正氣)를 통해 매 순간 깨어있는 일상의 수행을 지속한다. 몸을 닦는 수련도 중요하다. 수운의 칼노래 칼춤은 한 예이다. 또한 개접(開接)을 하여 집중적인 수련기간을 갖기도 한다.

동학의 정신개벽운동의 정수는 해월의 향아설위(向我設位)이지 않을까? 궁궁이 새로운 삶의 원형이라면, 향아설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한다. 삶의 패러다임, 지금 여기의 패러다임. 왜 나를 향해 제사를 모셔야 하는가? 해월의 답은 간명하다.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 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를 이어 나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배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배푸는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sup>22)</sup>

벽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선조 즉 과거의 시간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를 향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현재의 시간 속에 활동하는 것이다. 개혁의 현재성이다. 지금 여기의 모심. 더욱이 현재성은 일상성을 통해 바다와 같은 확장을 이룬다. '제사(祭祀)'는 곧 '식사(食事)'인 셈이다. 일상의 나를 향해 내안에 조상님과 우주생명의 시공간적 응축을 모시고(侍天, 모심), 길러내어(養天, 기름) 살리는 일(體天, 살림). 이것이 동학의 수행, 일용행사의 도인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일용행사가 도 아님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착해짐에 천하가 착해지고,  
한 사람이 화해짐에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짐에 천하가 같이 화하리니,  
비 내리듯 하는 것을 누가 능히 막으리오.

### 3) 생활운동

22) 향이설위, 해월법설. 我之父母 自始祖以至於幾萬代 繼承血氣而至我也 又父母之心靈 自天主幾萬代 繼承而至我也 父母之死後血氣 存遺於我也 心靈與精神 存遺於我也 故奉祀設位爲其子孫而本位也 平時食事樣 設位以後 致極誠心告 父母生存時教訓 遺業之情 思而誓之可也

23) 대인접물, 해월법설. 日用行事莫非道也 一人善之天下善之 一人和之一家和之一國和之一國和之天下同和矣 沛然孰能御之

동학의 접은 인맥조직이다. 생활조직이기도 하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같은 접의 도인들은 가족처럼 지냈다. 일가친척이 많았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sup>24)</sup> 해월은 실제로 여러 차례 통유문을 통해 유무상자와 빈궁상홀(貧窮相恤)을 권고한다.

오문환은 포접에 대하여 접은 영적 조직, 포는 정치사회적 조직으로 본다.<sup>25)</sup>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기포(起包)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벽운동은 일음일양, 외면적 힘의 확장과 내면적 영성 심화가 파동의 형상으로 심화 확장한다.”고 보는 관점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영성공동체와 정치혁명 사이, 생활이 중심으로 잡는다. 고깃국에 이밥에 대한 민초들의 관심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해월도 개벽운수에서 세속적이지만 현실적인 열망의 일단을 수용한다. “우리 도인의 지금에 보는 정상으로는 보리밥에 거칠은 옷을 입고 도를 닦으나, 이 다음에는 능히 높고 큰 집에 살면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도를 닦으리라”<sup>26)</sup>

조경달(2008)에 따르면 동학이 백성들의 인심을 끈 주된 이유도 주의나 목적보다 현실적인 것들이 주효했다고 한다. 예컨대 입도만 하면 경어를 써주고 존대하며, 둘째 유무상자로 집안식구처럼 서로 먹여주는 평등한 관계, 공동체적 관계가 민초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욕구들은 궁궁의 열망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으며, 동학의 생활공동체는 이미 궁궁촌이었던 것이다. 김용옥(2004)은 이러한 생활공동체를 두고서 생활을 나누는 일종의 '소셜 클럽'이라고 보기도 한다.

유무상자와 더불어 동학의 생활공동체운동에 중요한 부분이 치병, 병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칠조목을 하나도 잊지말고 매매사사를 다 한울님께 고하오면, 병과

24) 표영삼(2004), p224

25) 오문환, 영성과 혁명의 변증법, 해월...

26) 개벽운수, 해월설법. 吾道人 目下之情 麥飯疎衣而修道 以後能居高樓巨閣而 食白飯着錦衣依坐錦布而修道矣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윤감(輪感)을 아니하고, 악질과 장학(癘)을 아니하오며, 별복(臙腹)과 초학(初癘)을 아니하오며, 간질(癩疾)과 풍병(風病)이라도 다 나오리니, 부디 정성하고 공경하고 믿어 하옵소서. 병도 나오려니와 위선 대도를 속히 통할 것이니, 그리 알고 진심 봉행하옵소서.<sup>27)</sup>

수운도 영부를 통해 환골탈태의 체험을 보여준다. 또한 동학의 창도 자체가 만연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장생(長生)의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또한 해월은 내수도문(內修道文) 등을 통해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규칙을 적시하기도 하고 규칙을 지킴으로써 온갖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sup>28)</sup>

더불어 생태친화적 생활, 공생하는 생활의 모범을 제시하기도 한다.<sup>29)</sup>

생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해월이 계(契)를 만든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66년 수운 탄생 기념식에서 해월은 계 조직 발의하여 연 2회씩 모여 4전씩 염출을 하여 탄새 기념식 치르기로 한다.

### 4) 정치운동

동학의 역사는 정치운동사이기도 했다.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1904년 흑의단발(黑衣斷髮)의 대중적 문화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던 갑진개화운동, 1919년 기미 삼일독립운동, 그리고 식민통치에 맞서는 지하당운동과 해방후 천도교청우당과 신의주 3.1재현운동 등.

동학의 개혁운동은 수행운동에 중심을 두되 ‘정신개혁’, ‘사회개혁’, ‘민족개혁’이 시사하듯 정치운동으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

27) 내수도문, 해월설법.

28) 내수도문, 해월설법. “먹던 밥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침채 새 침채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던 밥과 국과 침채와 장과 반찬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옵소서.”

29) 내수도문, 해월설법. “가신 물이나 아무 물이나 땅에 부을 때에 멀리 뿌리지 말며, 가래침을 멀리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며, 침과 코가 땅에 떨어지거든 닦아 없이 하고,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물을 멀리 뿌리면 곧 천지부모님 얼굴에 뱉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아시고 조심하옵소서.”

마도 시대 탓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시대 궁궁의 열망이었을 것이고.<sup>30)</sup>

19세기 조선에 보국안민의 길은 세 개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편으로 체제내적 개혁을 통해 비성리학적 도발을 척결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위정척사의 길. 둘째, 봉건왕조를 무너뜨리고 서구적 근대국가를 이루려는 이른바 개화(開化)의 길, 셋째, 그리고 개화와 위정척사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을 세계를 열망한 동학의 개벽운동.

정치사회적 개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불연기연, 여기에서 수운의 좌절과 분노와 변혁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 불연기연은 분명 '아니다그렇다'의 이중적·모순적 생명질서를 표현한다. 색즉시공처럼 고정되지 않은 동적 평형의 생명질서의 특징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연기연의 '아니다'에는 '적서차별'에 분명한 반대의지와 분노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도학자의 집안으로써 성리학적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적서차별에 시작된 문제의식은 생명의 보편성을 열쇠로 종횡으로 확장된다.

무릇 이와 같은 즉 불연은 알지 못하므로 불연을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연을 믿는 것이다.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어본 즉 만물 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큰 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하물며 또한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삶이 없고, 어찌하여 삶이 없는가.<sup>31)</sup>

동학이 척사의 대상이었으니 '위정척사'도 아니다. 그러나 총칼을 앞세운 제국의 침략은 더더욱 아니다. 먼 훗날의 일이었지만 척왜양(斥倭洋)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동학의 정치적 지향은? 조정달(2008)은 동학농민혁명의 지향이 '비자본주의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말한다.(p23) 봉건적 질서에도 저항하였으나 "근대적 자유 자립을 획득하는

30) 김용옥(2004)은 아예 동학은 사회적 관심에서 출발한 운동이며 종교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동학을 평범한 종교운동으로 전락시킨 것은 1905년 이후 천도교라는 교단조직을 만든 후라는 것이다. 또한 김용옥은 동학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관계망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바로 '동학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다.

31) 불연기연, 동경대전.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름의 길, 나름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궁궁의 길이요, 개혁의 전망이다. 이재송송도 아니고, 이재가가도 아닌 이재궁궁. 위정척사와 개화를 넘어서 동학적 제3의 길.

어떤 이들은 동학과 의병의 연대(김지하, 1994), 동학과 개화파의 연대(최원식)가 이루어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특히 최원식은 청나라의 중화체제의 붕괴 이후 “간난한 위기를 창조적 기회로 바꿀 농민군과 개화파 두 주체가 공멸함으로써 조선의 식민화는 이때 이미 결정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라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갑오년의 조급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갑오년 1차 봉기 이후, 집강소와 도소의 자치로 동학의 길의 일단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참담한 패배는 동학적 제3의 길을 실천할 기회를 사라지게 하였다.<sup>32)</sup>

### 5) 하늘사람: 해월의 경우

이 셋은 하나였다. 일상을 나누고 수행하는 조직이 때가 되자 혁명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조직도 운동도 결국 사람으로 실현된다. 하늘사람, 진인, 혹은 군자. 결국 동학은 신인간, 새 사람되기 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문환의 논술은 선언의 가치가 있다.

“새로이 태어나야 할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sup>33)</sup>

결국 개혁의 목표는 사람의 문제, 즉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이다. 그

32) 그러나 사회정치적 개혁을 위한 동학의 길은 계속된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면모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천도교청우당 당원의 주의사항에서 그 일단을 느낄 수 있다.

첫째, 각 부문운동에 있어 기본적으로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총심성, 총욕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전체운동(천도)에 합류함을 인식할 것.

둘째, 각 부문의 민중에 향하여 사람이 잘 사는 것이란 일면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우주가 하나인 그 자리 그 방략을 찾아 나아가는 데에 있는 것을 알리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 동시에 그때, 그 땅의 최첨단을 걷는 진리(인내천)를 파지 수련함에 있는 것임을 인식할 것.

셋째 민중이 차후 천도를 믿고 따라 후천개벽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33) 오문환, 생명중심과 생명활동

리고 해월에게서 하늘사람을 본다. 노동자 해월, 통속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결국 인생의 본질은 노동과 사랑이라고 하지 않던가?

해월신사는 경주에서 6세에 어머니를, 1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였다. 그러다가 17세에 친척(?)의 소개로 한지공장(제지소) 일꾼으로 들어가 28세까지 일했다. 그리고 28세 때엔 승광면 마복동 산골로 이사해 농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해월신사의 형편으로는 평야지대에 살림을 차릴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깊은 산중 마을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33세때엔 검곡이라는 이름의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화전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후로 37세 때까지 약 5년여간 화전민 생활을 한다.<sup>34)</sup>

요컨대 해월의 삶은 민초들의 삶의 전형이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 삶에 대한 보편적 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는 이야기다. 수운을 만나고 수련에 정진하고 수운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36년의 도바리 생활. 수운을 만나 삶에 대한 보편적 깨달음을 얻었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 말 그대로 체천행도.

‘피덩어리’였기에 분노도 있었다. 해월은 진노한 안색을 띠고 순 경상도 어조로 외쳤다. “호랑이가 물자고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갑오년 4월 이렇게 기포령을 내린다.

전봉준은 향반으로써 나라를 걱정하는 신실한 우국지사였다. 글을 읽고 잡술을 배웠으며 농사도 노동도 그리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라 걱정에 백성들 걱정에 대원군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김개남의 정치적 야심이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혁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월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사람이 하늘이다. 인시천(人是天)은 일종의 역성혁명론이다. 하늘의 뜻은 곧 사람의 뜻, 하늘의 뜻은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의 뜻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촛불과 같은 민초들의 열망 말이다. 이때 혁명(革命), 명이라는 하늘의 오더가 바뀐다. 하늘의 오더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원군은 나름의 일관성은 있으나 정세에 내몰려 조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더욱

34) 표영삼, 답사기, 신인간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이 권력정치가 불가피 하더라도 생명의 원칙은 절실하다. 비폭력. 햇불도 필요하나 햇불만으론 안 된다. 촛불의 마음이 먼저다.

열망도 여러 가지, 네거티브 열망과 포지티브의 열망이 있다. 혁명적 에너지는 네거티브 열망의 폭발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노동, 생명의 보편적 열망으로 생명세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보았다, I See You'의 체험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전봉준의 정치적 열망은 수만, 수십만명의 생명을 잃으며 비극적으로 종국 되었다. 억조창생의 생사고락을 염려하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했던 해월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사랑이다. 하루 2만 번의 시천주 주문을 외운다. 날이면 날마다 쉼을 짓고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해월의 죽음, 허심하고 자유롭게 무왕불복의 생명세계로 돌아간다. 사형을 앞두고 떡을 빻어 죄수들을 먹이는 그 마음을 어찌 따를 수 있을까? 장생이다. 영원히 살아있다.

### 4. 전환: 궁을회문명

동학의 생명사상은 보편적이다. 동학의 생명운동은 확장성이 있다. 촛불도 필요하고 햇불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화톳불도 절실하다.

수운이 궁궁의 이치, 궁궁의 열망을 통찰하고 체감한 지 150여년, 21세기 한반도와 지구촌의 궁궁은 무엇일까? 궁을(궁궁)이 문명을 바꾼다. 궁을회문명(弓乙回文明)의 의미는 무엇일까? 산불리수불리(山不利水不利) 이 재주야만궁지간(利在晝夜挽弓之間)의 의미는 무엇일까?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아니하리라.

이로운 것은 밤낮 활을 당기는 사이에 있느니라.<sup>35)</sup>

## 1) 전환의 시대

백년중일변(百年中一變)의 한반도와 지구촌은 이미 새로운 세계다. 19세기와 비교할 수가 없다. 21세기 초 우리의 삶은 지구적 자본주의가 규정한다. 물론 삶의 불안은 여전하다. 생존의 궁극은 면하였으나 불안과 공포와 열패감은 여전하다.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패권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현실이 되고, 다른 한편 디지털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어 진보에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대전환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이란 말인가? 피터 드러커의 말대로 정녕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 최소한 산업문명의 근본적 한계가 거듭 드러나고 있다. '성장의 한계'와 '경쟁의 한계'. 성장의 한계는 너무도 유명한 로마클럽의 보고서다. 1972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과 생산력주의에 경고를 보내며 지구환경의 위기를 예고했다. 그리고 30여년이 흐른 2000년 이른바 리스본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서 '경쟁의 한계'<sup>36)</sup>를 경고한다. 시장원리주의, 경쟁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함몰된 지구촌에 비경쟁체제와 공동협력을 위한 지구촌계약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성장의 한계와 경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글로벌에코빌리지 네트워크(www.gaia.org)는 이렇게 묻는다. '돈의 길' money based path인가? 삶의 길 'life based path'인가? 궁극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1989년 한국의 한살림선언은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안하며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명의 전환'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함한 생산력주의와 산업문명을 넘어서 '생명의 지평'을 선언했다.<sup>37)</sup>

35) 강시, 해월법설.

36) 리스본그룹(2000), 경쟁의 한계, 바다출판사

37) 한살림선언은 1989년 당시 도농직거래 중심의 생활협동운동을 펼치던 한살림공동체생활협동조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2) 생명의 패러다임

궁을회문명, 궁궁의 패러다임은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한다. 사회진화론이나 사적유물론이 아닌, 생명의 세계관으로써 제3의 길을 탐색한다. 사회진화론의 세계는 주지하다시피 자유로운 경쟁과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시장원리주의와 맥이 닿아있다. 사적유물론의 세계는, 물론 지금은 매우 약해졌지만, 과학적이고 필연적이고 유도피아적이다.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언한다. 서유럽의 녹색(초록, green)은 이에 대해 이 모두를 산업문명의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한다. 그린의 관점에서 산업주의·자본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며 요소론과 환원주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이다.

초록·생명의 세계는 개체생명 하나하나가 전체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연결된 생명의 그물이다. 상대가 있음으로 내가 있으니 공생(共生)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자연생태계 사이에도 공생과 호혜(互惠)다. 공생과 호혜는 사랑이다. 우애와 박애와 형제애의 그 사랑이다. 생명의 세계는 객관적이지 않다. 상호주관적이다. 생명의 세계는 관계 자체이며 관계적으로만 존재한다. 생명의 세계는 순환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순환함으로써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생태계의 순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경제적 순환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유통-소비-재생의 순환이 끊기면 구조적 위기가 닥쳐온다. 돈도 돌아야 돈이다.

#### <세 개의 패러다임(서유럽 녹색운동의 틀을 빌어서)>38)

---

합과는 별도로 생명문화운동을 위해 만든 <한살림모임>의 창립과 함께 발표되었다. 생명운동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원주의 장일순, 시인 김지하, 한살림운동을 이끌어왔던 박재일, 한살림선언을 대표 집필한 최혜성이 선언문의 정리에 참여했다.

특히 한살림선언은 주요 개념과 철학적 구조는 동학에서 빌어왔다. 4장은 동학사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물건과 더불어 다 같이 공경해야 할 한울이다. 둘째.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을 모시고 있다. 셋째. 사람은 마땅히 한울을 길러야 한다. 넷째.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젖이다. 다섯째. 사람은 한울을 체현해야 한다. 여섯째. 개혁은 창조적 진화이다. 일곱째. 불연기연(不然其然)은 창조적 진화의 논리이다.

38) 색깔 구분은 전적으로 서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으로 표현된다. 또

	청색의 패러다임	적색의 패러다임	녹색의 패러다임
세계관적 기초	사회진화론(근대과학)	역사적 유물론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중심 가치	자유	평등	박애
정치이념	자본주의	사회주의	뉴아나키즘, 신공동체주의
중심 부문1	시장	국가	(시민)사회
중심 부문2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목표	발전	진보	창조
사회적 기반 (주체)	자본·기업가 (계몽된 부르주아지)	노동계급 (의식화된 노동자)	주변화된 존재 (열망하는 民)
사회경제적 목표	성장	분배	균형
사회경제적 원리	교환	재분배	호혜
경제학적 중심점	효용·효율	노동(생산)	순환
주된 경제주체	기업(주식회사)	기업+노동조합	협동조합+개인
자연에 대한 태도	개발	개발·고려	공생
조직	대중(mass)	결사체(association)	네트워크(network)
리더십	기업가형	혁명·조직가형	예술·종교가형
국가상	시장국가	복지국가	平和국가

물론 생명세계엔 청색과 적색과 녹색이 공존한다. 자유도 평등도 박애도 모두 소중하다. 오히려 시장과 국가에 대해 '사회'를 강조하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 '문화'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척도인 '발전'과 '진보' 대신 '창조'적 자기실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은 생산의 3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활동의 한 측면이다.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전환, 생태적 공생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도 좋지만, 오히려 생태·경제적 균형을 중요시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잘 알다시피 ecology와 economy는 eco/가정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 더욱 그렇다.). 시장에서의 교환 원리와 국가의 재분배 원리도 사회

하나 국가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 이상은 평화국가 아닐까. 여기서 평화국가의 평화는 peace의 의미도 있겠으나, 생명평화의 '평화', 즉 平和의 한자뜻 그대로 균형(balance)과 조화(harmony)를 뜻한다. 천(정신)·지(환경)·인(사회) 삼재의 平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적 진화의 동력이 되지만, 사회·공동체에서의 호혜의 원리를 복원할 때에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나 생태계의 순환이 그러하듯 ‘돈’도 경제도 돌아야 한다. 생명의 항상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돌아야 한다. 돌지 않으면 죽음이다. 효율 만능은 삶을 깡마르게 하고 생산에 대한 강조는 비만이거나 제살 깎아먹기가 된다.<sup>39)</sup>

### 3) 전환의 기획

앞서 보았듯이 21세기 초엽 우리에게 세 개의 길이 있다. 19세 말 조선의 보국안민의 세 가지 길에 비견된다. 위정척사에 대응하는 보수·우파의 길, 개방과 세계화를 통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강화한다. 개화에 대응하는 진보·좌파의 길, 유럽형 사민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개혁의 전망에 대응하여 생명·평화의 길, 생명의 패러다임에 의거한 대안사회를 모색한다.

이는 전환의 기획이기도 하다. 척사와 개화를 넘어 개혁이 그러하듯,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넘어서 산업문명 이후,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전환은 미래의 비전이기도 하거니와 엄중한 현재적 과제이기도 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위기는 생태적 전환을 강제한다. 둘째,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구조적인 양극화·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체제의 위기는 사회적 전환을 촉구한다. 셋째, 자아로부터 분열되고 이웃과 단절된 인간성의 위기와 생태·사회적 위기는 세계관·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한다.<sup>40)</sup>

개혁이 그러하듯 전환 역시 중심이동이다. 적색의 패러다임과 청색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가치와 지배적 질서를 전환한다.

첫째, 세계관의 전환이다. 정신운동을 통해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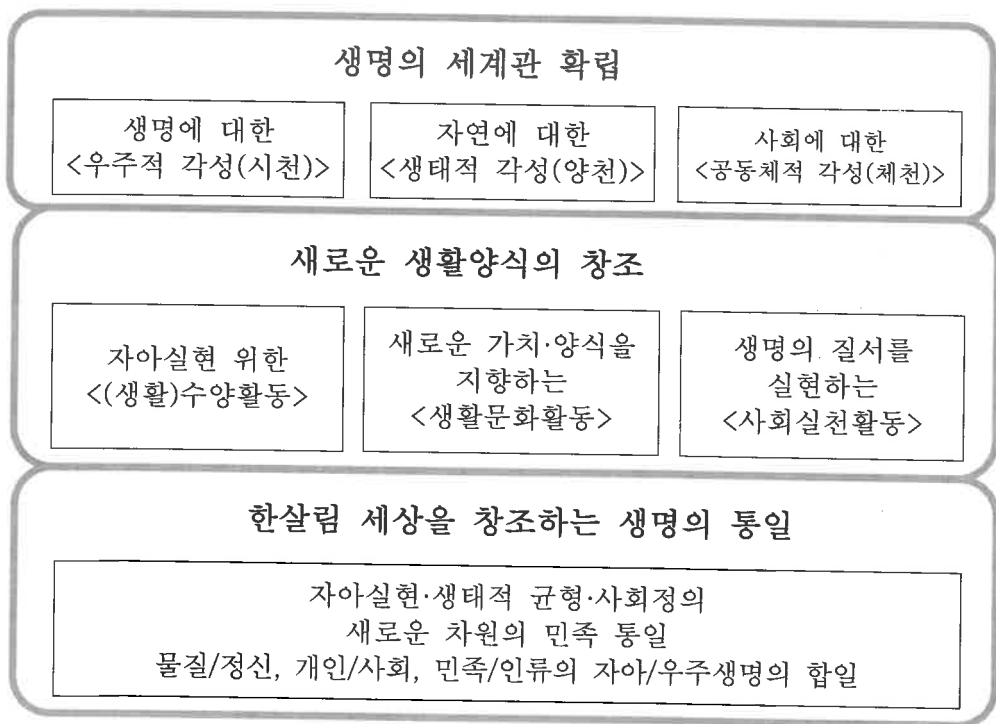
39)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정말 아니다. 녹색의 척도는 ‘성장’이 아니라 ‘순환’이다. 녹색성장은 언뜻 제3의 통합으로, 주지하듯이 경제성장주의와 시장원리주의를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40) 모심과살림연구소(2010)

둘째, 생활양식의 전환이다. 생활운동을 통해 공생과 순환의 생활양식을 창조한다.

셋째, 체제의 전환이다. 사회·정치운동을 통해 국가(재분배)와 시장(상품교환) 사이 너머 사회(호혜)가 중심이 되는 체제를 구성한다.

전환의 기획은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한살림은 동학의 사상과 실천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였다. 그 대강은 그림과 같다.<sup>41)</sup>



41) 모심과살림연구소(2010)에서 출간한 한살림선언 다시읽기에 나온 그림이다. 한살림선언의 핵심 가치와 실천과제, 비전 등을 표로 정리했다.

### 5. 녹색태극

21세기 초입 궁궁의 열망은 무엇일까? 촛불도 이틀테면 욕망과 열망의 이재궁궁이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원초적 생명욕구와 우주적 하나됨의 열망이 모순되는 듯 이중적으로 표출되었다. 생명의 역설이다.

동학은 삶이 그렇듯이 역설적인듯 전일(全一)적이다. 고부의 햇불, 삼례 집회와 고부집회의 합성, 그리고 청수 한 그릇의 기도가 공존한다. '훈'이다. '하나(一)'이면서 '모두(全)'이면서 동시에 '가운데(中)'인 훈, 생명의 존재양식은 훈인지도 모른다. 하나이면서 둘이고(음양, 남북분단), 하나이면서 셋이고(삼재, 사회적 삼재), 하나이면서 다섯(오행)인 것이 훈이다.

동학의 포접과 연비는 네트워크이고 사발통문은 소셜미디어다. 궁궁이라는 생명질서의 전일성이며 순환성이며 창조성이다.

몽골 녹색당 로고가 생각난다. 녹색태극. 모양은 태극인데 녹색과 흰색의 음양이다. 다시 말하자면 녹색 궁궁인 썸이다. 두 가지 이중적 함의가 있을 듯하다. 하나는 서양의 생태주의와 동아시아 생명의 세계관의 만남이다. 둘째 궁궁의 패러다임이 적색에서 청색을 지난 녹색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몽골은 공산국가였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생활의 문제를 적색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수입되었다. 돈만 되면 초원을 파헤치고 땅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며 금을 캐어간다. 청색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녹색 궁궁, 녹색 태극이 전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녹색궁궁이다. 통일시대에 녹색궁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북녘에 있는 천도교청우당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참고문헌

- 김상일(2000), 동학과 신서학, 지식산업사
- 김용욱(2004), 도올심득 동경대전1, 통나무
- 김지하(1994), 동학이야기, 솔
- 김지하(1996), 생명과 자치, 솔
- 김지하(2005),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 김지하(1988), 이 가문 날의 비구름, 동광출판사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2002),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문화사
- 동학학회(2003), 해월 최시형의 사상과 갑진개화운동, 모시는사람들
- 모심과살림연구소(2010),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한살림선언 다시읽기, 한살림
- 박영학(1990), 동학운동의 공시구조, 나눔
-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1999),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 오문환(2003), 동학의 정치철학: 도덕, 생명, 권력, 모시는 사람들
- 이현희(2004), 동학혁명과 민중(上), 한국학술정보(주)
- 이현희(2004), 동학혁명과 민중(下), 한국학술정보(주)
- 임형진(2002), 동학의 정치사상, 모시는사람들
- 장영민(2004),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경인문화사
- 조경달(2008),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 천도교사편찬위원회(1981), 천도교백년약사(상)
- 최민자(2008),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모시는사람들
- 표영삼(2004),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표영삼(2005), 동학2-해월의 고난 역정, 통나무  
황선희(1996),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1, 혜안  
수운 최제우, 동경대전, 천도교경전  
수운 최제우, 용담유사, 천도교경전  
해월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천도교경전

## ◇ 부 록

- 동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혁 since 1998
- 동학학회 관련 언론 보도
- 동학학회 홈페이지 안내
- 동학학회 입회원서

## 동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혁 since 1998

1. 동학학회 창립 중회 및 제1회 학술 세미나 (1998-10-28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2. 제2회 학술 세미나 (1998-11-27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문예진흥원
3. 제3회 1999년도 준계 학술 세미나 (1998-05-28/ 성신여대 수정관 4층)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4. 제4회 1999년도 추계 학술 세미나 (1999-11-19 / 부산예술문화대학 대강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5. 제5회 2000년도 준계 학술 세미나 (2000-06-24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6. 제6회 2000년도 추계 학술 세미나 (2000-10-26 인천대 본관 7층 세미나실)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7. 제7회 2001년 추계 학술 세미나 (2001-5-24 / 전남대 인문대 강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8. 제8회 2001년 추계 학술 세미나 (2001-10-15 / 전도교 대강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9. 2002년도 3월 월례발표회 (2002-3-15 / 전도교 대교당)  
=>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0. 2002년도 4월 월례발표회 (2002-04-19 / 전도교 중앙총부)  
=>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1. 2002년도 준계 학술대회: 갑진개화운동의 재조명 (2002-05-17 / 성신여대)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2. 2002년도 6월 월례발표회 (2002-06-21/ 전도교 중앙총부)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3.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2002-10-28 / 상명대학 회의실)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상명대학교
14. 2003년 4월 월례발표회 (2003-4-19 / 성신여대 수정관)  
=>발표자수 2명
15.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동학과 전통사상 (2003-05-16 / 한국프레스센터)  
=>발표자수 4명, 공동개최 기관명: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6. 2003년 5월 월례발표회 (2003-05-29/ 인하대 6호관 회의실)  
=> 발표자수 1명, 공동개최 기관명: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17.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동학과 서학 (2003-10-17 / 서강대학교 다산관)  
=> 발표자수 5명, 지원기관: 문화관광부
18. 2003년도 11월 월례발표회 (2003-11-08 /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19. 2004년도 3월 월례발표회 (2004-03-13/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20. 2004년도 4월 월례발표회 (2004-4-10 /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21. 2004년도 6월 월례발표회 (2004-06-19 / 성신여대 수정관)  
=>발표자수 2명
22. 갑진개학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학술대회 (2004-09-10)  
=> 발표자수 4명
23. 2004년도 기획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전통준 (2004-10-06 / 전북 고창문화원)  
=> 발표자수 3명
24.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한.중.일.러 국제학술회의  
: 종교와 사회변혁 - 동학을 중심으로 ((2004-10-29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발표자수 4명

25. 2005년도 준계학술대회: 동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2005-05-28)  
=> 발표자수 8명
26. 2005년도 주계학술대회 (서울역사박물관)  
=> 발표자수 6명, 지원기관: 문화관광부
27. 2005년도 특별학술대회 (2005-11-26/ 프레스센터 20층)  
=> 발표자수 6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중부
28. 2006년도 준계학술대회 (2006-5-25/ 순천향대 회의실)  
=> 발표자수 100명
29. 2006년도 국제학술대회 (2006-09-12 /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  
=> 발표자수 8명(한국 3, 국제 5),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0. 2007년 4월 월례학술회의 (2007-04-28)  
=> 발표자수 2명
31. 2007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07-05-26)  
=> 발표자수 2명
32. 2007년 6월 월례학술회의 (2007-06-22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3명(이호영 교수, 차혜영, 박맹수 교수)
33. 2007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07-09-28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2명
34. 2007년 10월 월례학술회의 (2007-10-26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2명
35. 2007년 주계학술대회 (2007-11-23 / 대우재단 제2세미나실 )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6. 2008년 3월 월례학술회의 (2008-03-22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2명
37. 2008년 4월 월례학술회의 (2008-04-26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2명

38. 2008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08-05-24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1명(이길용 교수)

39. 2008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08-09-26 오후 3시 / 수운회관 중학대학원 강의실)

=> 발표자수 2명(남태욱 교수 외)

40. 2008년 추계학술대회 (2008-10-24 / 전도교 중앙중부 대교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기간/장소 : 2008-10-24 /전도교 중앙중부 대교당

○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대 상 : 대학 교수, 전공 학자 및 전문가, 대학(원)생 및 일반

○ 주요내용 : 동학 초기 지도자들의 종교와 정치의 상관성 연구 - 고건호 교수, 동학의 시대인식과 이상적 정치사회관 - 오문환 교수, 전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 - 임형진 교수,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와 정치의 상관관계: 수운의 시천주운동을 중심으로 - 이길용 교수

41. 2008년 11월 월례학술회의 (2008-11-28 오후 3시 / 수운회관 중학대학원 강의실)

=> 발표자수 2명

42. 2008년 12월 월례학술회의 (2008-12-11 오후 3시 / 대우재단 제1세미나실)

=> 발표자수 2명

43. 2009년 3월 월례학술회의 (2009-03-28 (토) 오후 3시 /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임급복(성신여대)

① 전통사유에 나타난 개체성 논의의 문제

발표: 정예정(숙명여대), 토론: 오문환(서강대)

② 수운 최제우의 종교체험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발표: 성애영(서울대) 토론: 김용휘(고려대)

44. 2009년 동학창도 150년 기념 준계학술대회(2009-04-10/ 전도교 중앙중부)

=> 발표자수 8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 창도 150년 기념 준계학술대회

- 계열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

◇ 개회식(14:00-14:20)

개회사 : 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축사 : 김동환(전도교 교령)

◇ 제 1 부 학술 발표(14:20-16:30)                      사 회: 이정희(공주대 교수)

제 1 주제: 박인호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성주현(독립기념관 연구원)

토론: 이현희(성신여대 명예교수)

제 2 주제: 자기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엄찬호(강원대 교수)

토론: 배향섭(고려대 교수)

제 3 주제: 최유연·임중연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조규태(한성대 교수)

토론: 이병규(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연구원)

제 4 주제: 김낙철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박맹수(원광대 교수)

토론: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 휴 식 (16:30-16:50)

◇ 제 2 부 종합토론 (16:50-17:50)                      사 회: 김한식(에스라성경대 총장)

◇ 폐회사 (17:50-18:00)

45. 2009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09-05-23/ 전도교 봉황각-의창수도원)

=> 발표자수 2명

사회: 정예정(동국대)

①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관련 사료 애제

-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사료를 중심으로

발표: 강호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토론: 조규태(한성대)

- ② 하나님 나라와 시천주 - 수양론의 시각으로  
발표: 이길용(서울신학대)  
토론: 이호영(서강대)

46. 2009년 6월 월례학술회의 (2009-06-27/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임금복(성신여대)

- ① 先后天 交易과 최수운의 '다시개벽'  
- 주역 및 정역과의 비교 검토  
발표: 이찬구(수운교 법사원장), 토론: 정혜정(숙명여대)
- ② 동학의 덕에 대한 연구  
발표: 장재봉(한양대), 토론: 오문환(서강대)

47. 2009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09-09-25/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손병옥(경상대)

- ① 범부 김정설의 '최제우론'에 대하여  
발표 : 최재묵(영남대)  
토론 : 김상일(한신대)
- ② 동학에 나타난 공공윤리 연구  
발표 : 김용환(중북대)  
토론 : 남태옥(서울신학대)

48. 2009년 동학학회 주계국제학술회 (2009-10-16/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 발표자수 7명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

개회사: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격려사: 김동환 (전도교 교령)

즉 사: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 제 1 부 동학과 생명사상(10:00~12:00) 사 회: 조규태(한성대 교수)

제 1 주제: DONGHAK CONCEPTS OF GOD AND LIFE  
- WITH SPECIAL REFERENCE TO YI DON-HWA'S INTERPRETATION

발표: 김용준(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前 교수)

토론: 김태장(일본 공공철학공동연구소 소장)

제 2 주제: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

발표: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 YAGYU Makoto(일본 공공철학공동연구소 특임연구원)

제 3 주제: 에코페미니즘과 동학의 모성론

발표: 최문형(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토론: 김은실(성신여대 연구교수)

◇ 제 2 부 동학과 세계화(13:00~15:40) 사 회: 김기승 (순천향대 교수)

제 1 주제: 동학의 현대적 의미와 세계화

발표: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오문환(서강대 강사)

제 2 주제: Donghak Ideology and Democracy of Korean Type

발표: Kurbanov Sergey(러시아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교수)

토론: 김준성(부산예대 교수)

제 3 주제: 东学思想的后现代“倾向性”探析

발표: 방호범(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김용애(서강대 교수)

제 4 주제: 동학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세계화 방안

발표: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원대 중장)

토론: 정예정(숙명여대 교수)

◇ 휴 식 (15:40~16:00)

◇ 제 3 부 종합토론 (16:00-17:00)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 폐 회 (17:00)

49. 2009년 11월 월례학술회의 (2009-11-27/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김용휘(고려대)

① 동학농민전쟁과 독일농민전쟁의 비교적 고찰

- 종교적 외피론을 중심으로

발표: 남태옥(서울신대), 토론: 박맹수(원광대)

② 동학의 삼질자 주문과 다시개혁의 함의

발표: 손병옥(경상대), 토론: 정예정(숙명여대)

50. 2010년 동학학회 준계학술대회 (2010-3-26/ 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

=> 발표자수 5명

동학과 서학의 만남: 동학과 근·현대서양사상의 비교론적 고찰

◇ 개회식(13:10-13:30)

개회사 : 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축사 : 김동환(전도교 교령)

◇ 제 1 부 학술 발표(13:30-17:10)                      사 회: 김기승(순천향대)

제 1 주제: 이돈학의 인내천주주의와 서양근대철학 (13:30-14:10)

발표: 정예정(인천대)

토론: 여수(한림대)

제 2 주제: 미셀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해월의 향아설위 (14:10-14:50)

발표: 허경(고려대)

토론: 김용휘(고려대)

제 3 주제: 키에르케고어와 수운의 인간이애 비교 (14:50-15:30)

발표: 홍경실(고려대)

토론: 김용애(서강대)

◇ 휴 식 (15:30-15:50)

제 4 주제: 헤겔의 정신철학과 동학 (15:50-16:30)

발표: 조극훈(동국대)

토론: 김영철(한양대)

제 5 주제: 막스웰러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천주적 인간학 (16:30-17:10)

발표: 임상옥(숙명여대)

토론: 이유선(서울대)

◇ 제 2 부 종합토론 (17:10-18:00)      사 회: 황선희(상명대)

◇ 폐회

51. 2010년 4월 월례학술회의 (2010-04-30/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안희순(한서대)

① 일본근대사에서 본 제2차 동학농민전쟁

발표: 강호숙(진실과 화해위원회)

② 남북 통일전략과 전봉준에 대한 특한의 해석 - 서구 비폭력전쟁과 관련하여

발표: 노정선(연세대)

52. 2010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10-05-28/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김용휘(고려대)

① 천도교의 생사관

발표: 오문환(서강대)

② 동학의 생명론과 여성

발표: 김준성(부산여대)

53. 2010년 6월 월례학술회의 (2010-6-25일, 오후 2시/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① 셸리 맥페이그와 캐럴 사상에서 살펴본 자연과 인간의 소통 불가능성의 가능성

발표: 발표 : 차옥승 교수 (이화여대)

②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이문화론 중심으로

발표: 김용휘 교수(고려대)

54. 2010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10-9-30일, 오후 2시/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 발표자수 2명

사회: 남태옥(서울신대)

① 동학 천도교의 인간존엄성의 근거

발표: 김용애 교수 (서강대)

② 범부 김정설의 동학관

발표: 박맹수 교수(원광대)

## 동학학회 관련 언론 보도

□ 2009년 2월 동학학회 회장취임 관련 언론보도 4건

2009년 2월 3일



〈게시판〉 동학학회 회장에 최민자 교수

◇ 동학학회는 제4대 학회장으로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정치외교학)를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최 교수는 앞으로 2년동안 학회에서 동학사상 연구활동을 이끌게 된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2009년 2월 3일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 동학학회 4대 회장 취임

◇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민자(54) 교수는 3일 2년 임기의 동학학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교수는 취임사에서 "2009년은 동학 창도 15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현대과학 및 생명사상을 주제로 삼아 동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학학회는 동학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연구를 위해 1998년 설립됐다.

박준형 기자 jun@newsis.com

2009년 2월 3일

 경향 < 게시판 >

◇ 동학학회는 제4대 학회장으로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를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09년 2월 23일

 chosun.com [사회 - 플라자]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최근 동학학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 2009년도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언론보도 1건

2009년 3월 30일

 연합뉴스

◇ 동학학회는 내달 3일 천도교 중앙총부 대교당에서 '계열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을 주제로 동학 창도 150주년(4월5일)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894년 발생한 동학혁명 당시 박인호, 차기석 등 집단별로 활동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특성 및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고, 혁명 이후 각 집단의 동향을 분석하는 자리다.

성주현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박인호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엄찬호 강원대 교수는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조규태 한성대 교수는 '최유현과 임종현계'의 활동에 대해, 박맹수 원광대 교수는 '김낙철계'의 활약상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배항섭 고려대 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연구원, 황선희 상명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제91회 日本公共哲學 KYOTO FORUM  
(2009년 8월 22-24일) 관련 보도

2009년 12월호, 통권 711호

『신인간』 - 신인간사

“제91회 日本 公共哲學 KYOTO FORUM에 관한 총평”  
(p.84-p.95)

동학학회 홈페이지(<http://www.donghaks.org>) ‘언론보도’란 참조.

2009년 10월 1일

「公共的良識人」 - 日本公共哲學學會

“제91회 공공철학학회 교토포럼 - 한과 동학과 생명” (p.1-p.12)

동학학회 홈페이지(<http://www.donghaks.org>) ‘언론보도’란 참조.

□ 2009년도 동학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언론보도 6건


2009년 10월 9일

**한겨레**  
THE HANGYEREH

10월 9일 학술 단신

◇ 동학학회는 16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라는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5개국 학자들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한다. (02)739-8605.


2009년 10월 9일

 **뉴스천지** 동학학회,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 학술세미나

◇ 동학학회(회장 최민자)는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동학 창립 15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동학과 현대사상의 만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동학학회 최민자 회장은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사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공존공영의 패러다임을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환 천도교 교령이 격려사를 전하며, 이현희(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전한다. 이어 동학학회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회장이 '동학과 현대과학의 생명사상'을,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가 '동학의 현대적 의미와 세계화'를,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장이 '동학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세계화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mailto:yykim@newscj.com)

2009년 10월 11일

 **연합뉴스** 동학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언론보도

◇ 동학학회(회장 최민자)는 1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를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학자들이 참여하며 1부와 2부에선 '동학과 생명사상', '동학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하고 3부에선 종합토론을 한다.

[kimyg@yna.co.kr](mailto:kimyg@yna.co.kr)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2009년 10월 14일

**dongA.com** 동학학회 16일 학술대회 언론보도

◇ 동학학회는 동학 창도 150돌을 맞아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를 주제로 △신과 인간에 관한 동학의 구상들: 이돈화의 해석을 중심으로(김용준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명예교수)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 이념과 한국형 민주주의(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 △동학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세계화 방안(김한식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장)을 발표한다.

2009년 10월 14일

**'서울신문'** 동학창도 15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학학회(회장 최민자)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동학창도 150년 기념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미국·러시아 5개국의 교수, 학자들이 참여한다. 1부는 '동학과 생명사상', 2부는 '동학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발표, 3부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02)739-8604.

2009년 10월 15일

**한국일보** ◇ '동학과 생명사상...' 학술대회

동학학회는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생명사상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를 1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연다. 국가·지역·계층 간 격차, 공동체의식 쇠퇴 등 세계화로 인한 폐해의 대안도 모색한다.

□ 2010년 동학학회 추계학술대회 관련 기사 보도 5건

2010년 3월 25일



**‘동학과 서학의 만남’ 학술대회**

동학학회는 26일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아 ‘동학과 서학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동학을 푸코, 키에르케고어, 헤겔 등 서양의 근·현대 사상과 비교하며 동학을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정혜정 인천대 교수가 ‘이돈화의 인내천 주의와 서양근대철학’, 허경고려대 교수가 ‘미셸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과 해월의 향아설위’, 홍경실 고려대 교수가 ‘키에르케고어와 수운의 인간이해 비교’, 조극훈 동국대 교수가 ‘헤겔의 정신철학과 동학’, 임상욱 숙명여대 교수가 ‘막스 쉐러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천주적 인간학’을 각각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서울 종로의 수운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02)739-8605

2010년 3월 24일

## '서울신문' [종교·학술플러스] '동학·서학 만남' 학술회

동학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동학과 서학의 만남'을 26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에서 연다.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양의 사상과 동학을 비교해 동학적 사유의 특성을 밝히고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2010년 3월 22일

## Joins 중앙일보

◇ 동학학회(회장 최민자)는 '동학과 서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26일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에서 연다. 동학 창도 1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동학과 서양 근·현대 사상을 비교하며 동학적 사유의 특성을 살펴본다. 02-739-8605.

2010년 3월 20일

## 연암뉴스 <문화소식> '동학과 서학의 만남' 학술대회

▲ 동학학회는 동학과 서양의 근현대사상을 비교 고찰하는 춘계학술대회 '동학과 서학의 만남'을 26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에서 연다.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셸 푸코, 키에르케고르, 헤겔, 막스 쉐러 등 서양의 사상과 동학을 비교해 동학적 사유의 특성을 밝히고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천도교 김동환 교령이 축사를 맡아 참석한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2010년 3월 17일



### 창도 150년, 동학과 서학의 만남

동학학회가 26일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이해 동학과 서양의 근·현대사상을 비교 고찰하는 춘계학술대회를 수운회관에서 개최한다. 동학과 서학의 만남을 통해 동학의 사상적 지평을 넓히고, 철학적 담론의 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사상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천도교 김동환(76·사진) 교령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순천향대 김기승(54) 교수가 사회를 본다. 최민자(55) 회장은 “지금까지 동학과 서학의 비교론적 고찰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학술대회의 주제로 설정해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미셀 푸코, 키에르케고어, 헤겔, 막스 셸러 등 서양의 근·현대사상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동학적 사유의 특성을 밝히고 동학의 현대적 재해석과 더불어 동학의 세계화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공존의 대안사회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인천대) 허경(고려대) 홍경실(고려대) 조극훈(동국대) 임상욱(숙명여대) 교수 등이 발표하고, 허수(한림대) 김용휘(고려대) 김용해(서강대) 김영철(한양대) 이유선(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진현철 기자 agacul@newsis.com

# 동학학회 홈페이지 안내



동학학회 The Donghak Society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1길 10-1 동학사 102호 TEL: 02-702-0104  
Copyright 2007 All rights reserved by The Donghak Society

<http://www.donghaks.org>

학회의 공지사항 및 제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동학학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 및 학회지 검색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토앨범에서는 학술회의 및 답사 사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원님의 수상 및 저서 출판 소식 등을 전해주시면 [회원 동정]란에 올려드립니다.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 동학학회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동학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도 家內 두루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동학학회가 창립된 지도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학학회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힘입어 實 있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승격 1차 심사’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동학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연회비 납부 회원님들께는 1년에 두 차례 동학학보를 보내드리고, 학회 행사시 초청장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연회비 납부 및 후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학회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51075 , 예금주: 최민자(동학학회)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기관회원 : 연회비 10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 회원가입 안내 >

학회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원서 - 동학학회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 가능)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동학학회 개인회원 입회원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전공 및 전공 분야		
소 속	직위		연락처
주 소			
e-mail			
제출학회	취학년도	수여 기관	취득 학위
학위논문제출			
주요 저서 및 논문		출판년도	출판사 및 발행지
<p><input type="checkbox"/> 회원가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학회 제작본 회비 입금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원 등록이 됩니다. 홈페이지(<a href="http://www.donghaks.org">http://www.donghaks.org</a>)에서 입회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입회원서는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학회회차 : 국민은행 009901-04-051076 , 영문주소: 최민자(동학학회) 개인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비 30만원 기관회원 : 연회비 10만원 / 평생회비 50만원</li> <li>○ 회원복합: 연 2회 출판되는 『동학파문』을 보내드립니다.</li> </ul>			
<p><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동문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동학학회(110-310)</li> <li>○ 연락처 02-739-8606, 010-9970-9130 (Fax 02-739-8604)</li> <li>○ E-mail donghak1998@naver.com</li> </ul>			
<p>본인은 동학학회에 가입하여 ( 일반 / 평생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합니다.</p>			
<p>본 필 일 신청인</p>			<p>서명 ㉠</p>
<h3 style="margin: 0;">동 학 학 회 귀 중</h3>			

# 동학학회 자료집

제55집

「이 제작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

2010년 10월 26일 인쇄

2010년 10월 28일 발행

발행인 | 최민자

편집인 | 임유선

인쇄처 | 예웅기획

발행처 | 동학학회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동학학회

Mobile | 010-9970-9160

E-mail | donghak1998@naver.com

Phone | 02-739-8605

Fax | 02-739-8604

homepage | <http://www.donghaks.org>

